2015 창작공간지원사업 평가연구

2016.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 출 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15 창작공간지원사업 평가 연구”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2월

주관연구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구수행기관 : 한국창조산업연구소

연구책임자 : 고정민 (한국창조산업연구소 소장)

연구원 : 박지혜 (한국창조산업연구소 연구원)

양지훈 (한국창조산업연구소 연구원)

보조연구원 : 장영준 (한국창조산업연구소 연구원)

전현성 (한국창조산업연구소 연구원)

목 차

Ⅰ. 평가개요 ····· 3
1. 평가개요 ····· 3
2. 평가방법 ····· 5

Ⅱ. 사업현황 ····· 17
1. 평가대상사업 전체현황 ····· 17
2. 평가대상사업 일반현황 ····· 21

Ⅲ. 종합평가결과 ····· 29
1. 전체평가결과 ····· 29
2. 문학부문 세부평가결과 ····· 31
2. 시각부문 세부평가결과 ····· 33

Ⅳ. 우수사례 ····· 23
1. 국제교류 우수사례-토탈미술관 ····· 25
2. 운영전략 우수사례-Project Space 사루비아다방 ····· 30
3. 지역공간 우수사례-스페이스몸미술관 ····· 30
4. 청년공간 우수사례-800/40 ····· 30

표 목 차

<표 1-1> 평가대상 사업 ····· 4
<표 1-2> 현장 및 서면 평가방법 ····· 5
<표 1-3> 평가등급 ····· 7
<표 1-4> 창작공간지원사업 평가지표 ····· 8
<표 1-5> 시각예술창작및전시공간 세부 평가지표 ····· 9
<표 1-6> 문학창작집필공간 세부 평가지표 ····· 11
<표 1-7> 평가위원 구성 ····· 13
<표 2-1> 문학창작집필공간 선정단체 ····· 17
<표 2-2> 시각예술창작및전시공간 선정단체 ····· 17
<표 2-3> 문학창작집필공간 일반현황 ····· 21
<표 2-4> 시각예술창작 및 전시공간 일반형황 ····· 22
<표 2-5> 2015년 문학창작집필공간 사업집행 결과 ····· 23
<표 2-6> 2015년 시각예술창작및전시공간 사업집행 결과 ····· 24
<표 3-1> 2015년 창작공간지원사업 문학부문 평가결과 ····· 29
<표 3-2> 2015년 창작공간지원사업 시각부문 평가결과 ····· 30
<표 4-1> 로드쇼 2015 7번국도 ····· 116
<표 4-2> Playground in Island 2015 ····· 116
<표 4-3> 사루비아 공모기획전 ····· 126
<표 4-4> 사루비아 인사이트(Sarubia Insight) ····· 126
<표 4-5> Playground in Island 2015 ····· 126
<표 4-6> SO.S프로그램 ····· 128
<표 4-7> 스페이스몸미술관 전시키워드 ····· 131
<표 4-8> 차이의 공간 ····· 131
<표 4-9> 장소를 품다 ····· 132
<표 4-10> 불사조는 재로부터 나올것인가? ····· 133
<표 4-11> 세운상가 좋아요, 대림상가 좋아요, 청계상가 좋아요 ·· 136
<표 4-12> 24시간 전시, 24시간 레지던시 ····· 137

그 림 목 차

<그림 1-1> 평가추진체계 ····· 4
<그림 1-2> 평가진행 프로세스 ····· 6
<그림 2-1> 문학창작집필공간 지원예산 ····· 18
<그림 2-2> 시각예술창작및전시공간 지원예산 ····· 19
<그림 2-3> 평가대상사업 권역별 분포’ ····· 19
<그림 2-4> 세부 지역별 분포 ····· 19
<그림 2-5> 평가대상사업 지역별 분포 ····· 20
<그림 4-1> 사루비아다방의 변화 모색 방안 ····· 124

Ⅰ. 평가개요

1. 평가개요
2. 연구범위 및 방법

Ⅰ. 평가개요

1. 평가개요

가. 연구 목적

○ 2015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지원되는 창작공간지원사업에 대한 타당성, 효용성 및 기여도를 평가하여 선정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평가환류를 통한 차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효율성 및 성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평가 시행

- 창작공간지원사업의 추진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공정한 지원 및 효율적인 공공지원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나. 평가 방향

○ 평가사업 분야별(문학, 시각)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 위촉

○ 공공지원 목적을 기준으로 사업계획, 사업운영, 사업성과 단계별 평가지표 구성

○ 평가위원 및 평가주관기관의 사전 서면자료 검토, 현장실사, 관계자 인터뷰, 사후자료검토를 통한 종합적인 평가 시행

다. 평가 대상 사업

○ 문학창작집필공간지원사업

-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작가 간, 작가와 독자 간 교류활동을 지원하는 문학관, 집필실 등 문학 전문공간의 운영을 지원하여 작가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문학 창작여건을 개선

○ 시각예술창작및전시공간지원사업

- 민간이 운영하는 시각예술창작 및 전시공간(사립미술관, 대안공간, 창작스튜디오 등)을 지원함으로서 특화된 창작 활동의 거점을 확충하

며, 예술가(단체)의 안정적 창작 기반을 제공함

〈표 1-1〉 평가대상 사업

지원사업명	대상건수
○ 문학창작집필공간지원	6
○ 시각예술창작및전시공간지원	36
합 계	**42**

라. 추진 체계

○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위원 구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확정

○ 평가위원은 개별 평가(서면자료 검토, 현장실사 등) 이후 전체 평가위원과의 결과회의를 통해 최종 평가결과 확정

〈그림 1-1〉 평가추진체계



2. 평가방법

가. 평가절차 및 방법

○ 창작공간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종합하여 평가결과를 도출
- 서면평가 : 평가대상공간의 교부신청서(사업계획서), 성과보고서 등 사전, 사후자료 검토 및 평가
- 현장실사 : 현장답사 및 관계자 인터뷰를 통한 현장평가
- 최종평가결과(안) 도출 : 현장평가결과 및 사전, 사후서면평가 결과를 취합한 최종평가결과 도출
- 결과회의: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안) 검토 및 평가결과 확정

〈표1-2〉 현장 및 서면 평가방법

평가방법	평가영역	평가담당	비고
현장평가	사업운영	평가위원(2인)/ 현연구진(1인)	사업계획에 따라 공간운영 및 프로그램운영의 과정을 점검하고 정성적 평가지표를 토대로 현장에서 사업운영 및 성과를 평가
	사업성과		
서면평가	사업기획	평가위원	사전자료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수립 등의 적절성을 평가
	사업운영	평가위원/ 평가주관	사후자료검토를 통한 사업운영 및 성과단계에서의 정성적, 정량적 지표를 평가
	사업성과		

○ 1차 서면평가
- 서면평가는 평가대상사업의 교부신청서, 중간성과보고서 등 서면자료를 요청하여 제출된 서면자료를 토대로 평가위원 및 평가주관기관이 각 평가항목별 1차 점수를 부여
- 1차적으로 서면평가를 시행한 후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 및 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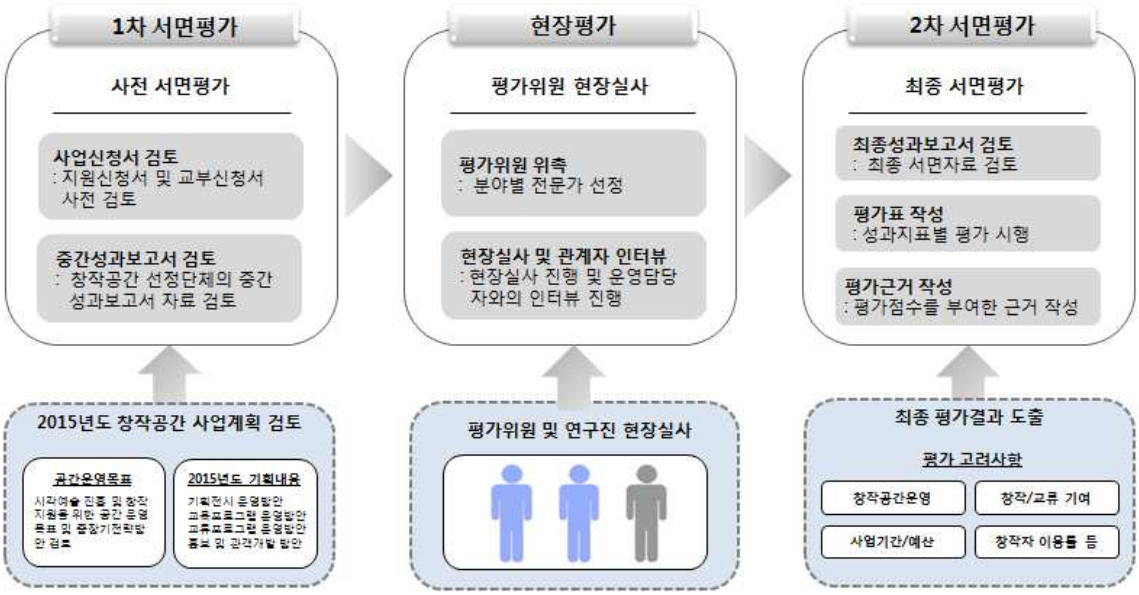
○ 현장평가

- 전문가 평가단 및 연구진의 현장실사 시행
- 전문가 평가위원 2인과 연구진 1인의 총 3회에 걸친 현장실사 실행
- 서면자료(사업계획서 등) 내용을 검토한 후 평가위원의 현장실사를 통해 공간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평가
- 현장실사는 관계자 인터뷰를 시행하여 사업운영 및 사업성과 부문 중심으로 평가
- 사업 진행기간 중 평가위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하되 지정된 평가서 양식을 활용하여 각 지표별 점수를 부여하고 평가근거를 기술

○ 2차 서면평가

- 현장실사 이후 최종 성과보고서를 기반으로 2차 서면평가를 실시
- 1차 서면평가, 현장평가, 2차 서면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평가점수 부여

〈그림1-2〉 평가진행 프로세스



나. 평가척도 및 등급

○ 평가척도

- 정성평가 지표는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해당 지표에 점수를 부여하며, 총 3인의 평가위원, 연구진의 평균점수 도출

- 정량평가 지표는 평가대상 단체에서 제출한 서면자료를 근거로 세부 지표별 계량 수치 기준 점수를 부여

○ 평가점수 및 등급
- 평가점수는 총 100점 만점으로 지표별 세부 배점에 차이를 부여
- 평가위원 3인(전문가 및 연구진) 점수와 평가주관의 양적지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점수 및 등급을 산출
- 평가위원 결과회의 시 협의를 통해 최종 결과를 확정하고 평가점수에 따른 공간별 주요성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작성

〈표1-3〉 평가등급

등급	A(최우수)	B(우수)	C(적합)	D(미흡)	E(매우미흡)
평점기준	90점 이상	90점 미만~ 85점 이상	85점 미만~ 80점 이상	80점 미만~ 75점 이상	75점 미만

다. 평가지표

1) 평가지표 개발

○ 평가대상의 사업특성분석 및 논리모형 활용을 통한 평가지표 도출
- 분야별 사업의 특성을 분석하여 성과요소를 도출하고, 논리모형의 투입(Input)-과정(Process)-산출(Output)-성과(Outcome) 단계에 따른 1차 평가지표 개발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1차 개발된 평가지표의 점검 및 보완을 통한 최종 평가지표 도출

○ 전문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협의를 통한 지표부문별 가중치 도출
- 지표 부문별 사업기획(15), 사업운영(40), 사업성과(45)로 가중치를 도출하였으며, 세부지표별 가중치 점수 도출

〈표1-4〉 창작공간지원사업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지표	배점
A. 사업기획 (15점)	계획	사업목적의 부합성	질적	5
		사업계획의 타당성	질적	5
		- 당해연도 목표수립	질적	(3)
		- 중장기계획 수립	질적	(2)
		사업운영계획의 적절성	질적	5
B. 사업운영 (40점)	투입	조직구성의 적절성	질적	6
		예산집행의 효율성	질적	5
	과정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	질적	5
		공간운영 및 사업진행의 적절성	질적	5
		작가선정의 타당성	질적	5
		홍보마케팅의 효율성	질적	4
		수혜자서비스의 적절성	질적	5
		개선 및 발전노력	질적	5
		- 개선 및 발전노력	질적	(4)
		- 만족도조사 시행여부(가산점부여)	양적	(1)
C. 사업성과 (45점)	성과	당해연도 목표달성도	양적/ 질적	5
		공간가동률	양적	6
	사회적 효과	수혜자만족도	양적/ 질적	4
	예술진흥 효과	예술적 완성도	질적	15
		- 예술적완성도 기여	질적	(8)
		- 언론보도실적 및 평론계의 호응도	질적	(7)
		예술교류 및 발전기여	질적	15
		- 예술교류 촉진 기여	질적	(8)
		- 해당분야 발전 기여	질적	(7)
합계				100

2) 분야별 평가지표

○ 창작공간지원사업의 평가항목은 공통평가지표를 기본으로 평가대상사업의 유형(장르)별 특성에 따라 개별평가지표를 항목을 포함

- 공통평가지표에서도 유형별 공간 및 운영의 특성에 따라 측정방법을 달리 적용

· 당해연도 목표달성율 지표의 경우 시각예술창작및전시공간 평가에서는 정량적으로 평가, 문학창작집필공간의 경우에는 정성적으로 평가

○ 시각예술창작및전시공간 평가지표

- 사업기획-사업운영-사업성과 영역별 정량적·정성적 평가지표 도출
- 각 세부지표별 평가착안점을 도출하여 평가위원의 객관적인 평가를 유도

〈표1-5〉 시각예술창작및전시공간 세부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세부내용
A. 사업 기획 (15점)	계획	①사업목적의 부합성	• 주 사업목적이 창작공간지원사업 목적에 부합하는가
		평가착안점	- 창작공간지원사업 목적에 부합하는가 - 공간운영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인가
		②사업계획의 타당성	• 달성가능한 당해연도 세부 목표 및 실행계획이 설정되어 있는가
			• 중장기계획(비전)의 수립이 적절한가
		평가착안점	- 실현가능한 당해연도 세부목표를 설정하였는가(관람객 증대, 교류활동 회수 확대 등)
			-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계획이 수립되어있는가 - 단계별 목표수립이 적절한가
		③사업운영계획의 적절성	• 사업운영계획(내용)이 적절하고 구체적인가
		평가착안점	- 프로그램별 계획이 사업목표와 부합하는가 - 프로그램별 추진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는가
B. 사업 운영 (40점)	투입	④조직구성의 적절성	• 운영조직체계(조직위, 집행위, 사무국 등) 인력(기획자, 운영스텝 등)은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평가착안점	- 기획자, 운영스텝 등 투입인력이 적절한가 - 자문그룹(위원) 구성 또는 활용을 위해 노력하였는가
		⑤예산집행의 효율성	• 전체 투입예산 대비 사업규모 및 프로그램 내용이 적절히 구성되었는가
		평가착안점	-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가
	과정	⑥프로그램운영의 적절성	• 세부프로그램은 기획 의도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가
		평가착안점	- 세부 프로그램이 당초 계획 및 기획의도와 부합하는가
		⑦공간운영 및 사업진행의 적절성	• 공간운영 계획에 맞게 공간활용과 사업진행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평가착안점	- 공간구성 및 활용이 적절한가 - 주요시설(전시실, 창작실) 및 부대시설(세미나, 교육공간 등)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는가
		⑧작가선정의 타당성	• 참여작가(예술가) 선정이 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평가착안점	- 작가(입주자 및 예술단체 선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였는가 - 기준에 맞게 적합한 작가(입주자) 및 예술단체를 선정하였는가
		⑨홍보마케팅의 효율성	• 홍보활동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평가착안점	- 홍보마케팅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가 - 홍보마케팅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언론매체, 신문, 온라인, SNS 홍보 등)
		⑩수혜자서비스의 적절성	• 수혜자(창작자/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었는가
		평가착안점	- 작가(입주자) 및 관람객을 위한 서비스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계획된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하고 있는가(안내서비스, 시설활용, 장애인 편의서비스 등)
		⑪개선 및 발전노력	• (신규사업) 창작공간 및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table>
<tr><td rowspan="3"></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 (계속사업) 전년도 평가결과를 반영한 문제점 개선 노력을 시행하고 있는가</td></tr>
<tr><td>• 수혜자 만족도 조사 시행여부(가산점 부여)
<u>점수 부여(예시)</u>
<table><tr><td>시행</td><td>미시행</td></tr><tr><td>1점</td><td>0점</td></tr></table></td></tr>
<tr><td></td><td>평가착안점</td><td>– (신규사업)자체평가계획, 관객개발계획 등을 수립하였는가
– (계속사업)전년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는가
– 자체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위해 노력하였는가</td></tr>
<tr><td rowspan="10">C.
사업
성과
(45점)</td><td rowspan="4">성과</td><td rowspan="2">⑫당해연도
목표달성도</td><td>• 당해연도 목표달성도(산식: 실측치/목표치*100)
<u>점수배점(예시)</u>
<table><tr><td>구분</td><td>60% 미만</td><td>60%이상~
70%미만</td><td>70%이상~
80%미만</td><td>80%이상~
90%미만</td><td>90%이상</td></tr><tr><td>관람객</td><td>1점</td><td>2점</td><td>3점</td><td>4점</td><td>5점</td></tr></table></td></tr>
<tr><td>• 계량적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사업계획서 상의 당해연도 목표를 충실히 달성 하였는지를 평가위원이 질적으로 평가</td></tr>
<tr><td rowspan="2">⑬공간가동률</td><td rowspan="2">• 공간가동률=전시, 행사, 사업일 수 / 365일(준비기간 제외)
<u>점수배점(예시)</u>
<table><tr><td>공간
가동률</td><td>50%미만</td><td>50%-
60%미만</td><td>60%~
70%미만</td><td>70%~
80%미만</td><td>80%~
90%미만</td><td>90%이상</td></tr><tr><td>배점</td><td>1점</td><td>2점</td><td>3점</td><td>4점</td><td>5점</td><td>6점</td></tr></table></td></tr>
<tr><td rowspan="2">사회
적
효과</td><td rowspan="2">⑮수혜자 만족도</td></tr>
<tr><td>• 창작자/관람객 만족도(조사 미수행시 평가위원의 질적평가)
<u>점수배점(예시)</u>
<table><tr><td>만족도</td><td>70점 미만</td><td>70점 이상
~80점 미만</td><td>80점 이상
~90점 미만</td><td>90점 이상</td></tr><tr><td>배점</td><td>1점</td><td>2점</td><td>3점</td><td>4점</td></tr></table></td></tr>
<tr><td>평가착안점</td><td>– 관람객이 전시관람에 흥미 있어 하는가
– 관람객 및 창작자가 공간이용에 만족스러워 하는가</td></tr>
<tr><td rowspan="6">예술
진흥
효과</td><td rowspan="2">⑯예술적 완성도</td><td>• 창작자들이 창작물의 예술적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는가</td></tr>
<tr><td>• 지원된 사업이 고객이나 대중매체, 평론계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는가</td></tr>
<tr><td rowspan="2">평가착안점</td><td>– 프로그램의 기획력 및 공간구성력이 우수하여는가(기획 · 연출 · 구성의 실험성, 예술성, 차별성 등)
– 창작물의 예술성이 우수하였는가</td></tr>
<tr><td>– 언론보도 실적이 있는가
– 평론계의 좋은 호응이 있었는가</td></tr>
<tr><td rowspan="2">⑰예술교류 및
발전기여</td><td>• 창작자 및 예술인들 간 상호교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는가</td></tr>
<tr><td>• 해당분야의 발전 및 사회적 관심 확산에 기여하였는가?</td></tr>
<tr><td>평가착안점</td><td>– 창작자, 예술인 및 예술단체간 상호교류를 촉진시켰는가
– 지역주민의 참여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이끌었는가
– 예술현장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는가
–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였는가</td></tr>
</table>

○ 문학창작집필공간 평가지표

- 사업기획-사업운영-사업성과 영역별 정량적·정성적 평가지표 도출
- 각 세부지표별 평가착안점을 도출하여 평가위원의 객관적인 평가를 유도

〈표1-6〉 문학창작집필공간 세부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세부내용
A. 사업 기획 (15점)	계획	①사업목적의 부합성	• 주 사업목적이 창작공간지원사업 목적에 부합하는가
		평가착안점	- 창작공간지원사업 목적에 부합하는가 - 공간운영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인가
		②사업계획의 타당성	• 달성가능한 당해연도 세부 목표 및 실행계획이 설정되어 있는가
			• 중장기계획(비전)의 수립이 적절한가
		평가착안점	- 실현가능한 당해연도 세부목표를 설정하였는가 -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계획이 수립되어있는가 - 단계별 목표수립이 적절한가
		③사업운영계획의 적절성	• 사업운영계획(내용)이 적절하고 구체적인가
		평가착안점	- 프로그램별 계획이 사업목표와 부합하는가 - 프로그램별 추진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B. 사업 운영 (40점)	투입	④조직구성의 적절성	• 운영조직체계(조직위, 집행위, 사무국 등) 인력(기획자, 운영스텝 등)은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평가착안점	- 기획자, 운영스텝 등 투입인력이 적절한가 - 자문그룹(위원) 구성 또는 활용을 위해 노력하였는가
		⑤예산집행의 효율성	• 전체 투입예산 대비 사업규모 및 프로그램 내용이 적절히 구성되었는가
		평가착안점	-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가
	과정	⑥프로그램운영의 적절성	• 세부프로그램은 기획 의도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가
		평가착안점	- 세부프로그램이 당초 계획 및 기획의도와 부합하는가
		⑦공간운영 및 진행의 적절성	• 공간운영계획에 맞게 공간배치, 프로그램 진행 등이 적절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평가착안점	- 공간구성 및 활용이 적절한가 - 주요시설(창작실) 및 부대시설(세미나실, 교육공간 등)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는가
		⑧작가선정의 타당성	• 사업운영을 위한 작가 선정이 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평가착안점	- 작가(입주자) 및 예술단체 선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였는가 - 기준에 맞게 적합한 작가(입주자) 및 예술단체를 선정하였는가
		⑨홍보마케팅의 효율성	• 홍보활동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평가착안점	- 홍보마케팅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가 - 홍보마케팅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⑩수혜자서비스의 적절성	• 입주작가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었는가
		평가착안점	- 작가(입주자) 및 관람객을 위한 서비스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계획된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하고 있는가
		⑪개선 및 발전노력	• (신규사업) 창작공간 및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table>
<tr><td rowspan="7"><b>C.
사업
성과
(45점)</td><td rowspan="3"></td><td rowspan="2"></td><td>• (계속사업) 전년도 평가결과를 반영한 문제점 개선 노력을 시행하고 있는가</td></tr>
<tr><td>• 수혜자 만족도 조사 시행여부(가산점 부여)
<u>점수 부여(예시)</u>
<table><tr><td>시행</td><td>미시행</td></tr><tr><td>1점</td><td>0점</td></tr></table></td></tr>
<tr><td>평가착안점</td><td>– (신규사업) 자체평가계획, 관객개발계획 등을 수립하였는가
자체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위해 노력하였는가
– (계속사업) 전년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는가
자체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위해 노력하였는가</td></tr>
<tr><td rowspan="3">성과</td><td>⑫당해연도
목적달성도</td><td>• 사업계획서 상의 당해연도 목표를 충실히 달성 하였는가</td></tr>
<tr><td>평가착안점</td><td>– 입주작가선발, 교류활동, 관람객 등 사업 초기 계획한 당해연도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였는가</td></tr>
<tr><td>⑬공간가동률</td><td>• 공간가동률=작가 이용일 수 / 365일x창작집필실개수(준비기간 제외)
<u>점수배점(예시)</u>
<table><tr><td>공간
가동률</td><td>50%미만</td><td>50%-
60%미만</td><td>60%~
70%미만</td><td>70%~
80%미만</td><td>80%~
90%미만</td><td>90%이상</td></tr><tr><td>배점</td><td>1점</td><td>2점</td><td>3점</td><td>4점</td><td>5점</td><td>6점</td></tr></table></td></tr>
<tr><td rowspan="2">사회
적
효과</td><td>⑮수혜자
만족도</td><td>• 수혜자(입주자) 만족도(조사 미수행시 평가위원의 질적평가)
<u>점수배점(예시)</u>
<table><tr><td>만족도</td><td>70점 미만</td><td>70점 이상
~80점 미만</td><td>80점 이상
~90점 미만</td><td>90점 이상</td></tr><tr><td>배점</td><td>1점</td><td>2점</td><td>3점</td><td>4점</td></tr></table></td></tr>
<tr><td>평가착안점</td><td>– 입주자가 공간이용에 만족스러워 하는가
– 관람객이 프로그램 참여에 흥미를 보이는가</td></tr>
<tr><td rowspan="5">예술
진흥
효과</td><td rowspan="2">⑯예술적
완성도</td><td>• 창작자들이 창작물의 예술적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는가</td></tr>
<tr><td>• 지원된 사업이 고객이나 대중매체, 평론계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는가</td></tr>
<tr><td>평가착안점</td><td>– 프로그램 및 창작공간 활용을 통해 창작자들이 예술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낳는데 기여하였는가
– 언론보도 실적이 있는가
– 평론계의 좋은 호응이 있었는가</td></tr>
<tr><td rowspan="2">⑰예술교류 및
발전기여</td><td>• 창작자 및 예술인들 간 상호교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는가</td></tr>
<tr><td>• 해당분야의 발전 및 사회적 관심 확산에 기여하였는가?</td></tr>
<tr><td>평가착안점</td><td>– 창작자, 예술인 및 예술단체간 상호교류를 촉진시켰는가
– 지역주민의 참여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이끌었는가
– 예술현장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는가
–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였는가</td></tr>
</table>

라. 평가위원 구성

1) 평가위원 구성 기준

○ 평가위원은 사업성격을 고려하여, 실기, 이론, 정책, 연구, 평론, 기획, 연출 등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이 10년 이상 된 평가위원 선정을 기본으로 하며, 다양한 시각에서 평가되도록 구성

○ 평가위원 활동 경험이 있거나 이와 유사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우선 구성하며, 아래 평가위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함
- 이론실기자의 경우, 해당분야 대학의 강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로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평론가의 경우, 해당분야 협회 등에 등록되어 현재 활동하거나 활동한 자로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정책 전문가의 경우 관련 분야 정책연구 경험 또는 연구원 경력이 있는 자로 해당분야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 기타 문화예술 관련 평가사업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자

2) 평가위원 구성

○ 선정된 평가위원단의 적절성 검토를 통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최종 승인 이후 평가위원 활동가능성에 대해 조사한 뒤 섭외 진행
※ 평가대상사업과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에서 배제 또는 관련 공간이외의 공간을 평가하도록 구성

○ 부문별(문학, 시각) 전문가로 평가단 구성하고, 각 공간별 평가위원 2인 및 연구진으로 배정

〈표1-7〉 평가위원 구성

부문	평가위원	소속	분야
문학	김**	원광대 교수	평론
	이**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대외협력분과위원장/글로벌사이버대 겸임교수	시나리오
	정**	소설가	소설가

시각 (수정안)	고**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큐레이터	전시기획
	김**	홍익대학교 교수	전시기획
	김**	경기문화재단 뮤지움 본부장	예술행정
	박**	미술평론가, 한국전통문화대 초빙교수	평론
	윤*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전시기획
	이**	삼탄아트마인 전시감독	공공미술 (평면, 설치)
	이**	이응노미술관 관장	전시기획
	이**	양평군립미술관 학예실장/ 전)이형아트센터 관장	전시기획
	호**	아트인컬쳐 편집장	미술시장

Ⅱ. 사업현황

1. 평가대상사업 전체현황
2. 평가대상사업 일반현황

Ⅱ. 사업현황

1. 평가대상사업 전체현황

가. 선정단체 현황

○ 2015년도 창작공간지원사업 선정단체는 문학분야 6개 공간, 시각분야 36개 공간으로 총 42개 창작공간이 지원

〈표 2-1〉 문학창작집필공간 선정단체

분야	평가대상	지역
문학창작 집필공간	21 세기문학관	충북
	글을낳는집	전남
	변산바람꽃	전북
	부악문학관	경기
	객주문학관	경북
	토지문화관	강원
	총계	6

〈표 2-2〉 시각예술창작및전시공간 선정단체

분야	평가대상	지역
시각예술및전시 공간지원	교동아트미술관	전북
	미디어극장 아이공	서울
	사단법인 아트스페이스풀	서울
	스페이스캔서울/오래된집	서울
	Project Space 사루비아다방	서울
	환기미술관	서울
	800/40	서울
	갤러리 팩토리	서울
	갤러리 정미소	서울
	남포미술관	전남
	다산미술관	전남
	대산미술관	경남
	대안공간눈	경기
	대안공간루프	서울
	대안공간 아트포럼리	경기
	오픈베타공간 반지하 B½F	서울
	모란미술관	경기
	무등현대미술관	광주
	사비나미술관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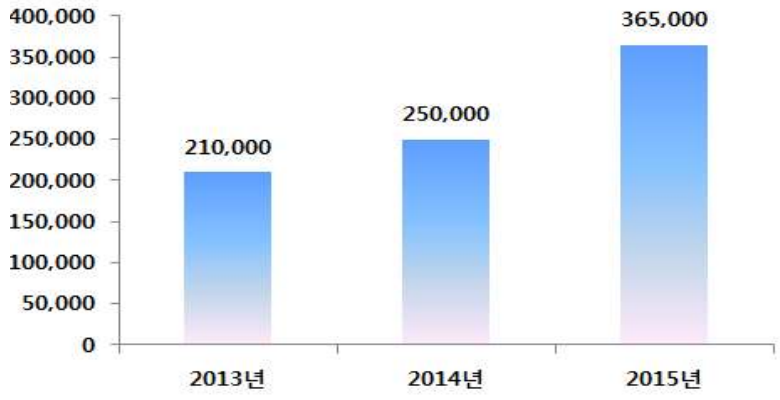
	스페이스몸미술관	충북
	스페이스 빔	인천
	신미술관	충북
	아트선재센터	서울
	아트스페이스휴	경기
	대유문화재단 영은미술관	경기
	오픈스페이스배	부산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서울
	자하미술관	서울
	코너아트스페이스	서울
	쿤스트독	서울
	토탈미술관	서울
	통의동 보안여관	서울
	플레이스막	서울
	한국미술관	경기
	현대미술연구소&아트스페이스펄	대구
	갤러리 소머리국밥	경기
	총계	36

나. 예산현황

○ 문학창작집필공간의 2015년도 지원예산은 3억6천5백만원으로 지난 3년간(2013~2015년) 31.8% 증가

〈그림2-1〉 문학창작집필공간 지원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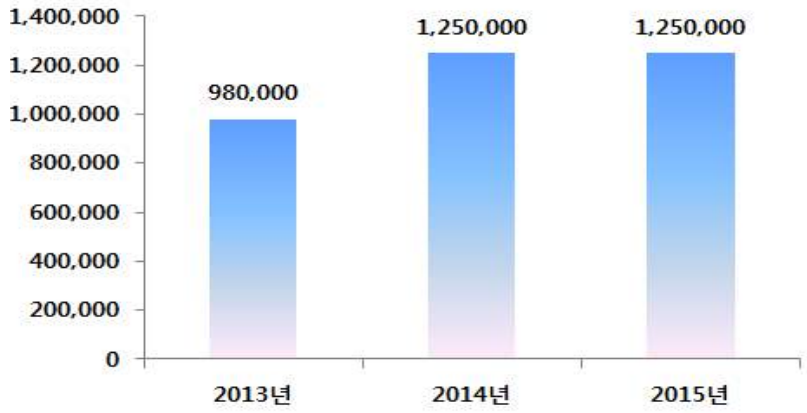
(단위: 천원)



○ 시각예술창작 및 전시공간의 2015년 지원예산은 12억 5천만원으로 지난 3년간(2013~2015년) 12.9% 증가

〈그림2-2〉 시각예술창작및전시공간 지원예산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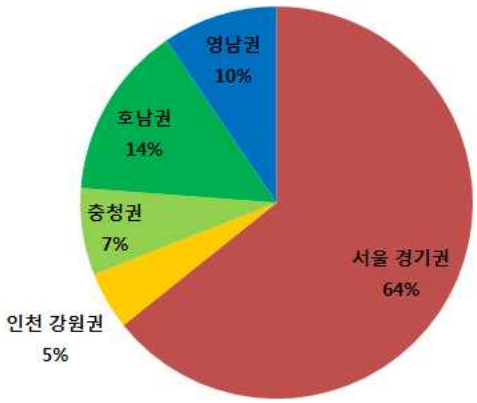


다. 지역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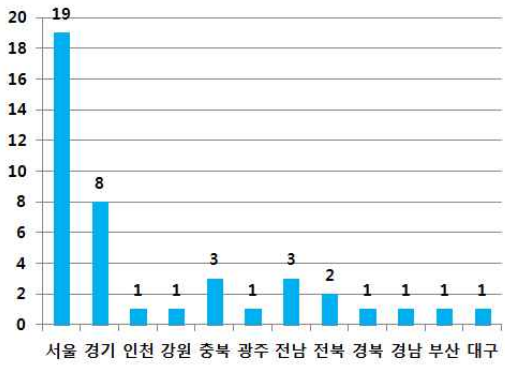
○ 2015년 평가대상사업의 권역분포를 살펴보면 총 42개 평가대상사업 중 서울·경기권이 27개(6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호남권(전북, 전남, 광주)이 6개(14.3%)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

– 그 다음으로는 영남권 4개(9.5%), 충청권 3개(7.1%)로 나타났으며, 인천·강원권은 2개(4.8%)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

〈그림2-3〉평가대상사업 권역별 분포



〈그림2-4〉 세부 지역별 분포



○ 세부지역별로는 서울이 19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8개, 충북과 전남이 각각 3개, 전북 2개, 인천, 강원, 경북, 경남, 부산 대구 지역이

각각 1개소씩 분포

〈그림2-5〉 평가대상사업 지역별 분포



○ 분야별로는 문학분야의 경우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에 6개의 공간이 분포하고 있으나 시각분야의 경우 서울 19개소, 경기 7개소, 전남 2개소, 인천 1개소 등 수도권 지역에 밀집

2. 평가대상사업 일반현황

가. 선정단체 일반현황

1) 문학창작집필공간

○ 2015년도 문학부문 선정단체의 공간현황 및 인력현황은 다음 〈표2-3〉과 같음

- 토지문화관, 부악문학관, 객주문학관은 4,000㎡ 이상의 대규모 창작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21세기문학관, 글을낳는집, 변산바람꽃은 200~400㎡의 중규모의 창작공간을 보유
- 평균 창작집필실 개수는 11개소로 나타났으며, 평균 부대시설 개수는 3개소, 평균 운영인력은 5명인 것으로 나타남

〈표2-3〉 문학창작집필공간 일반현황

번호	대상단체 (공간)	공간현황			인력
		공간 규모	창작 집필실 (개)	부대시설 (개)	운영 인력(명)
1	21세기문학관	440㎡(133평)	11	3	5
2	글을낳는집	303㎡(92평)	7	1	2
3	변산바람꽃	250㎡(459.8평)	6	2	4
4	부악문학관	4,620㎡(1,400평)	20	2	9
5	객주문학관	4,481(1,355평)	11	5	3
6	토지문화관	9,902㎡(3,306평)	11	5	7

2) 시각예술창작및전시공간

○ 2015년도 시각부문 선정단체의 공간현황 및 인력현황은 다음 〈표2-4〉와 같음

- 시각예술창작및전시공간의 경우 규모가 100㎡미만의 소규모 공간은 전체 선정대상 중 7개인 20.0%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500㎡ 규모의 창작공간은 22.9%(8개), 500~1000㎡ 규모의 창작공간은 28.6%(10개), 1000~2000㎡ 규모의 창작공간은 8.6%(3개), 2000㎡이

상의 대규모 창작공간은 20.0%(7개)로 나타남

- 시각예술창작 및 전시공간은 평균 2.6개의 전시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5개 선정단체에서 레지던시 창작실을 보유하고 있음
- 운영인력의 경우 평균 7.5명으로 나타났으나 비정규 및 단기인력이 대부분을 차지

〈표2-4〉 시각예술창작 및 전시공간 일반현황

번호	대상단체 (공간)	공간현황			인력
		공간 규모	전시실 (개)	창작실 (개)	운영 인력(명)
1	대안공간눈	716㎡(217평)	6	–	15
2	사단법인 아트스페이스풀	201.3㎡(60평)	3	–	19
3	갤러리 팩토리	115.7㎡(35평)	1	–	6
4	대안공간 아트포럼리	614㎡(185.7평)	2	8	6
5	토탈미술관	611㎡(184.8평)	3	–	8
6	Project Space 사루비아다방	95.40㎡(28평)	1	–	4
7	갤러리 정미소	171.9㎡(52평)	2	–	11
8	대유문화재단 영은미술관	58,796㎡(18,000평)	4	22	16
9	오픈스페이스배	148,761㎡(40,500평)	3	8	7
10	플레이스막	63㎡(19평)	2	–	2
11	대산미술관	2,595㎡(850평)	3	–	5
12	아트선재센터	4,796.7㎡(1,451평)	3	–	23
13	스페이스 빔	661㎡(200평)	1	1	3
14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79㎡(24평)	1	–	4
15	미디어극장 아이공	91㎡(27평)	2	–	2
16	스페이스캔서울/오래된집	191㎡(58평)	3	–	11
17	통의동 보안여관	165.28㎡(50평)	1	–	3
18	현대미술연구소&아트스페이스펄	188㎡(47평)	1	–	2
19	사비나미술관	776.12㎡(235평)	3	–	8
20	환기미술관	2,908㎡(880평)	5	–	14
21	아트스페이스휴	139㎡(42평)	1	–	4
22	800/40	12.54㎡(3.8평)	1	–	5
23	대안공간루프	549㎡(166평)	1	–	4
23	갤러리 소머리국밥	1,650㎡(500평)	1	1	6
25	스페이스몸미술관	1,520㎡(460평)	3	–	9
26	남포미술관	965.13㎡(292평)	4	–	5
27	한국미술관	2,281㎡(690평)	5	–	4
28	모란미술관	473.3㎡(143.4평)	6	–	11
29	신미술관	1,447.5㎡(437.8평)	6	–	9

30	무등현대미술관	989㎡(300평)	2	–	8
30	오픈베타공간 반지하 B½F	49㎡(15평)	1	–	1
30	코너아트스페이스	49.5㎡(15평)	1	–	6
33	자하미술관	990㎡(300평)	3	–	5
34	교동아트미술관	528.9㎡(160평)	2	–	9
34	다산미술관	2,650㎡(803평)	3	–	6
36	쿤스트독	–	–	–	–

주: 쿤스트독은 2015년도 공간이전으로 일반현황 분석 불가

나. 성과현황

1) 문학창작집필공간

○ 2015년 문학창작집필공간 사업집행 결과, 6개 공간의 평균 공간가동율은 83.3%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은 총 30개가 운영된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한해 선정된 작가는 196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창작작품 수는 195개로 나타남

– 수상실적은 '백석문학상', '전태일문학상', '서울연극제 희곡상', '이호우시조문학상', '한국아동문학작가상' 등 총 24명이 수상한 것으로 나타남

〈표2-5〉 2015년 문학창작집필공간 사업집행 결과

문학관명	공간운영		선정작가 (명)	창작실적 (작품수)	수상실적 (명)
	공간 가동율(%)	운영프로그램 (개)			
21세기문학관	73.6	2	49	28	2
글을낳는집	82.7	4	42	33	7
변산바람꽃	95.0	0	11	3	2
부악문학관	77.0	6	31	52	3
객주문학관	81.0	13	7	23	0
토지문화관	90.9	5	56	56	10
합계	**83.3(평균)**	**30**	**196**	**195**	**24**

2) 시각예술창작및전시공간

○ 2015년 시각예술창작 및 전시공간의 전시성과는 기획전 총 416회, 대관전 33회로 나타났으며 부대프로그램은 597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남

○ 참여한 예술가는 6,771명, 예술단체는 348개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관객수는 총 618,895명으로 나타남

○ 타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실적은 102회로 나타났으며, 수상실적은 '2015년 베니스비엔날레 은사자상', '제16회 에르메스재단 미술상', '2015 성곡미술관 내일의 작가상' 등 창작공간 참여작가가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표2-6〉 2015년 시각예술창작및전시공간 사업집행 결과

대상단체 (공간)	전시			참여예술가		관객수 (명)	연계실적 (회)
	기획전 (회)	대관전 (회)	부대프로그램 (회)	예술가 (명)	예술단체 (개)		
대안공간눈	82	17	17	813	31	121,900	8
사단법인 아트스페이스풀	6	–	53	480	18	8,513	16
갤러리 팩토리	5	–	14	16	5	25,000	0
대안공간 아트포럼리	17	–	6	483	9	8,816	7
토탈미술관	4	2	14	204	15	15,438	2
Project Space 사루비아다방	7	–	3	43	0	13,821	0
갤러리 정미소	6	–	14	56	3	4,847	9
대유문화재단 영은미술관	25	–	38	339	17	34,634	0
오픈스페이스배	13	–	7	103	15	5,527	0
플레이스막	18	3	5	131	3	17,065	6
대산미술관	8	–	3	1,000	20	14,000	3
아트선재센터	14	–	26	121	26	16,172	4
스페이스 빔	4	1	13	531	15	12,583	0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13	1	3	69	1	3,149	2
미디어극장 아이공	7	2	9	157	0	1,967	1
스페이스캔서울/오래된집	15	–	5	148	1	7,643	4
통의동 보안여관	9	4	19	514	90	54,330	1
현대미술연구소&아트스페이스펄	8	–	20	13	4	800	0
사비나미술관	4	–	27	162	9	11,955	8
환기미술관	6	–	203	25	1	25,000	2
아트스페이스휴	9	–	6	30	1	2,660	2
800/40	8	–	9	43	1	920	0

대안공간루프	11	–	2	70	10	11,000	0
갤러리 소머리국밥	14	1	15	217	2	3,500	5
스페이스몸미술관	9	–	7	45	0	5,478	0
남포미술관	8	1	12	333	10	34,136	0
한국미술관	7	–	9	33	1	14,470	0
모란미술관	4	–	4	169	16	4,588	0
신미술관	9	–	7	92	1	5,478	6
무등현대미술관	7	–	7	34	0	5,775	2
오픈베타공간 반지하 B½F	14	–	–	16	0	720	0
코너아트스페이스	10	–	5	42	0	6,400	3
자하미술관	11	–	2	64	0	10,400	4
교동아트미술관	17	–	2	150	21	100,000	0
다산미술관	7	1	11	25	2	10,210	7
쿤스트독	–	–	–	–	–	–	–
합계	**416**	**33**	**597**	**6,771**	**348**	**618,895**	**102**

주: 쿤스트독은 2015년도 공간이전으로인한 성과보고서 미제출로 사업집행결과 분석 불가

Ⅲ. 종합평가결과

1. 전체평가결과
2. 문학부문 세부평가결과
3. 시각부문 세부평가결과

Ⅲ. 종합평가결과

1. 전체평가결과

가. 문학부문 평가결과

○ 2015년도 창작공간지원사업 문학창작집필공간의 평가결과 토지문화관 92.2점(A), 부악문학관 91.1점(A), 객주문학관90.8점(A), 글을낳는집 90.1점(A), 21세기문학관 87.7점(B), 변산바람꽃 82.1점(C)으로 나타남

〈표3-1〉 2015 창작공간지원사업 문학부문 평가결과

순위	평가대상	지역	평가점수(점)	평가등급
1	토지문화관	강원	92.2	A
2	부악문학관	경기	91.1	A
3	객주문학관	경북	90.8	A
4	글을낳는집	전남	90.1	A
5	21세기문학관	충북	87.7	B
6	변산바람꽃	전북	82.1	C

나. 시각부문 평가결과

○ 2015년도 창작공간지원사업 시각예술창작및전시공간의 평가결과 대안공간눈 96.0점(A), 사단법인 아트스페이스풀 93.5점(A), 갤러리팩토리 93.2점(A), 대안공간 아트포럼리 93.1점(A), 토탈미술관 92.5점(A), 사루비아다방 92.5점(A), 갤러리정미소 91.3점(A), 영은미술관 90.8점(A), 오픈스페이스배 90.3점(A), 플레이스막 90.3점(A) 등이 우수히 평가됨

- 쿤스트독의 경우 공간이전 등의 사유로 2015년도 성과보고서 미제출로 인해 현장평가 및 서면평가가 불가

〈표3-2〉 2015년 창작공간지원사업 시각부문 평가결과

순위	평가대상	지역	평가점수(점)	평가등급
1	대안공간눈	경기	96.0	A
2	사단법인 아트스페이스풀	서울	93.5	A
3	갤러리 팩토리	서울	93.2	A
4	대안공간 아트포럼리	경기	93.1	A
5	토탈미술관	서울	92.5	A
6	Project Space 사루비아다방	서울	91.6	A
7	갤러리 정미소	서울	91.3	A
8	대유문화재단 영은미술관	경기	90.8	A
9	오픈스페이스배	부산	90.3	A
10	플레이스막	서울	90.3	A
11	대산미술관	경남	89.9	B
12	아트선재센터	서울	89.7	B
13	스페이스 빔	인천	89.5	B
14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서울	89.3	B
15	미디어극장 아이공	서울	88.1	B
16	스페이스캔서울/오래된집	서울	88.0	B
17	통의동 보안여관	서울	87.9	B
18	현대미술연구소&아트스페이스펄	대구	87.4	B
19	사비나미술관	서울	87.3	B
20	환기미술관	서울	87.2	B
21	아트스페이스휴	경기	85.9	B
22	800/40	서울	85.4	B
23	대안공간루프	서울	85.1	B
23	갤러리 소머리국밥	경기	85.1	B
25	스페이스몸미술관	충북	85.1	B
26	남포미술관	전남	82.9	C
27	한국미술관	경기	82.7	C
28	모란미술관	경기	82.5	C
29	신미술관	충북	80.5	C
30	무등현대미술관	광주	80.3	C
30	오픈베타공간 반지하 B½F	서울	80.3	C
30	코너아트스페이스	서울	80.3	C
33	자하미술관	서울	80.2	C
34	교동아트미술관	전북	80.1	C
34	다산미술관	전남	80.1	C
36	쿤스트독	서울	32.3	E(평가불가)

2. 문학부문 세부평가결과

1 토지문학관

◆ 공간개요

공간구분	• 문학창작집필실
공간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회촌길 79
공간설립일	• 1996년 6월
시설현황	• 11 창작집필실, 문학관, 세미나실, 워크숍룸
지원예산	• 110,000,000

◆ 공간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

○ 문인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창작 전용 공간을 지원

○ 창작집필공간 지원을 통하여 창작 활성화에 기여

○ 다양한 장르, 연령층의 문인이 함께 생활하고 창작함으로써 창작의욕 고취

○ 토지문화관 창작 전용공간에 입주한 국내외 예술인과의 자연스러운 교류활동 지원

◆ 주요 추진계획 및 결과

구 분	추진계획	추진결과
작가공모	○ 작가공모: 2015.01.06-2015.02.01 ○ 선정방법: 선정위원의 신청서 심사를 통한 25인의 추천 ○ 선정예정인원: 56명	○ 작가공모: 2015.01.10-2015.02.01 ○ 선정방법: 선정위원의 신청서 심사를 통한 25인의 추천 ○ 선정인원: 62명
창작공간 제공서비스/ 입주자의 창작실적	○ 창작전용공간 및 식사제공(토요일 석식 및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창작전용공간 개인 인터넷 및 토지문화관 도서실 지원 ○ 토지문화관 시설(휴게실, 운동시설) 무료 지원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도서관 이용 지원	○ 2015 작품집 발간 및 창작 실적: 고진하 <책은 돛>, <첫불>, 권기태 <일분후의 삶(개정판)>, 권여선 <역광>, <층>, 김남중 <싸움의 달인>, <나의 육도국>, 김도연 <마지막 정육점>, 김묘진 <어울을 만나다>, 김수희<돌연희 멈춤>, 김아로미<베르나르다 알바의 집> 외 다수
기타 프로그램	○ 원주 문화 투어 및 예술향유 지원: 북원주 문화투어 버스 참여 지원, 통영 박경리기념관 및 원주 박경리문학공원 투어, 지역 내 문화예술행사(음악회, 전시회) 참여 지원 ○ 문학의 향기: 청소년 문학캠프, 문화강조, 낭독공연 ○ 토지문화관 입주작가 회촌숲길 걷기: 문인과 예술인의 숲길 걷기 ○ 원주박경리문학제: 박경리문학상시상식, 문학포럼, 낭독회, 공연 등	○ 국내외 입주작가 문화교류지원 <원주문화 투어> ○ 낙동공연 <1965년 작가 박경리> ○ 청소년 문학창작캠프 <무대로 올라간 글자들> ○ 2015 원주박경리문학제 : <작가와 함께 회촌숲길 걷기>, <박경리 문장 낭독회>, <전국 청소년백일장>, ,연극 <진구는 게임중>, 문학포럼, <박경리 문학상 시상식>, <수상작가 강연회> ○ 문화강좌 <가족과 함께 만드는 따뜻한 그림책>

❖ 사업사진



국내외 입주작가 <원주문화투어>



국내외 입주작가 <문화투어>



<작가와 회촌숲길 걷기>



<토지문화회관 산신제>

◆ 창작공간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사업기획	• 작가들의 작품구상, 집필 등 창작활동에 필요한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가공모, 작가선정, 프로그램 운영 등의 계획 등이 적절히 수립 •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오랜 노하우가 있고 내부 시설 및 상임 근속자들의 능숙한 운영이 돋보임 • 동시에 다양한 문화체험과 예술 교육의 현장으로 개방하여 지역 사회, 문화계와 교류하고 예술 체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개인적 창작공간 제공과 더불어 집단 세미나, 공연이 가능한 공간도 마련하여 활용하려고 애쓰고 있음
사업운영	• 오랜 전통을 가진 문화관으로서 계획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인원배정과 역할분담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참여작가의 선정도 공정하고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음 • 토지문화관은 개관 이래, 쾌적하고 정숙한 주위 환경 속에서 창작에 매진하려는 작가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음 • 문학과 함께 다른 예술분야(미술. 음악. 연극. 영화)의 작가들에게도 공간을 개방하고 있으며 숙소들은 밝고 쾌적한 텃밭에서 조달한 식재료로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는 데도 신경 쓰고 있음 • 원주문화투어, 입주작가 숲길 걷기, 박경리문학제 수상작가 강연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문학교육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
사업성과	• 많은 작가들이 참여하여 저서 집필, 발표 등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 연초 계획했던 창작공간의 입주 등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공간에 입주한 작가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홍보와 문화기획행사들이 적절하게 운영 되어 지역문화에 발전이 되고 있는 점과 부가시설(인쇄, 휴게실, 자료실)등이 우수한 편임 • 작가들의 개별적 창작공간제공이라는 기본적인 업무 외에 지역민이 참가하는 행사나 백일장 개최, 음악회, 포럼 등을 개최하여 작가 개인의 창작활동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활발한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종합평가	• 사업기획, 사업집행, 사업성과 면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 시설과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좋음 • 토지문화관은 정다운 시골 마을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 정신적인 안정감을 우선 느낄 수 있는 공간임 • 다양한 회의실과 세미나실이 마련되어 있어 개인적인 창작과 집단 창작이 유동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음 • 도시와 떨어진 곳에서 창작에 매진할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됨

2 부악문학관

◆ 공간개요

공간구분	• 문학창작집필실
공간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장암2리 319
공간설립일	• 1998년 12월
시설현황	• 15 창작집필실(숙식미제공 5개실), 세미나실, 워크숍룸
지원예산	• 70,000,000

◆ 공간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

○ 입주 문인의 건강하고 생산적인 창작활동 지원

○ 공간의 뜻 깊고 가치 있는 활용 및 지역사회에의 기여

◆ 주요 추진계획 및 결과

구 분	추진계획	추진결과
작가공모	○ 작가공모: 2015.01.03-2015.02.15 ○ 선정방법: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위원의 심사에 걸쳐 선정 ○ 선정예정인원: 40명	○ 작가공모: 2015.01.20-2015.02.20 ○ 선정방법 :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위원의 심사에 걸쳐 선정(선정항목별 점수 합산) ○ 선정인원:31명
창작공간 제공서비스/ 입주자의 창작실적	○ 부악문원 운영 창작강좌 참여기회 및 '정치평론&작가가 함께하는 더뉴리퍼블릭지 정기강독회 참여 기회 제공 ○ 언론기자 인터뷰를 위한 공간제공 ○ 지자체 혹은 기타 단체 및 학교의 창작실습 및 강연요청시 기회제공 ○ 독자와의 만남, 낭독회 시화전 등을 위한 공간제공 등 ○ 이천시립도서관 이용을 위한 회원증 발급시 입주작가 증명서 발급 ○ 탁구장 개장 및 초보자 지도 등	○ 2015 작품집 발간 및 창작 실적 : Dr. Sego <시인>번역, 이정화 '올해의 좋은 시 선정', <바람의 노래> 발표 노근리평화문화상 수상, 이경 '시와 시학상(시인상부문) 수상', 박병로, 문학의식, 소설 <꿈꾸는 기술> 발표, 배이유 소설집 <퍼즐위의 새> 출간, 도명학 남북문인공동소설집발, 이병용 시집 <수정시초> 출간, 전윤호 산문, 시 발표
기타 프로그램	○ 문예창작강좌: 문예창작 실습, 소설읽기, 인문학 읽기, 감상과 평가, 합평회 등 ○ 문학(시와 소설) 낭독회 ○ 정치평론&문인 더뉴리퍼블릭 강독회: 더뉴리퍼블릭지 기사 중 당시대적 시의성, 문학창작관련 이슈 등 기사선별 번역, 독회, 토론 진행 ○ 동양문론 전문가 강좌: 동양 고전, 근대 동양 문예이론가의 문예창작 이론에 대한 이사장, 전문가 초빙 강의 ○ 입주작가 문학창작 컨퍼런스: 주제발표, 입주작가의 요청에 의한 작품독회 및 평가회, 토론 및 기고	○ 부악문원 '문예창작교실': 문예창작 실습, 소설 읽기, 인문학 읽기, 감상과 평가, 합평회 등 ○ 작가 워크숍-문학기행: 입실작가들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연중 2회 1박2일 일정으로 경북 영양 여행 ○ 부악포럼 강독회-더 뉴리퍼블리지를 중심으로: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상을 인문학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문예작품에 반영하기 위한 주제토론 ○ 동양문론: 고전 및 근대동양 강의 ○ 문학 낭독회: 이천시민 및 수도권 문학애호가 참여 유도 행사 ○ 입주작가 회화작업 전시회

❖ 사업사진



<소설낭독회-해이수 작가 낭독>



<소설낭독회와 회화전시회>



<입실작가 영양창작실 문학기행>



<발안바이오 과학고문학동아리 방문특강>

◆ 창작공간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사업기획	• 부악문학관이 운영하는 “정치평론&작가가 함께하는 더뉴리퍼블릭지 정기강독회” 참여 기회제공 등의 프로그램은 타 문학관과 차별화가 되는 좋은 프로그램임 • 타 문학관의 입주 작가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직접 강의를 해야 하는데 비해 이 프로그램은 반대로 작가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좋은 기획이라 생각됨 • 이문열작가가 처음 시작한 공간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작가가 직접 여기에서 집필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다른 곳과 차별점이 있음
사업운영	•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일주일에 한번 정도로 지역문인협회, 예총 등과의 교류와 협력을 하고 있음 • 참여작가의 선정에 의도적으로 신인작가를 참여시키는 등 선정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혜자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가 제공되어 있음 • 문인 중심의 창작공간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참가를 원하는 외국 문인들에게도 숙식을 제공
사업성과	• 좋은 프로그램으로 작가의 교양습득과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 점과 알찬 식단이 장점임 • 이문열 작가가 직접 활동을 하므로 이문열 작가 취재 등으로 자연스럽게 부악문학관이 소개되는 등 홍보 상에서의 효과가 있음 • 입주한 작가들의 활동과 실적도 우수한 편이며 만족도도 높은 편임 • 창작자들과 지역예술인들과의 교류가 활발하고 예술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세미나 등도 전개 • 부악문학관은 문학중심의 레지던스로 특화되어 있으며, 연간 3회 낭독회를 열고 이 행사에는 지역주민이 다수 참여하고 있음 • 개인 창작활동 지원과 별개로 시사주간지를 읽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입주작가들이 모여 작품독회와 평가회, 토론을 하는 컨퍼런스도 연 5회 운영되고 있음
종합평가	• 작가들이 창작 작업을 하기엔 무리가 없으며 수도권에서 가깝고 다양한 정보와 교양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타 문학관에 비해 강점으로 작용함 • 현역작가가 문학관에서 집필활동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유리한 점들이 엿보이지만 향후 자금사정의 악화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번역원과의 협력을 통해 외국작가나 번역가의 입주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가의 작가들이 참여함으로써 한국 문화와 문학의 저변확대를 기대하고 있음

3 객주문학관

◆ 공간개요

공간구분	• 문학창작집필실
공간소재지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청송로 6359
공간설립일	• 2014년 10월
시설현황	• 11 창작집필실, 문학관(전시관), 세미나실, 워크숍룸
지원예산	• 60,000,000

◆ 공간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

○ 일상에 지친 작가들이 도심을 떠나 건강한 심신으로 좋은 작품 집필에 몰두할 수 있도록 숙소 공간과 집필전용 공간 제공

○ 강연회, 문학강의 등 문학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입주작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문화수준 향상 및 정보 교류 증진

◆ 주요 추진계획 및 결과

구 분	추진계획	추진결과
작가공모	○ 작가공모: 2015.04.01-2015.04.20 ○ 선정방법: 객주문학관 운영위원회에서 서류 접수 및 심사를 통해 최종선발 ○ 선정예정인원: 8명	○ 작가공모: 2015.04.24-2015.05.10 ○ 선정방법: 객주문학관 운영위원회에서 서류 접수 및 심사를 통해 최종선발 ○ 선정인원: 5명 ○ 수시접수: 2015년 10월, 11월 ○ 선정인원: 2명
창작공간 제공서비스/ 입주자의 창작실적	○ 지원기간: 1년 이내 (작가의 실적에 따라 3년 연장 지원 검토) ○ 숙소, 집필실, 도서관, 휴게실, 세미나실, 공동식당, 야외작업장, 부대시설(카페, 영상교육실 등) ○ 임대료 무료, 공용컴퓨터 지원, 기타 공공요금 납부 조건	○ 김주영 소설 <오래된 단지> 출간 ○ 박상우 장편소설 <비밀문장> 완성 및 '문학과 지성서' 출간예정, 중편소설 <외계인> 연재시작 ○ 해이수 '문학사상' 단편소설 <낙산>발표, <소년이 운명의 채널을 맞추는 순간> 집필(문학과 지성사 웹진), 중편 <바간의 연인들> 작성(문장웹진 연재) 등 ○ 김점용 창작시 <고양이의 삼각관계> 발표, 창작시 <가건물> 발표, 창작시 <비행기야> 발표 등 ○ 권지예 단편 <카이로스의 머리카락> 발표 등
기타 프로그램	○ 객주문학제 - 객주테마타운 사업예정지 관람 및 설명, 문학관련 강연 - 진보·청송시장 방문, 전통시장 체험, 시장관련 백일장 - 장날행사: <객주> 명문장과 장타령 낭송대회 및 백일장 시상, 반별 장기자랑 등 - 주왕산, 송소고택, 약수탕 등 관내 관광명소 관람 및 음식 체험 등	○ 제1회 객주문학학술포럼 및 공모전 ○ 작가와 주왕산 기행 ○ 경북 제1교도소 참관 ○ 제2회 객주문학학술포럼 및 공모전 ○ '길위의 작가' 김주영과 함께하는 Talk Talk 사과토크콘서트 ○ 작가와 주왕산 기행 ○ 권제예 작가님의 인생나눔교실 ○ 한중작가 집중 토론회 등

❖ 사업사진



입주작가 <창작관식당>



권지예작가 <인생나눔교실강의>



<경북일보문학대전>



<작가와의 만남>

◆ 창작공간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사업기획	• 지역사회 파트너십 활동강화 계획이 우수한 편임 • 청송군 문화관광과에 객주팀이 개설되어 있어 시설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 보완이 용이함 • 폐교를 활용한 객주문학관의 건물 특성을 활용해 지역민에게 소설창작교실, 시창작교실 등 개최 • 지방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경북이라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계층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충분한 교류라고 기재한 부분이 문학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나아갈 방향과도 부합함 • 작가공모과정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주작가들의 제공서비스,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등도 비교적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사업운영	• 창작공간의 입주가 7월부터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잘 집행되고 있고 세부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창작공간의 입주작가와 연계를 통해 참여자와 제공자간에 상호 도움이 되고 있고 공간의 구성과 활용은 매우 양호함 • 특히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입주 기간을 1년으로 비교적 길어 충분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사업성과	• 폐교를 이용한 시설과 환경, 청송군의 관심과 인근 장터를 이용한 행사 등이 강점 • 3개월의 짧은 기간이지만 입주작가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음 • 입주작가를 위해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이며 배려를 통해 입주작가와 운영자간의 신뢰가 높음 •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고, 문학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시 등의 프로그램도 많으므로 이들을 입주작가 공간이나 작가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종합평가	• 지역문화와 문학관이 적절하게 유기적으로 잘 이용되는 좋은 사례임 • 좋은 시설과 상임직원의 섬세한 운영이 작가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줌 • 짧은 기간이라서 정확한 평가가 어렵지만 사업기획, 사업집행, 사업성과 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찾기는 어려웠음

4 글을낳는집

◆ 공간개요

공간구분	• 문학창작집필실
공간소재지	• 전남 담양군 대덕면 용산로 543
공간설립일	• 2010년 1월
시설현황	• 7 창작집필실, 사무실, 세미나실
지원예산	• 45,000,000

◆ 공간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

○ 쾌적하고 조용한 창작환경 조성

○ 입주 작가 건강에 대해 체계적이고 세심한 관리

○ 입주 작가 애로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늘 가족적인 분위기 유지

○ 지역문학 발전에 기여

◆ 주요 추진계획 및 결과

구 분	추진계획	추진결과
작가공모	○ 작가공모: 2015.01.01-2015.02.15 ○ 선정방법: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위원의 입주작가 선발 ○ 선정예정인원: 35명 내외	○ 작가공모: 2015.04.24-2015.05.10 ○ 선정방법: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위원의 입주작가 선발 ○ 선정인원: 42명
창작공간 제공서비스/ 입주자의 창작실적	○ 집필실·숙소·도서실·세탁실·휴게실무료제공 ○ 식사(1일 3식, 휴일에도 제공) 무료제공 ○ 지역 역사문화유적 및 문학현장 안내 ○ 지역 문화 행사에 안내 ○ 지역 문학인과의 다각적인 교류 ○ 입주 작가 간 세미나 및 합평회 ○ 입주 신진 작가 문예지에 소개	○ 최은숙 시집<의자를 타고 달리는 (창비)> 발간, 산문집 <장자(작은 숲)>발간 ○ 최광임 디카시 연재 30편 발표, 시 <늦은 사랑(문교문예 여름호)> 외 2편 발표, 산문<시인의 일상> 발표 ○ 박현숙 <엄마없는 하루>, <동작대교에 버려진 검둥개 럭키> 외 다수 ○ 박노동 산문집 <존재의 초상> 발간 ○ 김재근 시집<무중력의 화요일> 발간 시<저녁의 부력>외 25편 발표 등
기타 프로그램	○ 찾아가는 문학교실: 문학강좌나 창작실기지도 경험이 풍부한 입주작가를 강사로 위촉, 학교나 문학단체를 방문지도 ○ 문학체험실습: 지역문인이나 문학지방생들이 입주작가들을 방문하여 상담, 대담, 토론 질의응답을 활발하게 나눔 ○ 역사문화유적 및 문학현장 탐방 : 입주작가들이 지역 문인들과 함께 인근 역사문화유적 및 문학현장을 탐방 ○ 글을낳는집 문학제: 입주작가들이 지역문인 및 문학 지망생들을 초대하여 강의, 토론, 시낭송 등 문학축제 개최	○ 찾아가는 문학교실: 문학강좌나 창작실기지도 경험이 풍부한 입주작가를 강사로 위촉, 학교나 문학단체를 방문지도(한빛고등학교) ○ 문학체험실습: 지역문인이나 문학지방생들이 입주작가들을 방문하여 상담, 대담, 토론 질의응답을 활발하게 나눔 ○ 역사문화유적 및 문학현장 탐방 : 입주작가들이 지역 문인들과 함께 인근 역사문화유적 및 문학현장을 탐방 ○ 글을낳는집 문학제: 입주작가들이 지역문인 및 문학 지망생들을 초대하여 강의, 토론, 시낭송 등 문학축제 개최

❖ 사업사진



한빛고등학교 <찾아가는 문학교실>



도깨비마을 특강 <찾아가는 문학교실>



태안사 조태일문학관 <문화유적 답사>



<글을낳는집 문학제>

◆ 창작공간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사업기획	• 쾌적하고 조용한 창작환경 조성이란 조건에 알맞은 위치에 있으며 약선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조리사가 입주하고 있어 작가들의 건강과 창작환경에 실제로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점이 타 문학관과 차별화 되는 장점 • 향후 선정위원의 풀(Pool)을 갖추어 매년 변동된 선정위원으로 작가 선정의 객관성 유지가 필요
사업운영	• 작가들에게 제공되는 식단이 우수한 건강식 식단을 유지 하는 점 우수 • 문학관의 위치가 시내에서 떨어져 있어 생활용품의 부족이 생기면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 문학관 내부에서 보충을 잘 시켜 주는 점 등 작가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성의가 돋보임 • 작가들의 공간이 거실(자료실)을 중심으로 둘러 쌓여 있어 개인적인 창작활동 몰입에 다소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과 자료실에 신간서적이 없다는 점이 아쉬움
사업성과	• 처음 기획서에 밝힌 부분처럼 건강식단이 타 기관과 차별화 되는 장점임 • 창작공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입주작가들의 만족도가 높음 • 특히 함께 거주하는 운영자가 입주작가들에게 제공하는 식단과 주거환경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음 • 입주작가들이 지역 학교 등에서 재능기부 활동으로 인근 지역 아이들의 문학적 감성과 사고력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인상적 •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4개의 행사가 있으나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단체와 연결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종합평가	• 작가가 좋은 글을 쓰기 위한 곳을 제공하는 곳으로써 무리가 없으며 지속 지원하는 이유에 무리가 없다고 평가됨 • 4개의 자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했으나 자발적 재능기부라는 점이 아쉬움 • 지역사회의 도움이 되는 행사와 같이 좀 더 체계적인 행사를 기획할 필요성이 있음

5 21세기문학관

◆ 공간개요

공간구분	• 문학창작집필실
공간소재지	• 충북 증평군 증평읍 내성리 706번지
공간설립일	• 2013년 2월
시설현황	• 11 창작집필실, 사무실, 문학관, 세미나실, 워크숍룸
지원예산	• 50,000,000

◆ 공간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

○ (故) 소인(素人) 김준성 선생의 문학 창작활동의 유지를 이어 받아 재능 있는 문인들이 작품 구상과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창작공간 지원

○ 충청지역 문학의 중심으로서 문화사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작가 간 · 작가와 독자 간 교류활동 지원으로 지역 문학 활동 활성화 유도

◆ 주요 추진계획 및 결과

구 분	추진계획	추진결과
작가공모	○ 작가공모: 2015.02.01-2015.04.20 ○ 선정방법: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위원의 입주작가 선발 ○ 선정예정인원: 총 44명	○ 작가공모: 2015.01.01-2015.12.31 ○ 선정방법: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위원의 입주작가 선발 ○ 선정인원: 44명
창작공간 제공서비스/ 입주자의 창작실적	○ 조, 중, 석식은 별도로 구성된 식당에서 불편함 없이 제공 ○ 탕비실에 조리기구, 냉장고, 식탁, 전자렌지, 토스트기 등 비치로 간단한 조리가 가능 ○ 교육 / 세미나실은 24시간 오픈 ○ 탁구대 설치로 취미활동 장려 ○ 문학관 주변 텃밭을 조성하여 유기농 산물 수확 체험 및 자연과 함께 집필 활동에 전념하는데 기여	○ 이지선 아동문학 <토끼 공작소> ○ 이난영 희곡 <미호>, <레드> ○ 김호연 소설 <연적> ○ 이영광 시 <시와표현>, <리토피아> ○ 박현욱 소설 <세사람> ○ 홍명진 소설 <13월>, <환상을 보았네> ○ 윤동수 소설 <바다에서 나비춤을> ○ 고진하 시 <명랑의 둘레> ○ 김성장 시 <흐르는 강물처럼> ○ 마윤제 소설 <네레오 코로소> ○ 윤순례 소설 <집으로 가는길>, <빛스스로 그러한>, <공중그늘 집> ○ 김영옥 소설 <강의 초상> ○ 권비영 소설 <약속> ○ 김선영 소설 <열흘간의 낯선바람> 등
기타 프로그램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북콘서트: 입주작가의 작품을 서로 공유하고 읽는 '함께 읽는 문학' 및 연출을 통한 연극 프로그램 ○ 입주작가 강연회 : 입주작가별 주제를 정한 토크쇼, 소설쓰기, 시낭송, 강연 등 제공	○ 소리와 나눔 콘서트 : 좌구산휴양림에 숙박중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작은 콘서트를 주최하여 낭독회, 연주회 노래 등 콘서트 진행 ○ 문학관 체험 및 한국문학 강연회 : 1박2일 문학관 체험 및 한국문학 강연회 진행

❖ 사업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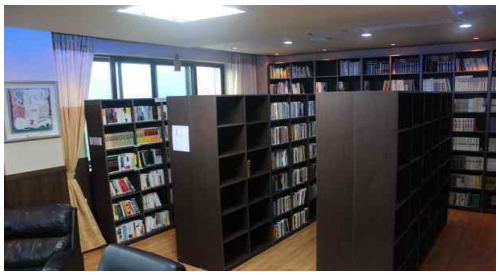
입주작가 식당이용



탕비실



텃밭



도서실

◆ 창작공간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사업기획	• 문학운영인력이 풍부하여 체계적인 운영이 돋보이며, 충청지역의 지역문화의 발전과 기업의 후원이 잘 결합된 기획임 • 사업 초기에 작가를 양성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무리없이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대체로 사업을 연초에 기획하여 월별 계획을 짜고 예외사항이 없으면 이를 추진 • 재능 있는 문인들이 자유롭게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독립공간을 마련하여 충청지역의 문학적 감수성을 일깨우고 작가들과 독자들의 만남의 장을 만들어 지역 문학 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문학관 주변 텃밭을 조성하여 유기농산물 수확 체험 및 자연과 함께 집필활동에 전념
사업운영	• 작가들의 야식까지 제공되는 점이 타 문학관과의 차별화된 강점임 • 문학관의 인력은 디엔피코퍼레이션사에서 파견되어 사업을 수행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안정성과 지원의 용이성이 있음 • 참여작가의 선정도 선정위원회가 있어 객관적 입주작가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21세기 문학이라는 잡지를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이 사업과의 연계성도 돋보임 • 개별창작 공간에서의 작업과 별개로 다양한 문학 행사를 진행하고 있음. 특별히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북콘서트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책을 입체적으로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제공했으며 입주작가들이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크쇼, 강연, 시낭송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였음
사업성과	• 자료실에 신작 서적이 많은 점, 상주인력이 필요한 부분을 수시로 체크하는 점이 우수함 • 사업초기에 계획한 당해연도 목표를 달성하기는 하였고, 공간가동률도 높은 편이며 입주작가의 만족도도 높음 • 증평군과의 교류 등도 활발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기여하기도 함 • 즉흥적인 지역 문화행사보다는 체계적으로 계획된 행사의 진행이 필요
종합평가	• 종합적으로 기업의 후원을 통한 시설 및 인력 운영방식이 우수 • 순수한 목적에서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의 배경과 취지가 좋으며, 작가에게 제공되는 공간 등의 시설은 양호하지만 다양한 사업의 프로그램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 다른 창작공간과 다른 점은 지원하는 기업이 자리한 현장에 공간을 마련했다는 점인데 기업의 기존 시스템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고 의미있는 시도라고 생각함

6 변산바람꽃

◆ 공간개요

공간구분	• 문학창작집필실
공간소재지	•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343번지
공간설립일	• 2006년
시설현황	• 6 창작집필실, 사무실, 세미나실, 워크숍룸
지원예산	• 30,000,000

◆ 공간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

○ 국립공원 변산반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지는 최고의 시설을 제공

○ 지역 대학교의 문예창작학과 학생들과 입주문인과의 교류를 통해 문학인적 자원 개발

○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학 관련 행사 개최, 문학의 다양한 소통활로 개척

◆ 주요 추진계획 및 결과

구 분	추진계획	추진결과
작가공모	○ 작가공모: 2015.03 2015년 7월 모집 ○ 선정방법: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위원의 입주작가 선발 ○ 선정예정인원: 작가 20명, 예비작가 10명	○ 작가공모: 2015.07.13-2015.08.02 ○ 선정방법: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위원의 입주작가 선발 ○ 선정인원: 11명
작가선정 및 창작활동	○ 주거복합형 창작실 제공 : 작가 3실, 예비작가 2실 ○ 식사 제공(이외 제공된 부엌에서 필요시 취사 가능) ○ 카페 공간을 제공, 커피 및 음료 무료 제공 ○ 입주 작가와 예비작가 간의 창작합평회 및 세미나 개최(월 4회)	○ 부회령 단편소설 <귀가> 집필 ○ 김정숙 청소년장편소설 100매 작성 ○ 반수연 단편소설 <오래된 인사>집필 ○ 김하율 소설 <피도눈물도 없이>집필
기타 프로그램	○ 문학의 밤: 작고 문인을 대상으로 낭동회 및 타장르 예술 공연 및 전시 ○ 창작 합평회 및 강독세미나: 전국에 선발되어 레지던스 변산바람꽃에 입주한 예비작가의 창작력을 강화하기 위한 창작 합평회 및 강독 세미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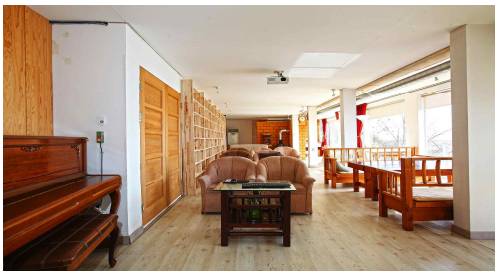
❖ 사업사진



변산바람꽃



변산바람꽃



변산바람꽃



변산바람꽃

◆ 창작공간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사업기획	• 기존 펜션을 이용해서 작가들의 창작공간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긍정적 • 2015년 처음 문을 연 변산바람꽃 창작공간은 작가가 아닌 일반 사업가가 문인들의 창작활동을 고취시키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였고 기존의 여유 있는 숙박시설을 창작공간으로 활용 • 사업 첫해로서 창작공간의 운영계획 수립이 미흡하고 중장기적인 계획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 필요
사업운영	• 창작실의 쾌적함과 좋은 자연환경은 이 시설의 강점임 • 올해 2015년 오픈으로 언론 홍보가 많았으며 수려한 경치와 이와 어우러진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등 수혜자를 위한 서비스 공간 등은 구비되어 있음 • 타 창작공간과는 다르게 전시 등의 다른 사업을 병행하지 않고 창작공간만을 운영하고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의 전개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다른 문학관의 운영 노하우를 배울 필요가 있어 보임
사업성과	• 쾌적한 욕조, 침대 등 창작실의 시설이 우수함 •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고 운영자의 전문성의 한계로 운영위원 등의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
종합평가	• 건물이 기존 펜션을 이용하는 것이다 보니 아름다운 주변 환경과 좋은 시설은 강점이나 문학 레지던스로 운영하기엔 관리자들의 운영의 미숙함과 소명감이 부족해 보임 • 예술발전을 위해 창작자들에게 무료로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변산바람꽃은 사업초기로서 아직 프로그램의 운영 등이 다양하지는 않지만 입주자들의 만족도도 높고 예술가들간의 교류를 유도하고 있으며, 예비작가들의 입주도 허용하는 등 문호를 개방하고 있음 • 그러나 변산바람꽃 레지던스의 경우 현재보다는 투명한 운영체계가 필요

3. 시각부문 세부평가결과

1 대안공간 눈

◆ 공간개요

공간구분	• 대안공간
공간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 82-6
공간설립일	• 2005년 4월
시설현황	• 6 전시실, 사무실, 세미나실, 교육공간
지원예산	• 40,000,000

◆ 공간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

○ 신진작가, 실험예술작가 활동 지원 확대 및 시각예술 활성화를 통한 수원의 문화융성

○ 생활예술저변확대를 위하여 삶의 현장과 작가 연결

○ 전시공간, 워크숍 공간 확대로 풍성한 볼꺼리 창출

○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창작활성화 및 행궁동예술마을만들기 확장

◆ 주요 추진계획 및 결과

구 분	추진계획	추진결과
주요기획전시	○ 젊은 작가지원프로그램 10회 ○ 지역작가 전시지원프로그램 10회 ○ 생활예술 프로그램 10회 ○ 특별기획 프로그램: 15개의 방, 노크(Knock)전, PROJECT:JEBRA-대학생과 일반인을 위한 아트페어, 나혜석생가터문화예술제 특별기획전, 2015 행복한 그림-비빔밥, 뷔페 전	○ 대안공간눈: 봄을 기다리는 마음, 14개의 방 노크 전, 도화선 전 등 36개의 기획전시 ○ 예술공간봄: 명상-삶에 대하여, 아트마켓 전, 14개의 방-노크 전 등 18개의 기획 전시 ○ 정월행궁나라갤러리 ○ 행궁솜씨 윈도우 갤러리
프로그램 (교육, 공연)	○ 타 지역, 국외 작가 교류프로그램 ○ 레지던시 프로그램: 행궁동 레지던시 7기 입주작가, 골목집 레지던시 ○ 지역공간프로그램: 현대미술 쉽게 읽기, 벽화골목투어 프로그램, 지역과 학교/동아리 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한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공연재능기부 릴레이, 지역활성화를 위한 주민주도축제 운영 및 기획 ○ 교육/체험 프로젝트: 미래꿈나무를 위한 생생인문학당, 작가와의 만남, 행궁동에 추억남기기	○ 주민솜씨 발굴 프로그램(생활예술프로그램) ○ 타지역, 국외작가 교류프로그램 ○ 레지던시 프로그램: 행궁마을커뮤니티 아트센터(행궁동 레지던시) ○ 찾아가는 미술관(팔달구청) ○ 자유학기제 직업체험 프로그램 ○ 대안공간 눈 예술체험프로그램:내가바로 우리동네 예술가 ○ 레지던시 프로그램:행궁동레지던시 ○ 작가와의 만남
기타 행사	○ 행궁동 예술마을을 통한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 벽화해설사, 행궁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골목난장 ○ 골목경제 연계프로젝트: 한뼘가게(생활예술프로젝트), 반짝갤러리, 통통마켓-골목마켓, 창작장터 ○ 특별기획 프로그램: 새싹이음프로젝트	○ 행궁동예술마을 만들기 탐방 ○ 우리동네예술 프로젝트 알톡콘서트 ○ 삼일상고와 함께하는 들썩들썩 골목난장 ○ 공연재능기부릴레이 - 디기동 ○ 새싹이음프로젝트(신진평론가공모) ○ 옥상개방프로젝트 ○ 벽화골목투어프로그램

❖ 사업사진



특별기획전<행궁동레지던시철거프로젝트>



지역공감프로젝트<알톡콘서트>



지역공감프로그램<나혜석 생가터문화예술제>



전시지원 프로그램<예술공간봄>

◆ 창작공간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사업기획	• 원도심의 재생프로그램으로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각종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임. 벽화마을과 지역의 레지던시 운영을 통해 수원 및 수도권인근의 작가들의 창작활동 및 지역주민 연계프로그램의 성과가 매우 높음. 연간 50회의 전시를 통해 최다수의 발표기회 제공 • 젊은 작가와 지역 작가의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수원지역의 미술대학 학생들과 전시장 주변의 저소득층 관객 등을 끌어들여 미술 향유층의 확대에 큰 역할을 함
사업운영	• 2014년 대안공간 눈의 담장을 없애고, 옆집이었던 주택 한 채를 추가로 마련하여 예술공간봄을 새롭게 개관한 이후 1년 반 동안 새공간의 활성화를 위해 옥상 및 담벼락 등 공간 전체를 점유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실시 • 새로운 전시공간이 확충됨으로 사업이 늘어나며,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교육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확대됨 • 자원봉사요원 확보 등 부족했던 인력이 충원되어 사업의 행정관리나 사업추진의 내실이 확보됨
사업성과	• 도시재생프로그램의 홍보효과를 통해 많은 국내외 방문객(2,802명)이 늘어나고 대안공간 눈과 봄의 전시를 합쳐 총 80회의 전시가 개최됨 • 수원일대 위치한 미술대학-경기대, 경희대, 수원대, 수원여대, 협성대 2015년 졸업생 중 13인 선정한 <13개의 방>전, 대학생들을 위한 아트페어 <Project: Zebra 2015> 등을 통해 시각예술 뿐 아니라 다양한 예술가들이 어우러지고, 또한 예술가와 관객의 소통을 장려함 • 공간신설로 카페를 활용한 인문학 강좌 등 세미나 및 강좌가 신설되어 지역미술인들간의 교류 협력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인문학 학습기회가 확대됨
종합평가	• 대안공간 눈은 수원 원도심의 도시재생프로젝트를 기초로 한 창작발표 공간으로 매년 점진적으로 활동이 확대되며, 지역사회는 물론 도시재생의 전국적 모델이 되고 있는 바, 많은 지역으로부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지역 밀착형 문화 소통공간으로서 신진 작가 발굴, 리뷰 지원, 워크숍, 작가와의 만남, 예술체험, 교육 프로그램, 레지던시 등의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음 • 특히 대안공간눈의 후원처를 보면 통닭, 갈비, 칼국수, 철물점, 서점, 주민센터, 문구점 등 동네의 작은 상점들이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고, 그 만큼 지역 커뮤니티 안에 깊이 안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 아트스페이스풀

◆ 공간개요

공간구분	• 대안공간
공간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세검정로 9길 91-5
공간설립일	• 1999년 2월
시설현황	• 2 전시실, 사무실, 아카이브실
지원예산	• 30,000,000

◆ 공간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

○ 미술과 사회에 대한 성찰과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대안미술 공간

○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공간으로서 신진작가들에게는 진솔한 비평과 체계적 협력, 실험의 기회를 제공

○ 세대, 지역, 문화 간, 언어 간의 상호참조를 통해 보편적인 의제를 담는 타 미술공간과 차별화된 공간

◆ 주요 추진계획 및 결과

구 분	추진계획	추진결과
주요기획전시	○ 풀프로덕션: 기금마련전<2015 풀이 선다>, 주제기획전<눈에는 이, 이에는 눈>, 신진작가소개전<안유리 개인전>, 여성미술연구 <정은영 개인전>, 젊은 작가 심화 프로젝트<이우성 개인전>, 중진작가 심화 프로젝트<송상희 개인전>	○ 풀프로덕션: 기금마련전 <2015 풀이 선다>, 주제기획전<눈에는 이, 이에는 눈>, 안유리 개인전<추수할 수 없는 바다>, 정은영 개인전<전환극장>, 이우성 개인전<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송상희 개인전<변강쇠 2015: 사람을 찾아서>
프로그램 (교육, 공연)	○ 풀스쿨: 2015 풀스쿨<자립의 방법론> ○ 풀비평: 2015 풀비평<작가 PT 프로그램>	○ 풀스쿨: 팟캐스트 <말하는 미술> 스터디, 주제기획전 <눈에는 이, 이에는 눈> 강연시리즈, 전시연계 현장수업 ○ 풀네트워크: 국제교류 해외기관 탐방 및 풀 기관 소개, 팟캐스트 방송, 소장작품 공모지원, 진로탐색을 위한 인턴십, 국제인턴십 협약 ○ 국제교류 프로그램: 국제 펠로우십 프로그램, 국제기관 협력 논의 <베통살롱>, 풀기관 소개 및 작가 개인전 아카이브 소개
기타 행사	○ 풀출판: 2015풀 출판: 한국근현대미술비평 재발굴 프로젝트<간섭> ○ 풀 아카이브: 축적된 아카이브자료를 토대로 마이크로 특성 아카이브로 차별화, 향후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오픈소스로 공유	○ <눈에는 이, 이에는 눈> 워크샵 ○ 풀 보통살롱: 초대 기획 토크<양혜규: 횡단하는 말들>, 기금마련전 전시연계 토크<풀칠>, 안유리, 이우성, 정은영, 송상희 전시연계 토크 ○ 특별기획행사: 전시연계 기자간담회, 아트스페이스 풀<풀뿌리 회원의 밤> ○ 풀출판&아카이브: 아카이브 프로젝트

❖ 사업사진



풀 프로덕션<기금마련전 2015 풀이 선다>



풀 프로덕션<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풀 네트워크 <국제교류 베통살롱>



풀 스쿨<전시연계 현장수업-이화여대>

◆ 창작공간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사업기획	• “지역적 경계와 아카데미 학제를 넘어서는 대안적 학습공동체”를 통해 새로운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플랫폼을 형성하겠다는 공간의 방향성이 대안공간의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한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 • 팟캐스트 <말하는 미술> 미술방송을 기획하여, 대화를 통해 전시와 작품의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현대 미술에 전반에 대한 토론의 장을 기획 • 연간 전시 주제 전들을 통하여 작가 저자정신, 연구개발, 콘텐츠 생산, 저변성장 지원 등의 공간운영 목표로 한 미술과 사회에 대한 성찰과 대안가치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진보적 대안 미술 공간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행할 가치가 나타나고 있음
사업운영	• R:ead(Residency East Asia Dialogue), 국제 인턴십 협약 <보르도 미술학교>등을 통해 해외교류의 가능성을 보다 확장시켜냈다는 점에 주목 • 이를 통해 새로운 해외 네트워크 구축 및 추후 기관 협업을 통한 전시기획과 작가 지원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함 • 스페이스 풀에서 열리는 개인전은 개인작가의 프로덕션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결과를 반영한 전시를 운영
사업성과	• 국제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본 사업으로 국내 미술전문인력을 해외 작가 및 기획자들에게 소개하여 그들의 활동기반을 넓히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 이러한 풀의 네트워크 사업으로 공간의 자생력을 높이고 스스로 지속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원동력으로 작용될 수 있는 추후 사업들을 기대함 • <신진 작가 인큐베이팅 및 학술·비평 연구랩>영역을 다루고 있는데 프로덕션에 비중을 둔 기획 초대 개인전 비평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실험 기획, 작가들의 네트워크 플랫폼으로서의 기능 활성화를 강화하고 있음
종합평가	• 담론을 형성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정체성을 견고히 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유의미하나, 올해의 성과는 이 보다는 작가의 발굴과 전시 역량, 해외 네크워크의 확장 등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음 • 특히 말하는 미술을 통해 현대미술의 저변을 확대시키고, CMS 회원의 확충을 통한 관객개발 노력 및, 공간자생성을 위한 시도들이 의미 있는 결과들을 도출해내었다고 판단 • 개선된 풀의 운영체계는 체계화된 공간운영 시스템이 상호협력구조를 띄며 탄탄한 조직력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마치 튼튼한 트리앵글을 구조격인 자문운영위원회, 별도지원기구, 인력협력 파트너기관 등의 구조를 구축하고 있음

3 갤러리팩토리

◆ 공간개요

공간구분	• 대안공간
공간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0길 15
공간설립일	• 2002년 12월
시설현황	• 1 전시실, 사무실
지원예산	• 25,000,000

◆ 공간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

○ 예술창작활동 – “전문가 집단과의 협업을 통한 밀도 있는 주제 전시”

○ 문화기획 – 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아트컨설팅 & (퍼블릭아트) 연구 프로젝트 기획 및 진행

○ 국제문화예술인 교류 – 북유럽, 일본 예술가/큐레이터와의 지속적 교류 프로그램 개발

◆ 주요 추진계획 및 결과

구 분	추진계획	추진결과
주요기획전시	○ 당신의 친구: 대화와 협업 ○ 동식물계 Flora & Fauna ○ 팩토리 북유럽 교류 ‘아틱피버’ ○ 컨템포러리 한국 회화 관련 서베이 전시	○ 주제기획전: <당신의 친구, 대화와 협업>, <동식물계>, <프랙티스> ○ 독립출판 기념전: versus no.8 '겉과 속‘ ○ 독립큐레이터: <여기라는 신호>
프로그램 (교육, 공연)	○ 일본/한국 독립큐레이터 세미나 프로그램: 젊은 독립큐레이터로 구성된 단체와의 교류를 위한 한국 측 베이스 캠프 ○ 예술영화 & 실험영화 스크리닝 프로그램: 실험영화/다큐멘터리 영화를 스크리닝 하는 프로그램 ○ 심야 예술교육프로그램 ‘부엉학교’: 낮 시간을 이용하기 어려운 직장인과 비전문가를 위한 강의와 워크숍	○ 심야 예술교육프로그램 팩토리부엉학교: 씨노그라피-Beyond white wall, 라키바움, 저작권법 수업-레서피로 읽어보는법, 저작권법 수업-건축으로 읽어보는 법, 어떤 큐레이터의 프랙티스, FRACTICE: SHAPE OF MY COLOR - 컬러 워크숍, 미술과 법
기타 행사	○ 독립예술잡지 버수스 8호 출간: 독립예술잡지 버수스 출간 ○ 팟캐스트 라디오 제작: 잡지 제작에 동참한 여러 사람들과의 대화를 라디오-팟캣스트로 제작	○ 독립예술잡지 버수스 8호 출간 ○ 전시프로그램 워크숍 ○ 아트 에디션 프로젝트: 팩토리 고유의 디자인제품을 작가와 협업으로 개발하여 국내외 판매를 시도

❖ 사업사진



기획전시<당신의 친구 대화와 협업>



주제기획전<동식물계>



버수스 8호 출판기념 전시 기획자&작가토크



팩토리부엉학교<어떤큐레이터의 프랙티스>

◆ 창작공간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사업기획	• 전시와 전시 과정 아카이브에 중점을 두며 결과물만이 아닌 소통과 교육에 목표를 두고 기획 • 독특한 주제를 가진 전시기획을 하고 있고, 중장기 추진전략이 다양한 테마로 구성되어 전반적으로 타 기관과는 차별화된 사업의 기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전시뿐 아니라 출판, 워크숍, 이벤트, 아카데미라는 형식을 아우르며, 그 안에 다루는 장르 역시 미술부터 다원예술, 그 밖에 사회적 인문적 배경을 강력하게 정립하고 확고한 기관 철학아래 운영하고 있음.
사업운영	• 현대미술의 실험적 대안공간의 특성을 잘 살려 인접학문의 전문가들과 협업시스템으로 문화전반적인 것을 아우르는 구체적인 시도를 하고 있음 • 2015년 동안 갤러리팩토리에서 개최된 전시들은 개인전과 그룹전, 심지어 외부 큐레이터의 기획전을 막론하고, 새로운 커뮤니티의 형성, 여성적이고 생태적인 관점에서 문화 읽기 등 일관된 지향점이 읽힘 • 이는 공간의 확고한 철학과 비전이 초기부터 설정되어 있었으며, 전시 진행 과정에도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음을 방증함
사업성과	• 전시 협업과정을 그대로 전시로 연결하여 공간이 늘 변화하면서 발전되어 결과로 연결되는 참여적이고 비평적인 전시를 시도 • 창작자와 예술인들간의 상호교류에 대한 활동이 다양하며 갤러리 대표의 활동이 왕성하여 예술의 일반대중에의 보급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기여 • 전반적으로 국내외 작가들의 원활한 네트워크가 돋보이는 전시 프로그램을 선보임. 또한 동시대 미술에서 전시라는 형식을 실험하는 <프랙티스>는 현재 미술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큐레이터들을 초청하여, 이러한 고민을 담론화하며 확장시킴
종합평가	• 차별적인 기획으로 예술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데 기여하였고 사업의 성과도 매년 좋아지고 있는 추세 • 디자인, 건축, 순수미술의 융복합적인 주제를 풀어서 과정의 전시로 작가와 관객, 공간과 사회의 만남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전시를 기획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콘텐츠가 약해질 가능성이 엿보임 • 관계들을 결합시키는 고도의 전략은 학술적이며 시대의 변화를 바로 접목시키는 순발력이 필요함 • 갤러리팩토리는 전시 개최에 외에도 버수스 매거진 발간이나 부엉학교 운영처럼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공간의 비전을 공고히 하고 외부 관객으로 하여금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실히 하고 있음.

4 대안공간 아트포럼리

◆ 공간개요

공간구분	• 대안공간
공간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2동 567-9
공간설립일	• 2003년 9월
시설현황	• 2전시실, 사무실, 세미나실, 교육공간, 창작스튜디오
지원예산	• 20,000,000

◆ 공간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

○ 지역에서 실험(기획)적 요소를 기반으로 기획하는 전시공간

○ 지역 도시시스템에 문화적 결핍, 예술적 영역을 리서칭하여 사적공간에서 공적 영역을 실행

○ 커넥티브 스페이스로서 공간과 공간의 접속, 내용과 내용의 접속, 기획활동을 확대

◆ 주요 추진계획 및 결과

구 분	추진계획	추진결과
주요기획전시	○ 신진작가 신장르 만화집단 'VCR'기획초대전, ○ 다른지역, 같은 동종<이종교배전> ○ 유럽의 지역과 지역 <이종교배전> ○ 미디어 야외 프로젝트 <석개화전> ○ 지역중견작가 기획초대전	○ 사슴사냥 레지던시 기획초대전: <물고기+자리>, <삼정동 르뽀 개 닭보듯>, <일상다반사>, <나여기있어요> ○ 기획전시: <yellow wing>, <이종교배2>(부산, 부천), <invisible layer> ○ 국제교류전: 독한쿤스트
프로그램 (교육, 공연)	○ 신진작가&큐레이터 인큐베이팅 프로젝트<PRO:ject2+> ○ 레지던시 프로젝트<사슴사냥> ○ 비평가 레지던시 프로젝트<사유게르 레지던시> ○ 학교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프로젝트 ○ 무지개 파일럿프로젝트	○ 신도시 구놀이 '올레이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 학교밖 청소년 '페이퍼크래프트': 부처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페이퍼크래프트+레지던시 프로젝트 ○ 시네마컨템포러리; 영화와 현대미술을 함께 배우는 성인들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 2015사슴사냥 레지던시 ○ 비평가 라제던시 사유게르 워크숍
기타 행사	○ 부천 삼정동 소각장 문화공간 발상 워크숍 ○ 상상지기공동체<스트리트 파티 상상>: 상상지기 공동체는 마을공동체로 마을축제를 진행하고 다양한 워크숍을 통해 마을의 자생적 예술 커뮤니티 축제를 형상화 ○ 삼정동 소각장 문화공간 재생 프로젝트	○ 아트레지던시 페스티벌 in 전북 ○ 게슴츠레 띵씽Thing Party: 2015 무지개다리사업 문화다양성 프로젝트 ○ 부천문화재단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공간의 탐닉> 공동기획

❖ 사업사진



기획전시<이종교배 in 부천>



해외 이종교배<독한 쿤스트 very painting>



비평가 레지던시<사유게르 프로젝트>



영화와 미술사이<시네마 컨템포러리>

◆ 창작공간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사업기획	• 지난 3년간 소각장을 통한 공간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던 기획의 지속성과 공간 중심 기획이 지역과 예술과 사회의 소통으로 연결해내는 확장력에 주목함 • 문화적 결핍을 야기시키는 지역 도시시스템에 예술적 영역을 리서칭하여 사적공간에서 공적 영역을 실행하며 결핍의 충원작업을 전시, 레자던시프로그램, 예술프로젝트를 통한 커뮤니티 사업을 기획 • 예술 생산자와 생산자간 교류, 생산자와 일반인들 간의 이해의 폭을 좁히는 창구를 확보하는 커뮤니티 아트, 석개화('콘크리트 사이에 핀 꽃')'라는 타이틀로 도시문화 드러내기와 제안 등의 프로젝트 진행이 주목됨
사업운영	• 개별작업으로 진행되었던 지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의 정체되어 있다는 평가를 통해 학생들과 기획단계부터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3년째 단계별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음 • <2015사슴사냥 레지던시>, <기억하는 사람들이 완성하는 전시 'Yellow Wing'>, <이종교배 프로젝트 Outbreeding system>는 아트포럼리의 공간운영 방향을 가장 잘 대변해줬던 사업으로서 작가와 창조, 작가와 사회구조, 작가와 작가의 관계를 신중하게 접근해 보는 가치 있는 전시임
사업성과	•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비평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확장해내었다는 점에 주목했으며, 국내의 지역과 지역 네트워크 전시 외에도 해외 비영리단체와의 교류전을 지속하면서 네트워크를 확대해내가고 있는 점도 높이 평가함 • 소각장 공간재생 관련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간재생사업의 공간 중심 기획에서 나아가, 지역과 예술과 사회의 소통으로 연결해내는 확장력에 주목함
종합평가	• '공동체문화마을'을 지향하는 레지던시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공간 재생의 의미 있는 시도를 하였다고 판단하며, 비평가레지던시를 통해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받았던 미술 비평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이후 보다 안정된 프로그램을 기대함 • 소각장 공간재생프로젝트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소통의 매개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내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지속적인 프로젝트를 기대함 • 지역과 연계된 예술커뮤니티의 생성 방향을 갖고 첫발을 디디면서 시각예술가들의 창작품 자체의 심화에 비중을 맞추어 진행하며 작가들의 개별 작업에 대한 예술적 성과와 더불어 디포그 기업과의 협업, 삼정동 지역주민향유를 위한 참여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좋은 결실을 맺었음 • 전시를 토대로 한 작가와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 활성화로 관객개발과 영리적 수익, 전시작가의 지원, 레지던시 참여 작가의 체험프로그램 진행으로 일정 부분의 생활적 체계를 공동체적으로 모색함으로써 공간운영의 활성화와 지역의 공교육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과제를 풀어나자는 자세가 훌륭함

5 토탈미술관

◆ 공간개요

공간구분	• 사립미술관
공간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평창 32길 8
공간설립일	• 1992년
시설현황	• 3전시실, 사무실, 교육공간
지원예산	• 90,000,000

◆ 공간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

○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교류의 플랫폼으로서 토탈미술관

○ 동시대 기획자들의 교류의 장으로서 토탈미술관

○ 한국현대미술 자료의 보고로서 토탈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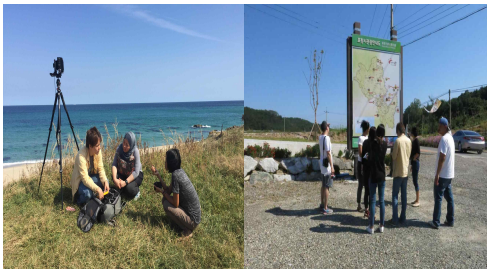
◆ 주요 추진계획 및 결과

구 분	추진계획	추진결과
주요기획전시	○ 기획전: '사진/미디어'를 핵심주제로 선정하여 전시-강좌-아카이브를 연계 - 17x17 두 번째 에디션, 거짓말의 거진말: 사진에 관하여, Dan Perjovschi & Lia Perjovschi, Sound Transparency, Arena Tour	○ 기획전: Momentum: Art/Omi, 거짓말의 거짓말 사진에 관하여, 지식박물관, 의문과 논평, 토탈 아카데미 회원작가전, Lies of Lies, Power to th people
프로그램 (교육, 공연)	○ 국제교류 프로그램: 이탈리아 로마,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등 해외 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기획 - 로드쇼2015 7번국도, 로드쇼2015 LA, VIDEZOOM: Korea, Playground in Island 2015, The show must go on ○ 교육프로그램: 토탈아카데미, Curator's Fab Lab, 한국현대사진작가론 특강, Artists in Films	○ 교육프로그램: 토탈아카데미, 한국현대작가 사진론 특강, 사부작 꼴라주, 작가와의 대화, Arts in Films, Studio Visit, Curator's Fab Lab ○ 로드쇼2015 7번국도: 아시아 큐레이터들과 함께 여행과정에서 퍼포먼스 및 전시를 진행, 전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 ○ 로드쇼 LA: LA 현지에서 작가 및 큐레이터가 함께 여행하며 교류를 위한 플랫폼을 마련하는 프로젝트 ○ Playground in island2015
기타 행사	○ 해외작가 소개: 매년 해외 작가 및 기관을 초청하여 전시 및 공동기획의 프로젝트를 진행 - Knowledge & Doubts ○ 한국작가 해외소개: 한국현대미술작가의 영문으로 된 작가론을 격월간 온라인으로 발간하고 연말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프로젝트 - K.NOTe	○ K-NOTe : 온라인기반 영문 매거진으로 한국의 젊은 작가와 큐레이터를 해외에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매달 한명의 작가를 깊이 있게 연구하여 번역된 출판물을 제작

❖ 사업사진



기획전시<거짓말의 거짓말:사진에관하여>



국제교류프로젝트<로드쇼2015_7번국도>



<Artist in Films>



<curator's Fab Lab>

◆ 창작공간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사업기획	• 한국미술을 소개하고 유럽과 아시아 미술 간 국제교류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자 기획하였음 • 크게 사진중심으로 한국사진계와 주변매체를 활용한 작가들 중심으로 <거짓말의 거짓말:사진에 관하여>전시와 해외 큐레이터나 미술관계자들에게 직접 작가를 소개하는 온라인 출판 프로젝트 K.NoTe도 주목할 만함
사업운영	• <거짓말의 거짓말>전시연출은 담론을 생산할 수 있고 작가에게 주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전시였음. 2010년부터 기획하고 있는 로드쇼에 한국작가 7명과 말레이시아, 인도, 미얀마, 싱가포르 네 명의 해외큐레이터가 초대되어 서울, 구미, 포항, 강릉, 속초, 고성까지 7번국도의 여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작업과 삶의 소통을 시도할 수 있음 • 큐레이터의 실천적 신념의 집행은 좋으나 미술관과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봐야 할 것임. 예를 들어 로드쇼의 일부를 미술관에 중계한다든지, 다큐멘터리 제작, 시각적인 형태로 미술관과 연계할 수 있는 형식을 개발하기를 바람
사업성과	• 미술관의 운영상황과 목표에 맞추어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성과를 조금씩 거두어들이고 있음 • <거짓말의 거짓말>의 전시는 근래 보기 드물게 신진작가부터 중견, 원로작가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전시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참여작가들 모두의 작가론을 수록하여 개별 작가에 대한 작품 이해도를 높임 • 6년간 지속해온 <Playground in island> 프로젝트는 마침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 있는 UCSF 와의 MOU를 맺고, 이를 토대로 한국작가 및 큐레이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학교내 갤러리 프로그램 및 큐레이토리얼 프로그램 기획하여 지속적으로 한국작가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함
종합평가	• 한국미술을 해외미술에 소개하며 국제교류를 하고자 하는 미술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단기프로젝트를 기획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 기관임. 특히 <로드쇼>, <Playground in island > 프로그램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문화교류의 장을 실천하는 점이 돋보임 • 미술관 운영에 맞는 실제 소통을 위한 과정을 중요여기는 기초예술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됨 • 토탈미술관은 해외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시 방문하는 곳으로, 아카이브실에 토탈미술관 전시에 참여했던 주요 작가들의 도록 및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여 비치해 놓음으로써, 관계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한국작가들의 자료를 구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방문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음

6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

◆ 공간개요

공간구분	• 대안공간
공간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6길 4
공간설립일	• 1999년 4월
시설현황	• 1전시실, 사무실
지원예산	• 50,000,000

◆ 공간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

○ 운영 체제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프로그램 시도 및 실험적 창작을 위한 전시 여건 제공

○ 비영리 공간으로서의 공공성을 확보 및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 정책 확립

○ 프로젝트 개념, 큐레이터쉽, 네트워크 중심, 현장 시스템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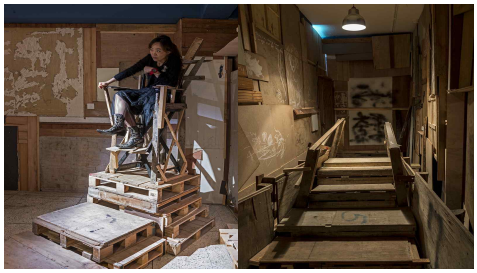
◆ 주요 추진계획 및 결과

구 분	추진계획	추진결과
주요기획전시	○ 공모기획전: 매년 2, 3회 공모를 통한 재기획(작품계획-검토-논의-실험-검증 및 비평-담론) ○ 이슈기획전_사루비아인사이트: 한국의 현대미술 시스템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합리적이고 융통성있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관습화된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주제 전시를 기획	○ 공모기획전: 우정수 '불한당의 그림들', 유목연 '모험도감', 김동규 '비정형 특강', 김신애 '위옆옆아래' ○ 이슈기획전_사루비아인사이트: 요건덕호펜 '근시', 적극, '다페르튜토 스튜디오', '제3의 과제전'
프로그램 (교육, 공연)	○ 교육프로그램 SO.S(Sarubia Outreach System): 작가가 직면한 상황에 대한 1:1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작업실 방문을 통한 크리틱, 미술계 전문가들과의 매칭, 카운슬링 등 제공	○ 교육프로그램 SO.S: 6월에 첫 공모를 시작하여 A(40세이상 작가), B(지역기반활동 작가), C(45세미만 작가) 그룹 총합 111명 지원 최종 6명 선정
기타 행사	○ 전문가 워크숍: 참가자의 작품세계를 심화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구성 워크숍 개최 ○ 작품비평 워크숍: 참여작가의 작품세계를 이차적으로 진단하고,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작품세계를 확장, 심화시켜나갈 수 있도록 함	○ 심층비평 프로그램: 참여작가와 비평가 매칭 지원 ○ 전문가 미팅: SO.S 프로그램 중 전문가가 작업실을 방문하여 개별 미팅 비공개 진행

❖ 사업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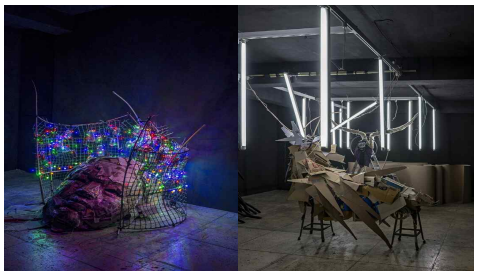
공모기획전<우정수'불안당의 그림들'>



공모기획전<유목연'모험도감'>



사루비아인사이트<요건먼호펜의 '근시'>



사루비아인사트<적극-다베르토스튜디오>

◆ 창작공간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사업기획	• 현재 신진과 젊은 작가들을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비평과 홍보의 필요가 절실한 전업 중진작가들을 위해 맞춤형 창작활동을 중장기로 지원하는 SO.S프로그램과 미술대학 4학년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을 기획 • 대안공간의 기능과 위상이 달라진 최근의 상황에서 스스로의 역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고하고 적절한 공간운영 목표와 추진전략을 수립함 • 단순히 젊은 작가를 발굴하고 실험적인 작품을 지원하는 일차적인 것을 넘어, 미술현장에서 가장 미흡하고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을 자임하며 올해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을 구상
사업운영	• 전시기획과 함께 작가와 작품에 매칭되는 비평전문가 2인을 섭외하여 작가와 일대일 비평을 받아 진지한 담론을 구축하고 있음 • SO.S프로그램의 경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작가들의 작업실을 방문하고 실제로 그들이 필요한 부분에 맞춤지원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 실제 결과물이 아닌 작가들의 요구와 기획자의 일에 대한 능률, 예술을 생산하고 전시하는 전반적인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가치를 극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어 타 공간과 차별됨 • 전시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실시한 <사루비아 인사이트>는 한국의 현대미술 시스템에서 관습화된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책으로 전시 주제를 탐색하는 방식임
사업성과	• 작가 선정 과정을 강화하여 올 한 해 개인전들이 전반적으로 우수함 • 또한 매 전시마다 내부적으로 심층 비평 프로그램을 운영해, 다양한 시각과 매칭시켜준 것은 전시 작가에게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됨 • 한국 미술계의 운영 논리에 작가를 맞추는 게 아니라 작가의 작업실에서부터 출발하고자 하는 기획은 상당히 신선하고 고무적임 • 전시만으로도 바쁠 운영진이 따로 시간을 내어 별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이 놀라우나 온라인이나 출판 등 꼭 전시가 아니라도 이러한 활동이 공유되면 좋겠음
종합평가	• 지난 회까지 운영위원들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공간은 기획자와 예술가들 스스로가 운영해 나가는 공간으로 변모한 첫 해임 •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작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실제 그들이 체감하고 있는 문제들을 수면에 띄워 전시와 담론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은 가치가 있음 • 사루비아다방은 한국의 1세대 대안공간으로서 갖고 있는 상징성이 큼. 그러나 한국 미술계의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외부 환경적 요인에서 몇 년 전까지는 재정적으로나 운영적으로나 위기가 찾아왔었음 • 그러나 그 위기를 딛고 더욱 단단해진 상태로, 한국 미술계를 이끌고 나갈 기관으로서의 비전을 찾은 듯함

7 갤러리 정미소

◆ 공간개요

공간구분	• 대안공간
공간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9-17번지 객석빌딩 2층 갤러리 정미소
공간설립일	• 2003년
시설현황	• 2전시실, 사무실
지원예산	• 50,000,000

◆ 공간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

○ 한국적 상황에 대한 담론구축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 추진

○ 국내와 해외 유통을 위한 아카이브와 출판, 연구 플랫폼 형성

○ 다양한 장르 및 대학로 지역 네트워킹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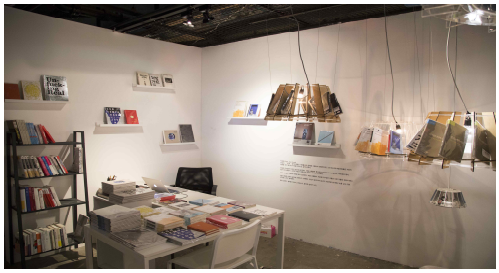
◆ 주요 추진계획 및 결과

구 분	추진계획	추진결과
주요기획전시	○ 기획전시: 담론의 생산을 위한 전시기획, <조각에 대한 작은생각>, <갤러리 정미소 주제기획전>, <권구희, 김세진 작가 개인전> 등 ○ 중장기 프로젝트 미디어극장: 과거에서부터 영상작업을 꾸준히 진행시켜 왔던 작가군들을 조망하는 전시	○ 공간설치 프로젝트Ⅰ. 성북길 전: 대학로 인접지역 네트워킹 프로그램 성북동 프로젝트 ○ 판화다 그러나 새롭다 전: 전통판화부터 설치미술로 확장된 판화 소개 ○ collectartbook 전: 전시공간에 영구히 비치될 수 있는 북샵 및 전시 ○ 엽집탐구2: 건축가협회와 공동 진행된 세미나 전시 결과 발표의 장 ○ M.A.P, 갤러리 정미소 신진작가 지원전: 미디어아트의 해외교류를 위해 기획된 미디어 아트 플랫폼 M.A.P에서 영상분야의 신진작가 모집 ○ 미디어극장 2015
프로그램 (교육, 공연)	○ Newface Artist: 공모를 통한 신진작가 발굴 프로그램 ○ 여러 장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카데미	○ 8월에 열리는 8개 강연 프로그램 : 작가들의 대학 강의 내용을 일반관객 및 예비 작가와 공유하는 프로그램
기타 행사	○ 출판 : 전시담론을 엮어내는 방식을 기존의 도록형식을 벗어나, 매거진 혹은 단행본 출판물의 성격을 강화 ○ 해외 네트워킹 프로젝트: 해외의 미디어아트를 한국의 담론위에 녹여내어 다른 국적의 작가와 작품을 점진적으로 소개	

❖ 사업사진



기획전시<성북인스톨레이션 1: 성북길>



기획전시<collectarbook>



기획전시<판화다 그러나 새롭다>



교육프로그램<8월의 8가지 강연 전경>

◆ 창작공간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사업기획	• 갤러리 정미소는 공간의 정체성을 이끌어갈 기획을 10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로 기획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됨 • 사업 기획 단계에서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많은 미술관에서 시도하고 있는 신진작가 발굴 부분에 대한 사업 기획으로 공모전과 레지던시 시스템의 중간단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질적으로 젊은 작가들의 창작 활동의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 시선을 끌었음
사업운영	• 강사 통폐합의 과정에서 미술대학에서 퇴출되고 있는 미술가들이 많은 시점에서, 작가, 미술 전공자뿐만 아니라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분야의 실무자들로부터 직접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아카데미 운영이 우수 • 최근 지역문화활성화 사업들이 급부상 하고 있는데, 정미소에서는 그 지역들에서 생산된 내용들을 교환하고 교류시키는 사업에 중점을 두어 본 행사를 진행시켰다는 점에서 지역 간 교류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유의미하였다고 평가됨
사업성과	• 갤러리 정미소가 성북동에 또 다른 공간을 열면서 시작된, <성북 인스톨레이션 1: 성북길>은 특정 지역을 변경시키고 작업을 영구설치 한다는 개념보다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그대로 두고 예술 작업의 개입 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했던 점에서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판단됨 • <collectartbook展>는 전시공간에 영구 비치될 수 있는 책에 관한 전시로 예술작품 자체뿐 아니라, 다양한 책을 통해 예술, 현장과 동시대를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되며, 관객은 전시관계자, 평론가, 작가들의 사고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성과를 내었음
종합평가	• 공간의 정체성에 맞게 중·장기적으로 기획프로젝트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내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됨 • 성북동지역의 새로운 공간 오픈을 통해 전시공간 밖에서도 시민과 대중들이 다소 어렵게 느끼는 동시대 미술을 근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유의미하였음 • 갤러리 정미소의 정체성에 맞는 작가들의 작업을 지원하고 책자 발간을 통해 담론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되나 사업기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의 미디어아트 작업과 전시 담론을 동시에 해외에 집약적으로 효과 있게 소개하기 위한 해외 네트워킹 프로젝트”는 사업 집행 단계에서는 이 부분의 진행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획과 계획의 수립이 요구됨

8 영은미술관

◆ 공간개요

공간구분	• 사립미술관
공간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청석로 300
공간설립일	• 2000년 11월
시설현황	• 4전시실, 사무실, 세미나실, 교육공간, 자료실, 수장고, 창작스튜디오
지원예산	• 30,000,000

◆ 공간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

○ 동시대 현대미술 작품을 연구, 소장, 전시하는 현대미술관

○ 창작환경을 제공하고 상호소통과 협력을 유도하여 '아티스트 커뮤니티'를 이루고자 함

○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현대미술의 이해도 제고 및 미술관 참여 확대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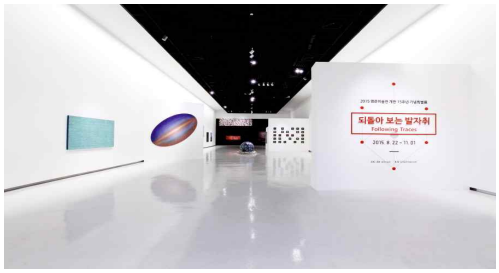
◆ 주요 추진계획 및 결과

구 분	추진계획	추진결과
주요기획전시	○ 기획전: 영은미술관 개관 15주년 특별기념전 Ⅰ, Ⅱ부 - Ⅰ부. 한국·일본 작가교류전<함께하는 발자취> - Ⅱ부. 국내·해외 공·사립 레지던스 아카이브 교류전<되돌아보는 발자취>	○ 기획전: 영은미술관 개관 15주년 특별기념전 Ⅰ, Ⅱ부 - Ⅰ부. 한국·일본 작가교류전<함께하는 발자취> - 한국·일본 작가교류전 및 일본큐레이터 초청 심포지엄 개최(한일수교 50주년) - Ⅱ부. 국내·해외 공·사립 레지던스 아카이브 교류전<되돌아보는 발자취>
프로그램 (교육, 공연)	○ 작가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공방작가 체험프로그램 운영 ○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 운영 ○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전시연계 체험 프로그램 ○ 학교연계 프로그램 기획 ○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문화예술강사 양성프로그램	○ 소외계층대상 겨울방학 프로그램: 광주지역 작가 및 영은미술관 작가 연계체험 교육프로그램(광주작가 후원) ○ 꿈다락토요문화학교: 가족/청소년대상 교육(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영은뮤지엄아트 캠프: 국내 사립미술관 최초로 기획된 뮤지엄아트 캠프(2박 3일)
기타 행사	○ 한·일 큐레이터 및 작가와의 만남: 일본 가나자와 21C미술과나, 도쿄 국립신미술관과의 큐레이터, 작가간 교류 ○ 국내 작가-기획자 매칭 워크숍: 국내 기획자 및 국내작가 매칭 워크숍 개최	○ 심포지엄: 한일 각 기관 실무책임자, 참여작가 참석-각 기관들간 큐레이팅 방법 공유 교류심포지엄 개최 ○ 워크숍: 한국·일본 작가교류전 기간 중, 국내작가 6인과 국내 기획자 1:1 매칭 공동워크숍 개최 ○ YMC 콘서트 운영: 연 6회에 걸쳐 다양한 음악단체와 연계한 음악회 개최

❖ 사업사진



한국 일본작가교류전<함께하는 발자취>



아카이브교류전<되돌아보는 발자취>



일본 큐레이터/작가와의 만남



아카이브교류전<되돌아보는 발자취>

◆ 창작공간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사업기획	• 국내 최초의 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한 영은미술관은 개관 15주년 기념의 해를 맞아 다양한 국제교류 및 아카이브 전시 개최 • 일본, 중국과의 교류에 이어 다양한 유럽 국가들과의 교류여건을 조성함 • 영은 및 유관기관들과의 아카이브 전을 통해 아카이브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
사업운영	• 개관15주년에 걸맞은 다양한 회고전 및 아카이브전을 개최하며, 일본 및 유럽 국가들과의 교류전을 공동 기획함으로써 발전된 미술관 운영기반을 구축함 •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영은미술관은 다소 지방에서 볼 수 없는 국내·해외 현대작가들과 다양한 성격의 흥미로운 전시 및 교류의 만남의 장을 개최함으로써 문화적 관심도와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음. • 각종 전시연계 프로그램 및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현대미술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작가와 작품, 관람객(지역민, 대중)이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사립미술관 중 하나임
사업성과	• 한국작가 6인과 일본 대표 지역미술관인 가나자와 21C미술관, 도쿄의 국립신미술관 큐레이터가 선정한 작가 2팀이 한 공간 속에서 모여 일본 큐레이터 및 한·일 작가 간 흥미로운 담론을 공유해보는 '교류 포럼'을 개최하고, 한국작가&기획자 매칭 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공간의 효용성을 극대화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국내·해외 미술관 작가교류를 넘어, 해외 유수의 공·사립 창작스튜디오 아카이브 교류의 장을 펼침으로, 보다 확장된 시선으로 국내·해외 창작스튜디오 아카이브의 우수사례를 선보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펼쳐짐
종합평가	• 창립15년을 맞아 미술관과 창작스튜디오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회고하는 성격의 행사가 주가 됨 • 15주년행사에 걸맞게 관객조사 등 종합적인 자체평가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 • 국내·해외 미술관 작가교류를 넘어 해외 유수의 공·사립 창작스튜디오 아카이브 교류의 장을 펼침으로 보다 확장된 시선으로 국내 해외 교류의 우수사례를 선보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선보임 • 한국 · 일본 미술관 간의 교류, 한국·유럽, 미국 공·사립 창작스튜디오 간의 교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 지속적으로 연계, 확장되어갈 수 있는 교류 네트워킹의 장을 하고자하는 것이 큰 눈길을 끌었음.

9 오픈스페이스배

◆ 공간개요

공간구분	• 대안공간
공간소재지	•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297-1, 292- 외
공간설립일	• 2009년 9월
시설현황	• 3전시실, 사무실, 세미나실, 교육공간, 아카이브자료실, 창작스튜디오
지원예산	• 70,000,000

◆ 공간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

○ 일반인에게 '미술과 자연 속 휴식'이라는 문화적 환경을 제공

○ 전문가 및 마니아층을 확보하고 연대하여 배의 자유로운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인 시각예술의 담론 생산의 장 마련

◆ 주요 추진계획 및 결과

구 분	추진계획	추진결과
주요기획전시	○ 주제기획전: The Illuminating, 세계를 엮다, 바람난 40대, MACOU 현대미술 ○ 산복도로 윈도우 갤러리 : 산복도로 공공미술 프로젝트 일환우로 윈도우 갤러리 조성 ○ Local to Local : 지역과 지역, 지역과 세계를 엮는 전국단위의 기획전 ○ 안녕,예술가: 지역 신생공간과의 협력 프로젝트	○ 개인전: "완전한 인식"전, "농담의 재구성" 전, "막막"전 ○ 주제기획전: "The illuminating", "바람난 40대 시즌4", "제 몫 Sharing part" ○ Local to Local: "이종교배전", "386 상륙전", "new generation in taipei" ○ 안녕,예술가: 신진작가 멘토링 및 전시 지원, "안녕,예술가 전"
프로그램 (교육, 공연)	○ 아티스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 어린이 시각예술 교육 프로그램: 숲속 미술관 '상상농장 미술아 놀자' ○ 국제 레지던스 작가 교환프로그램 ○ 국내/국제 교류 프로그램: Local-to-Local	○ 아티스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신진작가 멘토링 프로그램, 7명 참여 ○ 숲속미술관: 미술아! 놀자 ○ 2015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오픈투유: 워크샵 및 무빙테이블, 문화탐방, 레지던스, 입주작가 전시 등
기타 행사	○ 작가와의 대화: 작가와 정보교환 및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 세계를 엮다-개인으로부터 글로컬 :국내작가 파견 글로벌 레지던시	○ 오픈포럼 "New Generation in Taipei & Korea" : 2015 오픈투유 기획자레지던스 프로그램 오픈포럼 ○ "세계를 엮다" 개인으로부터의 글로컬: TAV 타이페이 아트빌리지(타이페이), OX Warehouse(마카오), C&G Artpartment3명의 작가파견

❖ 사업사진



2015 로컬투로컬<이종교배전>



2015 아티스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작가와의 대화<안녕, 예술가 전>



2015 국제레지던시프로그램 오픈투유

◆ 창작공간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사업기획	• 국내 미술분야의 다양한 발전을 위한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멘토링프로그램의 기획력이 매우 뛰어나며, 국내외 기타 미술문화공간 및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훌륭함 • 자연친화적 환경특성 공간을 잘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일반인에게 '미술과 자연 속 힐링공간 'ㅇ라는 문화적 환경을 제공하여 예술과 삶 공간의 거리를 좁히는 작용의 시민문화감성 충전지대로 공공공적인 원도심 원도우 갤러리 활성화와 작가들의 창작 아지트가 되는 프로젝트 수행공간운영이 주목
사업운영	• 전문가들의 연대의식에서 비롯된 자발적 참여와 책임의식이 느껴지는 전시사업, 교육프로그램, 워크샵 등이 미술문화의 현주소에 의미 있는 질문을 생산하는 수준 높은 진행으로 평가됨 • 특히 지리적 위치와 환경이 갖는 체감적 개입이 되는 울산 현대해양조선소와 부산 미포조선소가 지역의 경제활력의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부터 지역경제력과 주민 및 이주 노동자들의 문화생활 수용성 여부에 따라 대안공간들의 방향지표가 설정되고 전시구도가 짜여짐
사업성과	• 대안공간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수많은 예술가들과의 소통과 국내외 기관, 단체들과의 협업하는 프로그램이 돋보이며, 참여한 작가들의 만족도가 높고, 미술계에 이슈를 제공하는 현실성 있는 주제를 다루어 지원사업 의 목적에 적합하다 평가됨 • 오픈스페이스배 전시는 신진작가를 발굴, 육성, 지원하자는 의도와 재조명이 필요한 중견작가들의 전시를 통하여 자각적 역량과 작업 근간을 이루는 미학적 담론을 이끌어내어 세상에 실험적인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제반여건 제공과 일반관람객 전문가 집단과 연계하여 작가를 프로모션 차원의 결과를 가져옴
종합평가	• 상업시장과 제도권 주도의 양분화된 미술문화계에서 오픈스페이스배의 노력과 역할은 매우 의미 있는 활동으로 한국미술의 미래를 책임지는 청년미술인들에게 예술인으로서 다양한 필수적인 질문과 자기검증 그리고 조형언어의 완성도를 창출하는 계기 창출 • 젊고 역량이 있으나 사회적 기반이 약한 젊은작가를 후원하는 신진작가 발굴이라는 기획부터 도시와 도시를 국제적 동선으로 연결하는 국제 네트워크 프로젝트까지 기존의 시스템이 가지지 못한 밀도 있는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작가들을 프로모션해 주고 있음 • 특히 폭넓은 국제교류를 위한 세계의 협력 기관과의 동반체계를 구축하여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진다는 것은 비영리민간단체가 미술계에 전달하는 메시지가 대단하다고 평가되며, 세계에서도 아주 독특한 프로그램과 그 방향성을 인정받는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전시, 인큐베이팅, 교육 프로그램 등은 오랜 기간의 지속적 운영으로 오픈스페이스 배 만의 정체성 보여주고 있음

10 플레이스막

◆ 공간개요

공간구분	• 대안공간
공간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46길 36
공간설립일	• 2010년 6월
시설현황	• 2 전시실, 사무실
지원예산	• 20,000,000

◆ 공간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

○ 동시대적인 새로운 예술의 가능성 모색하는 대안적 실험의 장

○ 신진 작가 발굴, 예술 비전공 작가 발굴 도모

○ 주거지에 인접한 위치를 통해 삶 속에서 문화 향유력 증대

◆ 주요 추진계획 및 결과

구 분	추진계획	추진결과
주요기획전시	○ 막비오젝트: 환경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전시로 2010년 9월에 시작해 매회 1회 진행 ○ 3i프로젝트 : 제도권 미술교육을 받지 않은 다양한 전공과 출신의 아티스트 발굴	○ 막비오젝트 : 실내금연법으로 인한 동네 환경미화 프로젝트 ○ 3i프로젝트 : 시각예술교육을 받지 않은 작가 박준, 최현주, 전수오 개인전 ○ 기획전시: 이야기 드로잉 그리고 나만의 드로잉북, 드로잉그림책 학교, 잃어버린 맛을 찾아서
프로그램 (교육, 공연)	○ MAKSHOW: 한국 퍼포먼스현장의 주류예술계 진입 및 저변확대를 위한 퍼포밍 프로젝트 ○ 작가의 섭외는 조형예술가들로 국한하는 것이 아닌, 전문 퍼포머를 비롯한 연극인과 무용가, 기타 여러 퍼포밍을 이용하는 다양한 작가 장르로 확대	○ MAKSHOW : 순수 퍼포밍 아트의 부재한 공간을 해결, 총 8팀의 공연을 릴레이식으로 2달간 진행 ○ 노마딕클래스: 아티스트를 위한 PDF 포트폴리오 작성과 이미지 저장에 관한 워크샵
기타행사	○ MAKKET: 디자이너 및 예비작가, 대학생 중심의 개인작품을 판매하는 플리마켓 개최	○ MAKKET: 스타트업을 시도하는 청년 소상인들과 함께하는 플리마켓 ○ 시사회 '다큐자연농 Final Straw': 자연농과 개척저, 실천가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시사회 및 감독과의 대화

❖ 사업사진



3i프로젝트<It's not your fault>



MAKSHOW 2015<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맛의 시각화 프로젝트<미미미미>



공연한 공연<Unfruitful Performance>

◆ 창작공간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사업기획	• 장기적으로 기획되어온 제도권 교육을 받지 않는 자에게도 오픈을 한 아웃사이더 아티스트 발굴 및 전시와 드로잉이라는 기초예술을 책자로 만드는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주목할 만함. 화이트큐브와 블랙막사 두 군데의 장소를 활용하여 전시와 퍼포먼스, 마켓 등을 통해 예술과 주변환경 및 삶과의 밀착관계형성 • 특히 주변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재떨이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인근 상가와의 협력 관계가 돈독하며 대표의 이 시대의 대안 실천적 목표를 꾸준히 실천시키는 기획 우수
사업운영	• 3i프로젝트는 10년 동안 해온 장기 프로젝트로 제도권 미술교육을 받지 않은 아티스트의 발굴 및 전시를 하는 프로젝트임. 포트폴리오의 심사가 아닌 여러 차례의 인터뷰와 작업실 방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작가의 작업을 끌어내어 전시의 형태를 만들며 관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게 하였음 • 전공자와 비 미술전공자의 개념을 확장시켜 예술적인 관점에서의 소통은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고 있음 • 드로잉 책만들기, 음식, 음악, 마켓 등을 통해 생활밀착형 예술의 프로젝트의 집행은 주변거주민들의 호감도를 만들고 지역생태계의 지형도를 예술적 위치로 변화시키고 있었음
사업성과	• 실험적인 전시와 비제도권 작가의 발굴은 대중의 흥미와 몇몇 타 기관에서의 작가에 대한 관심 등의 성과를 갖고 왔고 지속적인 공간의 지원이 지속될 계획을 세우고 있음. 타 장르의 예술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관객층을 확보한 점도 우수 • 그리고 공간 막에서 행해진 '막쇼'를 유료입장으로, 천막 공간의 제약에서 오는 여름과 겨울의 계절적 취약함의 비수기에 셀러에게 대여하여 수익을 창출함으로 공간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도 성과라고 볼 수 있음
종합평가	• 대표의 주관적인 지지아래 적극적인 예술의 자율성을 확보한 실험적인 젊은 작가들이 선호하는 공간임 • 화이트 큐브인 막에서는 드로잉, 조각, 설치, 비디오 등의 시각예술장르를 다루고 블랙박스의 개념인 막사는 마켓, 퍼포먼스 다원예술을 다루어 복합문화예술분야의 작가들과 관객들을 확보 • 제도권에서 벗어나거나 새로운 예술을 실험하는 작가들이 관심을 갖고 공간과 함께 협업하고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지면서 지역과 우선적으로 결합하면서 미세한 파급효과를 가져옴 • 미술계의 홍보보다는 다양한 매체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돋보임. 그러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내년에는 장소를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역적 장소성에 기반 한 기존의 실험적 성격을 지속할 계획을 갖고 있어 새로운 공간에 대한 기대를 해 봄

11 대산미술관

◆ 공간개요

공간구분	• 사립미술관
공간소재지	• 경상남도
공간설립일	• 1999년 1월
시설현황	• 3 전시실, 사무실, 세미나실, 교육공간
지원예산	• 30,000,000

◆ 공간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

○ 농촌지역의 문화 공간 활성화 및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

○ 창작과 향유 그리고 소통의 지점으로서의 대산미술관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향유의 확산에 초점을 둔 대산미술관

◆ 주요 추진계획 및 결과

구 분	추진계획	추진결과
주요기획전시	○ 창원국제환경미술제 : Jump into the Unknown- 조각, 설치 ○ 대산아티스트 박주현 초대전: 청년작가 발굴과탐구의 일환으로 추진된 대산아티스트 프로젝트로 선정된 조각분야 청년작가의 작품세계 조망 ○ 낙동강다원예술제 특별기획전: 업스이클링 패브릭 아트(Upcycle Fabric Art)를 주제로 섬유미술과 2인과 창원문성대 산업디자인과의 협업을 통한 신진자가 소개 전시	○ 기획전: 소장품상설전, 묵의 흐름전, 도소정 초대전, 신라대 신진작가전, 김남주초대전, 부산대 대학원 예술대학 2015 손위의 향기전 ○ 제1회 창원국제환경미술제: 베니스비엔날레 참여국외작가 및 국내현대미술작가전 ○ 낙동강 다원예술제: 현대미술작가 42명 초대 제5회 낙동강다원예술제
프로그램 (교육, 공연)	○ 전시연계 교육 - 업사이클링 아트 프로젝트 - 유등마을 벽화그리기 - 도구이야기 1, 2 - 리사이클이 예술을 만나면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그리GO만들GO ○ 찾아가는 수요창의놀이터 ○ 굼다락토요문화학교 미술관연계 교육프로그램
기타 행사	○ 전시주제 컨퍼런스: 창원국제환경미술제 개막식 부대행사 jump into the unknown 컨퍼런스 진행 ○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함께하는 국내외 작가 자연_문화답사 및 워크숍 ○ 정감 있는 저녁 행사 ○ 유등길 프리마켓 ○ 경남초등미술연구회 교사초청 워크숍 ○ 다문화가정 초청 아트캠프 ○ 대산미술관과 함께하는 예술나눔여행	○ 전시 개막공연: 퍼포먼스 공연 및 무용단, 합창단 개막공연 ○ 전시주제 컨퍼런스: 국내외 5명의 강연과 스크리닝을 통해 국제환경미술의 흐름을 전망하고 발전 방향을 숙고 ○ 자연문화답사: 국내외 작가들과 함께 함안가야문화왕릉, 대산미술관 인근 낙동강생태공원 등 지역예술문화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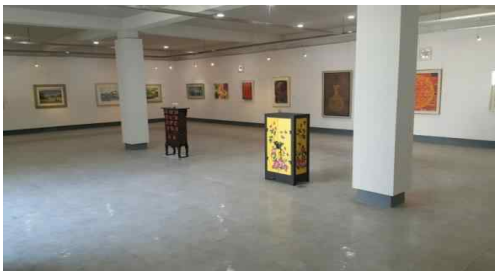
❖ 사업사진



창원국제환경미술제 <영국작가 퍼포먼스>



창원국제환경미술제<컨퍼런스>



제5회 낙동강다원예술제



꿈다락토요문화학교<곤충채집>

◆ 창작공간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사업기획	• 낙동강 인근 및 농촌지역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에 착안한 지속적인 행사로 추진되는 낙동강다원예술제는 타 미술공간과 차별화되는 독자적인 프로그램이 우수 • 우리나라 남부권의 지역문화예술발전과 예술향유 저변인구의 확보를 위한 사립미술관으로서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생산하는 대산미술관에서는 그동안 주류적 시각예술의 굴레에서 빗겨나 있거나 '다른' 영역이라고 터부시 되었던 예술 및 행위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고 조명해보는 전시기획과 문화예술교육의 혜택이 적은 농촌지역과 저소득 가정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미술체험교실을 운영한다는 기획은 지역이 안고 있는 예술을 접하며 감상하고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를 찾아주자는 전시기획 마스터플랜을 잡고 있음
사업운영	• 인근의 초등학교와의 효과적인 협업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평가되었으며, 어머니 자원봉사단 등의 다양한 후원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함 •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대미술 창작물의 '나열'을 넘어선 각기 다른 토양을 밟으며 성장과정에서 받았을 영향이 녹화된 인간마그네틱 격인 감수성이 인간사회에서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대중과 공유 할 수 있도록 전개하며, 지역작가, 미대 재학생, 교수가 참여하여 지역 주민들의 개입에 의해 작용되어 다다른 결과물인 예술품을 소통과 상생을 통한 삶의 높은 가치를 구현하는 일을 전개하고 있음
사업성과	• 특성 있는 전시사업의 추진과 이와 연계되어있는 흥미로운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지역사회에 매우 긍정적인 미술문화진흥의 결과를 도출함 • 낙동강다원예술제 등 지속적인 토탈문화행사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과 발표, 인큐베이팅의 예술공간으로 부터 부재된 국제적 감성과 지향성을 흡수하여 지역문화예술의 격차를 줄이는 다원, 시각예술 교두보 역할을 수행해가는 것이 일련 된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
종합평가	•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하여 사립미술관 이지만 다양한 조력자를 발굴하여 지역사회의 협업구조를 매우 효과적으로 운용하였고, 지역과 국내외의 폭넓은 작가군과 참여한 전시사업이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됨 • 지역의 예술행사가 자칫 집안잔치로 끝날 우려가 내심 가져보는 경우도 있음. 이는 학연·지연 인맥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 비재하기 때문. 하지만 제1회 창원국제환경미술전 "Jump into The Unknown"에서는 국제아트페스티벌 규모와 국외초대작가들의 활동역량은 타 지역에서 가졌던 선입견을 떨치는 전시였음 • 대산미술관만이 가질 수 있는 색깔을 만들어 가는 첫 배합이 이뤄졌음. 널 배합한 색깔의 작가, 과한 량으로 배합된 색깔작가의 의미가 남기는 것은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화법이나 이미 미학적 접근으로 해결 했던 문제의 작가들에게 배타적인 행동을 취할 때 충분히 발전의 요지가 많다는 평을 내림

12 아트선재센터

◆ 공간개요

공간구분	• 사립미술관
공간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길 87
공간설립일	• 1998년 7월
시설현황	• 3 전시실, 사무실, 세미나실, 교육공간
지원예산	• 30,000,000

◆ 공간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

○ 동시대 시각예술을 위해 특화된 공간으로서의 미술기관상 제시

○ 실험적인 동시대미술 전시 기획으로 폭넓은 감상 경험의 제공

○ 국내 작가 및 기획자의 활동 범위 다각화를 위한 플랫폼 역할

◆ 주요 추진계획 및 결과

구 분	추진계획	추진결과
주요기획전시	○ 기획전시 : <그만의 방 : 한국과 중동의 남성성>, <히만 청 개인전 - 한시도 지루할 틈 없는>, <불협화음 하모니>, <아브라함 크루스비예가스 개인전 -자가해체8:신병>, <아나우트 미크 개인전>	○ 기획전: <그만의 방 : 한국과 중동의 남성성>, <히만 청 개인전 - 한시도 지루할 틈 없는>, <불협화음 하모니>, <아브라함 크루스비예가스 개인전 -자가해체8:신병>, <아나우트 미크 개인전>, <아르나우트 믹: 평행성>, <리얼 디엠지 프로젝트 2015>
프로그램 (교육, 공연)	○ 퍼블릭 프로그램: 넓은 층위의 대중들이 동시대 시각문화를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기획운영됨, <아트선재 프로젝트 스페이스>, <배너 프로젝트>, <공간 프로젝트> 등 ○ 교육 프로그램: <먼데이/프라이데이 워크숍>, <어린이 워크숍 프로그램>, <단체 관람>, <차고 프리젠테이션>	○ 아트선재 프로젝트: 홍원석-P.S I LOVE YOU, 이은우-긴, 납작한, 매달린, 염지혜-모든 망명에는 보이지 않는 행운이 있다 ○ 아트선재 배너 프로젝트 : 노순택-살려면vs왔으면, 히만 청-오늘은 아니고 어쩌면 내일, 임민욱-비300 워터마크를 찾아서 ○ 아트선재 공간 프로젝트: 마르쿠스 마이센-담론적 사우나, 니콜라스 히르쉬, 미헬 뮐러-건축과 전시 ○ 교육프로그램: 도슨트 프로그램, 청소년 도슨트, 어린이 워크숍
기타 행사	○ 출판: 한국 동시대 미술계를 선도하는 주요 작가들의 전시와 함께 출판물을 발간하여 작가의 예술세계를 연구 및 정리하고, 나아가 국내 작가의 국제 미술계 진출을 위한 교두보적 역할을 수행	○ 아트선재 웹 프로젝트: 홈페이지 인트로 페이지를 활용한 웹기반 작업을 소개하는 프로젝트, 칼 나브로, 김영나 ○ 토크 프로그램: 아티스트 토크 <히만청>, 큐레이터 토크<불협화음 하모니> 등 ○ 스크리닝: 스크리닝 & 토크<천제런>, <아브라함 크루스비예가스> ○ 퍼포먼스: 불협화음 하모니

❖ 사업사진



기획 전시 <리얼 디엠지 프로젝트>



배너 프로젝트<히만 청>



아트선재 프로젝트<P.S. I LOVE YOU>



스크리닝&토크<아브라암 크루스비예가스>

◆ 창작공간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사업기획	• 한국에 잘 소개되지 않았던 중동과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중견작가들의 작품, DMZ를 소재로 심도 있게 연구한 작가들의 작품들을 소개하는 전시들이 기획됨 • 2015년에는 그룹전 3개와 개인전 3개로 구성된 총 6개의 기획 전시를 선보였음. 2015년 프로그램은 우리의 역사와 현재를 시각예술을 통해 살펴보고 미래의 가능성을 조망하는 기획전 및 주목할 만한 국제적인 중견 작가의 개인전 등으로 구성 • 무엇보다도 전시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 자체를 리서치, 토크, 워크숍, 출판물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람객과 공유하고자 결과보다는 '과정 지향적인(process-oriented)' 전시의 형식 자체를 새롭게 실험하고자 했음. 또한, 국내외 기획자 및 해외 기관과의 활발한 협업을 통해 국제 교류에 일조하고자 했음
사업운영	• 전시주제와 맞게 작가들과 함께 공간을 연출한 부분에 주목. 결과보다는 과정과 소통이라는 시대적 전시미학에 발맞추어 배너, 주변 건축 곳곳까지 활용하여 미술관과 주변전체를 예술화 시키고자 하였음 • 2015년 아트선재센터는 2, 3층 전시장에서 연 6회 전시를 기획했으며, 이와 함께 전시장 외의 미술관 안팎의 유휴 공간 및 공공공간을 활용하는 퍼블릭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했음. • 특히, 공간운영에 있어 2014년부터 미술관의 역할에 대한 고민 끝에, 카페와 레스토랑 같은 상업시설 대신 교육 및 프로젝트 공간을 확장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임 • 현재 미술관 곳곳의 건축적 요소를 변모시키는 '아트선재 공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으며 1층 공간을 재정비하여 '아트선재 프로젝트 스페이스'로 활용하고 있음.
사업성과	• 올해 총 9회의 전시를 기획했는데 대부분 장기간에 걸쳐 리서치되고 준비되어 수준 높은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음. 교육과 미술관 주변 전체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관람객층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음. 기획 역시 다양한 큐레이터군들과의 협업으로 풍부한 컨텐츠를 보여줌 • 아트선재센터는 동시대미술의 흐름을 소개하는 국제적인 수준의 전시를 개최하여 미술의 영역과 경계를 확 장하는 감상의 기회를 제공 • 아트선재센터는 개관 이래 국내 작가의 국제미술계 진출을 위한 교두보적 역할을 하고자 국제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 이러한 교류를 통한 연구 결과를 책자와 웹사이트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장기적인 교류의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힘쓰고 있음
종합평가	• 국내외 큐레이터들의 협업과 함께 사회정치적 이슈를 주로 다루는 대규모 전시들을 선보였고 한국에 소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작가들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 특히 리얼 DMZ전시는 연구된 리서치의 결과물로 실현의 계획과 실현한 것의 차이를 볼 수 있게 한 결과물이었음

13 스페이스빔

◆ 공간개요

공간구분	• 대안공간
공간소재지	• 인천광역시 동구 서해대로 512번길 15
공간설립일	• 1999년 1월
시설현황	• 1 전시실, 사무실, 세미나실, 아카이브룸, 교육공간, 창작공간 등
지원예산	• 50,000,000

◆ 공간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

○ 지역적 문맥과 맥락 속에서 제반 시민 문화 예술 활동 주체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성화

○ 창작자와 수용자의 위계적 이분화를 지양, 수평적 교류와 공유를 통해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예술적 접근과 시도를 이룰 수 있도록 거점 및 매개 역할을 담당

◆ 주요 추진계획 및 결과

구 분	추진계획	추진결과
주요기획전시	○ 배다리 도시학교: 인천시민 도시 상상·혁신 캠프 - 발표 & 아카이브 전시회	○ 임진환 사진전 <꿈꾸는 아이들> ○ 인문도시 지원사업 결과보고 전시 <골목 삶, 사람, 이야기> ○ 2015 배다리 도시학교 시민 도시 상상·혁신 캠프 결과보고 아카이브 전시
프로그램 (교육, 공연)	○ 배다리 도시학교: 인천시민 도시 상상·혁신 캠프 ○ 배다리 생태마을공동체 연중기획 프로그램: <배다리 풀·꽃 친구들> ○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 스페이스 빔 아카데미	○ 배다리 도시학교: 인천시민 도시 상상·혁신 캠프 ○ 배다리 생태마을 공동체 연중기획프로그램 <배다리 풀·꽃 친구들> ○ 2015 에코캠프 배다리밭캉스 ○ 배다리 전통주 학교 ○ 박병상 박사 초청강연+토론회 ○ 철학+공간 스터디
기타 행사	○ 지역·미술·문화 비평지 격월간 <시각> 발간 ○ 배다리 마을축제+금창동민의 날 ○ 빔 공간 활용 발표기회 제공 ○ 지역연계활동	○ 인문도시 지원사업 골목 인문 투어+콘서트 ○ 골목길 숨은 보물 찾기 ○ 배다리 DAY 날마다 달마다 ○ 지역·미술·문화 비평지 격월간 <시각> 발간

❖ 사업사진



배다리 도시학교<시민 도시·상상 혁신캠프>



배다리 밭캉스



골목길 숨은 보물찾기 아카이브전시



골목길 숨은보물찾기<현장탐방>

◆ 창작공간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사업기획	• 스페이스 빔은 유휴 공간 인천양조장으로 근대인천의 개항과 더불어 탄생하여 근대 우리 경제의 일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가치를 지닌 공간임 • 지역의 상황을 이해하고, 사라져가는 지역 도시의 흔적을 보전·복원하려는 기획 및 프로그램 들을 통해 스페이스 빔의 운영방향을 설정. 다양한 프로젝트와 스터디, 예술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각도로 발전시켜 인위적인 것이 아닌 자연적·환경적인 흐름과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서 교류와 소통을 통해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젝트 운영 방향은 무척 공공성을 띤 지역 문화예술활성화와 발전을 고려한 마스터플랜이라 생각함
사업운영	• <골목길 프로젝트>는 전문가의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골목살이 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다니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삶의 지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되었으며, 해당 주민 분들의 자기 삶에 대한 자긍심 고취되고, 골목길에 묻혀 있는 인문적 가치 재발견의 기회를 사업 진행 과정을 통해 도출해내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함 • 스페이스 빔은 전시, 공공미술, 도시 관련기획 등을 통한 지속적인 다양한 교류와 작가발굴을 함으로서 계속적으로 진행 중. '열린 도시공동체 인천'은 도시 포럼과 모임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이면서 바른 방향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반복적이지만 다양한 연계성을 가지고 해나고 있음
사업성과	• <골목 인문 콘서트+투어>는 인천의 중구 개항장에 집중되었던 근대문화에 대한 관심과 시선을 근대 산업화와 달동네 삶의 중심지였던 동구로 분산시켜내는 성과를 얻었다고 판단됨. 행정의 무관심 속에 사라져가는 문자자산의 보존 및 활용에 대한 공공 차원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평가함 •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도시 문화 공동체 공간으로서 자리매김 되고 있고, 곳곳의 활동 주체들과 열린 소통과 네트워크의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음 • 구체적이며 실용적, 예술성 있는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시민(주민)&지역사회의 신뢰도와 방향성을 이끌 내어 기획취지가 잘 전달되고 있고, 마을 곳곳이 공공 문화예술의 장소로서 공동체문화마을로 형성.
종합평가	• 스페이스 빔은 단지 '전시공간'에 국한된 예술가들만의 공간이자 단체가 아니라 지역 내외의 다양한 주체들이 관계 맺는 플랫폼으로 공간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도시 공동체를 만드는데 예술(가)적 관심을 기울여 다각적인 논의를 펼쳐내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함 • 특히 결과물보다도 실질적인 변화에 의미를 찾는 스페이스 빔의 활동은, 사회적 예술(Social Art)의 또 다른 사례로 평가할 수 있으며, 공공적 행동(Acts)과 예술(Arts)과의 관계에 대한 예술적 실험을 성실하게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공간 활동이라고 평가함.

14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 공간개요

공간구분	• 기타 공간
공간소재지	• 경상남도
공간설립일	• 1999년 1월
시설현황	• 1 전시실, 사무실
지원예산	• 30,000,000

◆ 공간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

○ 한국 작가에 대한 연구를 심화할 수 있는 공간

○ 실험성과 새로운 형식이 부각되는 전시 중심 기획

○ 현대예술을 다루는 영리, 비영리의 시스템 취약점을 보완하여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연구되는 공간

◆ 주요 추진계획 및 결과

구 분	추진계획	추진결과
주요기획전시	○ 기성작가 개인전: 새로운 단계 혹은 시도를 위한 작업을 제작함으로써, 예술창작의 유연성을 드러냄 ○ 신진작가 발굴전: PT&Critic 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작가의 미술대학으로의 홍보효과와 동시에 선후배 작가들 간의 교류를 도모 ○ 그룹전: PT&Critic을 통하여 작품에 대한 분석과 방향등을 점검한 뒤 2년 후 다시 해당 작가들이 모여 전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년 동안의 작업방향에 대해 서로 공유	○ 기성작가 개인전:한정림, 경현수, 이정형, 신광, 김다움, 박선민, 박윤삼, 이세준 ○ 신진작가 발굴전: 이신애, 이정엽 ○ PT&Critic :백경호 <cast away>, <2013 Reunion>
프로그램 (교육, 공연)	○ 기획자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해마다 기획자를 양성하는 학과에서 담당 전문가와 학생이 함께 전시를 기획	○ 신진기획자 양성 프로그램 : <short story long-장마> ○ 작가 연구 및 크리틱: 전시별 논의 및 상호의견 교환, 작가 인터뷰, 글 생산 및 검토 등의 순서로 9월부터 시행
기타 행사	○ 아티스트 토크: 전시별 희망 작가에게 아티스트 토크 자리를 마련해주고 보다 많은 관객들이 자신의 작품세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PT&Critic: 신진 작가와 선배 작가의 대화를 통하여 네트워크 확장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조언들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	○ 미술장터 : Blind date ○ 아티스트 토크

❖ 사업사진



경현수 개인전 <형태와 색채>



PT&Critic백경호 개인전<cast away>



PT&Critic 프로그램



신진기획자 양성프로그램<short story long>

◆ 창작공간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사업기획	• 현대예술을 다루는 영리, 비영리의 시스템 취약점을 보완하여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연구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모델 개발 • 공간이전(한남동-방배동)에 따라 전시공간이 확장 개선되어 작가들의 창작 발표 의욕 증진 • 현대 미술 시스템이 상업화로의 지나치게 편중된 취향을 개발하고 있는데 반에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보다 다이내믹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보여주어 이에 대한 취향을 개발,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함
사업운영	• 한국작가에 대한 심화연구의 전시공간운영. 국내작가들의 개인전을 통하여 입체적인 작가조명과 심화연구를 가능하게 하여 한국 현대미술의 다양한 현상을 창출하고, 관찰할 수 있는 연구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 • 예술과 현대 문화의 연관성을 제시하여 일반인들이흥미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강연 프로그램, 워크샵 등을 연구, 잠재 고객을 개발 창구 역할로 라운드 테이블 행사 진행
사업성과	• 컬렉터들을 대상으로 현대미술강좌를 개최하며 전시개막식에 참여시켜, 자연스럽게 작가들의 작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객개발뿐만 아니라 작품 소장에 관한 교육여건 조성 • 현대예술의 질적 발달을 꾀하는 미술공간운영에 있어서 영리, 비영리의 시스템 취약점을 보완한 독자적인 개발과 연구가 이뤄지는 공간으로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예술경영지원 센터의 지원 「2015년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사업 선정대상자인 <남서울 예술인마을 미술장터>의 기획으로 참여, 진행함으로써 현대미술의 새로운 성향의 미술시장 형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 • 정기적인 전문가, 신진작가들이 모임을 통해 작품 크리틱을 진행하여 교류가 이뤄지는 네트워크를 구축
종합평가	• 한남동 지하에서 운영하던 공간을 방배동으로 이전하여 전시공간이 2배 이상 확대되며 공간의 위항을 비영리 공간이나 대안공간보다는 새로운 모델로서 영리와 비영리의 절충적 위상을 지향함 • 공간의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창작생산자의 작품을 심도 있게 조명해 보고 연구하는 전시 형식과 그에 수반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록하여 한국미술의 발전은 물론 국제미술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만들어나가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설정이 좋은 공감을 일으킴.

15 미디어극장 아이공

◆ 공간개요

공간구분	• 대안공간
공간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30-8번지 2층
공간설립일	• 2007년 5월
시설현황	• 2 전시실, 사무실
지원예산	• 30,000,000

◆ 공간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

○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며 그로인해 서로간의 평등한 관계를 실현

○ 대안영상이라는 철학과 담론에 대해 끈임 없이 연구

○ 다양한 영상/미디어 전시를 통해 서로간에 소통하고 인정하는 사회를 위해 다양한 시선과 방식의 전시를 기획

◆ 주요 추진계획 및 결과

구 분	추진계획	추진결과
주요기획전시	○ 우리시대의 민속지 ○ 김우진 개인전 ○ 미디어극장 아이공 기획전 ○ 미디어극장 아이공 작가 재조명 ○ 심혜정 개인전	○ 우리시대의 민속지: 인류학 방법론으로 제시된 민속지학을 다룬 전시 ○ build up 김우진 전시 ○ Lifemale : 페미니즘에 대한 접근적 전시 ○ 기억의 장소1: 권혜원 전시 ○ All around VIDEO All around Voice 아카이브 전시
프로그램 (교육, 공연)	○ 대안예술 아카데미 ○ 특별강연 부대 행사	○ 교육프로그램: <우리시대의 민속지>음악과 민속지, 사진과 타자의 기록, 민속지적 영화 만들기의 진화와 변주, <lifemale> 특별강연회 및 음단Fe설 토크, lifemale 강연 ○ 대안예술 아카데미: 예술과 문화연구 프로그램, 어학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타 행사	○ 작가와의 대화	○ 인디다큐 페스티벌 ○ <기억의 장소> 전시 오프닝 및 낭독 퍼포먼서, 작가와의 대화 ○ <우연의 연대기> 아티스트 토크

❖ 사업사진



전시 오프닝 <Build up>



아티스트 토크<Lifmale>



All around video All around voice



건강한 카오스

◆ 창작공간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사업기획	• 1년 단위로 시대적 미술환경을 염두에 둔 기획과 민속지, 환경, 삶 그리고 여성의 페미니즘 테마, 서울 국제뉴미디어 페스티벌 장기적 기획을 통해 공간의 정체성을 꾸준히 만들어가고 확립시키고 있음 • 아이공은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대안영상이라는 매체적 담론을 통해 여성주의, 소수자적 시각, 보편성, 차별성, 정체성 등의 주변적 담론을 진지하게 연구해 왔음. 상설적인 공간 운영을 통해 젊은 작가의 전시나 일반관객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기본적인 기반을 마련했으며, 1년에 한 번씩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을 개최함으로써 집중적으로 주목을 시키는 두 가지 전략을 도모함
사업운영	• 연간 10여개의 전시와 병행해서 교육프로그램, 아티스트 토크를 통해 담론을 생성하고자 하는 노력과 15년간 진행되고 있는 서울 국제 뉴미디어 페스티벌의 기획공간으로 미디어작가들의 관심이 높은 공간 • 아이공에서 2015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대안예술아카데미는 2기에 걸쳐 5개 강좌를 개설함. 실험영화, 현대미술, 음악작곡, 즉흥연극 등 시민과 작가, 창작자와 연구가 등의 다양한 참여주체가 공유하는 열린 교육프로그램임. 자본주의를 너머 인권, 젠더, 평화, 생태 등의 가치를 지향하며 아이공의 철학을 공공화하는 적절한 방식임
사업성과	• 서울 국제 뉴미디어 페스티벌이라는 거대 기획안에 떠오르는 화두를 포착한 민속지에 대한 기획은 강대국의 힘 있는 자의 모습에서 쓰여진 타자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진정성을 반영한 민속학에 대한 전시와 교육은 21세기의 예술의 새로운 지형을 만드는데 의미가 큼 • 전시는 신진작가 지원, 아이공 기획전, 유료대관전, 후원전, 인턴지원전 등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음. 그 중 에서 기획전 <우리시대의 민속지>는 2014년 8월, 제14회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의 주제였던 '우리 시대의 민속지'를 인접 예술장르로 확장하여 연속성을 가져서 더욱 좋았음. 또한 인문학적 주제를 최근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작가의 작품과 음악과 영화 등의 장르와 접목시킨 특별강연을 함께 마련하여 더욱 효과적임
종합평가	• 1세대 대안공간으로 영상매체만을 다루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외부와 함께하는 서울 국제 뉴미디어 페스티벌을 제외하고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음. 민속지, 페미니즘, 신진작가발굴 등의 중장기 계획아래 시대적 주제를 결과물만 아니라 연계하여 많은 작가들과 관객들이 관심을 갖는 담론으로 발전시켰으면 함. • 현재 1명의 디렉터위주의 기획과 인턴이 운영하고 있어 좀 더 인력이 보충되어 파급력이 있기를 바람. 온라인과 홍보를 통해 좀 더 적극적인 운영을 할 필요가 있음 • 아이공은 2015년 봄 공간을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운영상의 변화를 주었음. 이는 단순히 공간의 이전 뿐 아니라 창립 15년 즈음에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봄. 또한 네마프에 기해 열렸던 아카이브 전시나, 아카데미 같은 교육 프로그램처럼 외부와 소통하는 방식에 있어 외연을 넓혔다는 점이 모범적이었다고 보여짐

16 스페이스캔서울/오래된집

◆ 공간개요

공간구분	• 대안공간
공간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18길
공간설립일	• 2008년 12월
시설현황	• 3 전시실, 사무실, 교육공간
지원예산	• 30,000,000

◆ 공간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

○ 다양한 작가군의 전시 기획 및 다원화된 장르의 작가 발굴

○ 어린이 창작 체험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도모

○ 문화소외 지역뿐 아니라 긴급재난지역 방문, 환우 및 환아를 위한 프로그램 실행하면서 역량 있는 작가군을 확보

◆ 주요 추진계획 및 결과

구 분	추진계획	추진결과
주요기획전시	○ 기획전시: 하우스워밍 프로젝트, 장마 프로젝트, 오래된 집 재생프로젝트(레지던시 보고전)을 통해 추위에 약하고 여름에 습기를 뿜는 토벽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젝트를 기획	○ 하우스워밍 프로젝트: 유나킴<박영선씨의 방>, 박윤주<동생의 애인의 아버지의 딸> 등 ○ 아트버스 캔: 버스x미래소망스쿨- 손혜민&존리어든 배너프로젝트, 버스x예사랑지역아동센터x이승현 악동드로잉 ○ 오래된집 재생 프로젝트: 김인숙<가족이 되는 집>, 장마프로젝트 강민정<젊음의 샘> 등 ○ 버스에서의 만찬
프로그램 (교육, 공연)	○ 레지던시: 오래된집의 유지와 활용방법을 함께 고민할 작가를 모색 ○ 독일 창작공간 및 교류/프로모션 거점 마련	○ 레지던시 : 베를린 PSB-ZKU에 2명의 작가를 선정하여 3개월 동안 해외작가들과 교류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기타 행사	○ 창작체험 프로그램: 지방 지자체 커리큘럼 기획 및 진행, 환우들을 위한 커리큘럼 기획 및 진행, 기업 임직원들을 위한 커리큘럼 기획 및 진행	○ 2015 아트버스 프로젝트 캔버스 창작체험 프로그램 ○ 지멘스와 함께하는 아트버스 프로젝트 ○ 2015 스페이스 캔버스 썸머아트캠프 ○ 어포더블아트페어x아트버스프로텍트 캔버스 아동창작체험 스튜디오 ○ 네이버 엔젤스와 함께하는 아트버스 프로젝트 캔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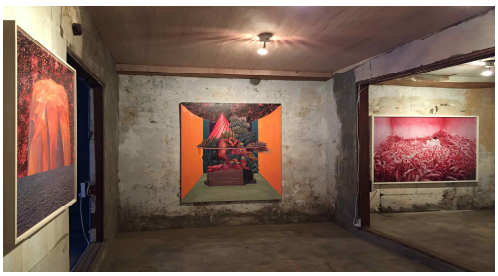
❖ 사업사진



아트버스 프로젝트 캔버스<창작체험 프로그램 결과보고 전시>



박승예 개인전



버스에서의 만찬



오래된 집 11기 장마프로젝트

◆ 창작공간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사업기획	• 레지던시를 통한 국내외 미술계와의 교류뿐만 아니라 캔 파운데이션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성북구 주변의 다양한 문화단체들과 교류하여 일종의 문화예술지구(地區)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표를 주목 • 스페이스 캔 서울 공간과 오래된 집을 운영하면서 시각미술가가 창작 작업에만 전념하여 보다 수준 높은 작품을 세상에 던질 수 있는 환경의 융합공간인 즉, 전시, 레지던시, 창작교육활동, 공공미술참여 등의 활동 시스템을 운영하며, 파운데이션이 작가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운영기획이 독특
사업운영	• 한 작가에 대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자 하겠다는 목표도 이후 결과들을 기대하게 하였음. 오래된 집 '결혼 피로연' 등과 같이 레지던시 및 전시를 통해 동네축제처럼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이끌어내는 마당을 마련했다는 점을 평가함. • 캔 파운데이션은 지속적으로 추진한 전시/레지던시/창작체험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운영의 안정을 꾀하는 진행을 하였음. 기존 공간의 활용분할로 전시, 아카이브 공간들의 쓰임으로 부족한 전시공간으로 확보된 <오래된 집>은 캔 파운데이션 근접에 있는 근대한국의 정서가 녹아내린 전통한옥 공간을 활용하여 전시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특색 있는 전시와 프로젝트를 운영
사업성과	• '예술을 통한 문화향유'라는 캔 파운데이션만의 목표를 위한 전시, 레지던시, 교육프로그램 활동이 유의미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사회적 기업으로서, 사회공헌프로그램(미국 비영리단체 Seeds of Empowerment와 MOU체결, 공동 프로젝트 진행, Affordable Art Fair Seoul의 공식 어린이교육 파트너로 참여)등을 통해 홍보를 극대화해낸 부분을 평가함 • 캔파운데이션의 공간활용은 시각예술가들의 생산물들이 사회에 미칠 영향과 교감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본바탕에 깔려 있으며, 창작에 전념하는 작가를 대신하여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인 캔파운데이션은 사회적 역할이 확대되는 구조를 구축 운영
종합평가	•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소외지역의 문화향유 기회 활성화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었다고 판단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작가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 국내외 네트워크를 강화시켜 내고자 한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 •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캔 파운데이션이 향후 자립 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 기획들에 대해 주목하며, 특히 모듈화(化)의 경우 이후 지속적인 연구와 토론을 통한 공론화 과정 등이 지속되기를 기대함 • 창작생산자와 창작소비자(감상자) 더 나아가 창작물을 흡수하는 사회전반적인 인프라 및 공간이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사회적 심리적 역할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시스템은 적극 가동한다는 점이 스페이스 캔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성을 지녔음

17 통의동 보안여관

◆ 공간개요

공간구분	• 대안공간
공간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2-1
공간설립일	• 1999년 1월
시설현황	• 1 전시실, 사무실
지원예산	• 30,000,000

◆ 공간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

○ 순수예술과 서브 컬처를 포함한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발굴 및 양성

○ 예술과 사회의 경계를 넘나드는 대안적이고 경제적인 삶을 위한 프로젝트 개발

○ 미술과 공연, 연극, 음악 등 예술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문화콘텐츠 개발

◆ 주요 추진계획 및 결과

구 분	추진계획	추진결과
주요기획전시	○ 생활밀착형 예술사업/리서치 아트 프로젝트 발굴: <마데인서울(made in seoul)>, <롤링 1942 (rolling 1942)>, <두럭 (DoLuck)>	○ 두럭(DoLuck): 1000만원 TV, 장수의 비결, 오빠생각, 그림자가 드리운 순간, J에게 ○ 일맥아트프라이즈 수상전 ○ 롤링 1942 프로젝트: 롤링 1942 리서치의 결과 보고 전 ○ 마데인서울(Made in Seoul)
프로그램 (교육, 공연)	○ 해외교류 프로젝트: 루나포토페스티벌(Lunar Photo Fest) ○ 레지던시 컨텐츠 지원: '초량 1925'	○ 2015 서울루나포토페스티벌: 사진매체의 새로운 감상법을 제안하는 포토필름 축제 ○ 교육프로그램 두럭: 젊은 예술가를 선별하고 주체적 스터디를 도모하여 작가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공유하는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
기타 행사	○ 일맥아트프라이즈(Ilmac Art Prize): 대안적인 생활과 예술을 실천하고 고민하는 예술가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시상제도 ○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세모아(세상 모든 아마추어) 프리마켓	○ 일맥아트프라이즈 시상 ○ 프리마켓 세모아: 지역친화 프로그램으로 예술가와 지역민의 참여 프로그램 ○ 롤링 1942 프로젝트 리서치: 보안여관 상량문 기록년도에서 확장하여 근대적 문화지형 여행을 모색하는 프로젝트 ○ 아카이브 보안백서: 보안여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과 역사, 문화, 인물에 관한 아카이브 및 스터디 자료 조사

❖ 사업사진



일맥아트프라이즈 수상작가전



롤링 1942 프로젝트<리서치>



2105 서울루나포토페스티벌



고재욱 개인전

◆ 창작공간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사업기획	• 보안여관주변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의 정체성에 대한 생활밀착형 전시를 통해 공간 프로그램의 특성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인근 주변 문화공간과 예술인들의 네트워크를 내부전시나 인문학적 시각으로 끌어들인 독특한 기획이 눈에 띔 • 통의동 보안여관은 서촌에 위치하여, 노후한 장소 환경을 오히려 공간의 정체성 삼아 사이트 스페시픽한 작업들이 탄생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함
사업운영	• 대안적인 생활과 예술을 실천하고 고민하는 예술가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시상제도로 일맥문화재단과 통의동 보안여관이 공동 기획하여 창작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맥 아트프라이즈가 올해로 3회를 맞았음. 3회는 1인 선정으로 예술인에게 수상금과 전시지원 등 수혜의 폭 증가시킨 것은 매우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모색한 것으로 보임
사업성과	• 다양한 장르의 젊은 작가들의 발굴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나 기술을 공유하는 워크숍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후 윈도우 갤러리에서 전시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으로 공간과 작가 관람객들의 지속적인 만남이 이어지고 있음. 전시오프닝과 함께 시도되는 작가와의 대화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 좋은 기회라고 여겨짐 • 한 해 동안 500여명의 국내 및 국제 예술인들이 참여하였고, 5만 여명이 훨씬 웃도는 관람객 수는 미술관이 아닌 창작공간으로서는 올리기 어려운 매우 많은 수치임. 특히 서울루나포토페스티벌은 서촌 중심의 지역 친밀한 태도와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예술계 전문가부터 대중까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축제로 자리 잡았음.
종합평가	• 보안여관 장소특정을 주로 다루는 전시와 교육프로그램, 페스티벌 등을 기획하여 공간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음. 그것이 장점이면서 동시에 현대미술 안에서는 지엽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순수예술과 비예술의 틈 사이에 있는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은 시대적 요구이며 서촌을 방문하는 많은 관람객들과 친근하게 소통할 수 있음. • 다만 2-3인의 운영인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기획은 질적 하향이라 결과를 낳게 할 것 이라는 우려를 갖게 함. 장소성과 현대미술의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와 리서치를 통해 공간의 정체성을 확립하기를 바람 • 한 해 동안 <롤링1942>, <made in seoul>, <보안백서>와 같이 생활밀착형 예술을 발굴하고 지역과 소통하고 예술을 향유하는 보안여관의 공간 운영 목표에 상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음. 매해 전년도와는 다른 방식에서 공간 운영을 고민하고, 각 프로그램마다 시대의 흐름을 투영하는 문제의식이 돋보였음

18 현대미술연구소&아트스페이스펄

◆ 공간개요

공간구분	• 대안공간
공간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당산로 90번지 4층
공간설립일	• 2009년 9월
시설현황	• 1 전시실, 사무실, 세미나실
지원예산	• 20,000,000

◆ 공간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

○ 지역 신진작가 발굴 및 육성 및 대구지역 중견작가 프로모션

○ 100% 자체기획 전시로 운영

○ 국제교류를 위한 인적네트워크 확립

○ 대구 예술인을 위한 인문학 강좌

◆ 주요 추진계획 및 결과

구 분	추진계획	추진결과
주요기획전시	○ Nomadic Imagination: 유목적 상상이라는 테마로 중국과 한국에서 전시 기획 진행 ○ 신진큐레이터 인큐베이팅 전시: 지역에서 활동하는 큐레이터 발굴 프로젝트 ○ 중견작가 개인전 ○ 신진작가 개인전 ○ 청년작가 개인전	○ 썰전: 지역 예술가 소그룹의 활동을 살펴보고 비전을 제시하는 토론과 아카이브 전시 ○ 몸과 혼: 일본의 지역작가와 한국의 지역작가의 사진전시 ○ 편도여정: 중각 항주에서 활동하는 황우철 작가 개인전 ○ 유목적 상상: 중장기 프로젝트 ○ 아시아 인터위빙: 중장기적 프로젝트의 프리뷰 전시 ○ 현대미술연구소 전시기획 아카이브
프로그램 (교육, 공연)	○ 영프로(0%): 신진작가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 ○ Asia Interweaving : 해외 큐레이터들 간의 교류를 목표로 하며 워크샵과 심포지엄, 전시를 포함, 중 장기적인 아시아 네트워크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프로젝트	○ 영프로(0%): 신진작가 발굴 육성 프로젝트, 워크샵과 토론 ○ 전문예술인을 위한 인문학 강좌 ○ 아트스쿨
기타 행사	○ 아티스트 토크(똑똑똑): 예술가 및 전문가의 삶과 예술에 대한 토크	○ 작가워크샵: 작가와 1회 이상 워크샵 추진

❖ 사업사진



썰전 세미나



영프로 전시 작가와의 대화



인터위빙 전시



전문예술인을 위한 인문학 특강

◆ 창작공간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사업기획	• 대안공간으로서 대구현대미술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할만한 수준 높은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추진, 그리고 세미나 등이 기획 단계부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일반적인 미술전시와 차별되는 다양한 워크숍을 진행하여 미술문화 담론에 기여하는 의도의 프로그램기획은 대안공간의 정체성에 접합함
사업운영	• 전문성이 뛰어난 인력구성으로 수준 높은 전시기획과 함께 우수한 수준의 세미나가 추진되어 시대의 이슈를 다루는 출판물 등이 발행됨 • 소규모의 전시공간이지만 수준 높은 프로그램의 기획으로 완성도가 높은 전시를 기획하였고, 지역사회의 애호가들에게 문화적 감흥을 주는 다양한 만남을 주제함 • 여타의 다른 기관 및 단체와의 공동주최 및 협업구조를 이루어 원하는 목적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
사업성과	• 우수한 작가 선정과 밀도 있는 진행으로 지원사업 목적에 부합하며, 특히 대구현대미술의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전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찾아오는 관람자 혹은 동료 미술계 인사들과 수준 있는 미학적 대화의 소통이 지역사회에서 일종의 담론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며 이러한 시도는 지역미술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평가됨 • 일차적인 전시의 생산적인 결과를 또 다른 생산물로 창조해나가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부재가 아쉬우며, 이러한 연유로 전시장을 찾는 관람자는 소수에 한정됨
종합평가	• 작가발굴 및 우수한 연구와 출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안공간으로서 대구현대미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을 바람 • 전국적으로 작가 인큐베이팅 기능을 하는 대안공간들이 점차 사라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미 노하우가 축적된 이런 기관들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호와 지원이 우선되길 바람 • 대안공간의 특성은 다양한 다수의 커뮤니티를 이루며 사업을 진행하는 특성이 있으나 현대미술연구소 아트스페이스펄은 소수(2인)위주의 사업진행으로 자칫 폐쇄적이며 개인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오해 소지가 있음. 이러한 부분이 장점과 단점으로 평가됨 • 지역사회의 미술애호가를 중심으로 연구회, 토론회, 자원봉사회 등을 추진하면 좋을 듯함

19 사비나미술관

◆ 공간개요

공간구분	• 사립미술관
공간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49-4
공간설립일	• 2002년
시설현황	• 3 전시실, 사무실, 교육공간
지원예산	• 60,000,000

◆ 공간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

○ 차별화된 전시 기획과 중진작가의 실험적 창작의 기회 마련

○ 지역공동체로서의 열린 미술관

○ 미술관 특성을 반영하는 작품 소장 및 관리

○ 미래형 스마트 미술관으로의 모바일 관람객 서비스

◆ 주요 추진계획 및 결과

구 분	추진계획	추진결과
주요기획전시	○ 개인전: 한국현대미술사의 중추역할을 하는 중진작가를 중심으로 내용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은 실험적인 작품세계 발현의 장 마련, <성동훈>, <베른트 할프헤르 개인전> ○ 기획전: 융합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다각적 해석을 담을 수 있는 기획전 개최, <아티스트 포트폴리오>, <Evocative Objects-내 인생의 의미있는 사물들>	○ 개인전: 성동훈<Fake of the Kingdom>, 베른트 할프헤르 <Intersections> ○ 기획전: Artis's Portfolio, Color Study
프로그램 (교육, 공연)	○ 교육: 문화가 있는날 <Drawing Challenge>, 직장인을 위한 문화회식프로그램 <Art Get-Together>, <나는 미술관으로 브런치하러 간다>, 청소년을 위한 미술관 진로탐색 프로그램 <우리는 아름답다>, <미술로 배우는 창의성의 비밀>, <전시연계형 STEAM 교육>	○ 대상별 프로그램: 나의 꿈 포트폴리오 만들기, 포트폴리오 이렇게 만든다, 상상플러스 어린이 조각왕궁, 브런치 프로그램<Art-Brunch>, 창의력 팡팡 재미있는 color fan실험실, 우리는 그림 읽으러 미술관에 간다, 요리조리 풍경 속 풍경제작소
기타 행사	○ 학술: 전문가와 함께하는 세미나, 전시연계 워크샵, 작가와 관람객의 대화를 위한 아티스트 톡 ○ 인터넷 방송 및 사비나채널 동영상 서비스 ○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관람객 서비스	○ 강좌: 포트폴리오 이렇게 만든다 ○ 전시연계 아트토크: 성동훈, Artist's Portfolio, Color Study, 베른트 할프헤르 ○ 전시설명 프로그램 ○ 특별강좌: 나의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만든다, 내 전시는 내가 만든다, 예비 큐레이터를 위한 특별강좌

❖ 사업사진



Artist's Portfolio Ⅱ



성동훈 개인전<뮤지엄 콘서트>



Color Study<color fan 색상혼합 체험>



브런치 프로그램

◆ 창작공간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사업기획	• 국내 레지던시 및 카이스트 등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160여 명의 예술가와 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관람객에게 보다 다양한 현대미술을 소개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전시에 대한 학술적 전문성을 확보했다는 점
사업운영	• 교육, 세미나, 아티스트 토크를 매 전시마다 개최함으로써 일반인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였음. 2015년은 미술계 전문인들을 위한 강좌 프로그램과 일반인을 위한 뮤지움 콘서트 등을 통해 전시감상뿐만 아니라 음악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젊은 관람객의 호응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주목 • 사비나미술관의 기획전은 시대의 관심사를 주제로 구성하며 역량 있는 중견작가의 개인전을 지원함으로써 작품세계의 심층적인 접근과 다각도적인 분석의 기회 마련하였으며 전시장과 세미나실을 적극 활용하여 학술적 담론을 제시하는 세미나 및 전시연계 아티스트 토크를 매 전시 개최, 각 분야의 전문가와 일반인들의 토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음 • 특히 사비나미술관은 다양한 온/오프라인 관람객 서비스를 실시함. VR을 통해 온라인에서도 전시를 감상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외 E-book, 사비나채널, VR도슨트 등 웹과 모바일을 이용한 다양한 관람객 서비스를 통해 관람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만족도를 증진
사업성과	• VR을 통한 온라인 전시를 감상, VR도슨트 프로그램을 구축, E-book, 사비나채널, VR도슨트 등 웹과 모바일을 이용한 다양한 관람객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뮤지움으로의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 국내 레지던시 및 카이스트 등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예술가와 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관람에게 보다 다양한 현대미술을 소개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아티스트 포트폴리오 전을 통해 참여 작가들은 포트폴리오의 개념을 지금껏 시도하지 않았던 제작 방식의 탐구이자 자신의 작품세계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장치로서 작품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고, 관객들은 다양한 분야의 포트폴리오 사례를 통해 실제 포트폴리오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
종합평가	• 미술관 안에서, 미술전시 뿐만 아니라 음악공연도 실시함으로써 고객층을 보다 확장시켜낼 수 있었음. 웹과 모바일을 이용한 다양한 관람객 서비스를 통해 관람객 편의를 높이고, 디지털 뮤지움으로의 활동 영역을 확장해내었다는 점에서 이후 활동을 기대하게 함. • 먼저 <아티스트 포트폴리오>는 미술계에 입문하고자 하는 많은 예비작가와 기획자들에게 포트폴리오의 다양한 사례와 기능, 그리고 작품으로의 가능성을 선보임으로써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음.

20 환기미술관

◆ 공간개요

공간구분	• 사립미술관
공간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40길 63
공간설립일	• 1992년 11월
시설현황	• 5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 연구실, 도서실 교육실, 자료실
지원예산	• 50,000,000

◆ 공간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

○ 수화 김환기의 예술정신을 기리고 그의 작품을 연구, 전시

○ 한국 근현대 추상미술 및 당대 작가들에 대한 연구, 전시

○ 다원예술의 지향, 매체 변이에 대한 해석, 전시

○ 한국 미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림

◆ 주요 추진계획 및 결과

구 분	추진계획	추진결과
주요기획전시	○ 특별기획전: <김환기의 뉴욕시대, 추상정신과 숭고의 미학> ○ 다원예술프로젝트: <영원성의 원형-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 환기재단 작가전: 진유영, 빛 위에 그리다 ○ 환기미술관 판화 소장품전 ○ 환기미술관 공모작가전: <영원의 하모니> ○ 수향산방 재개관전 <수화와 향안의 집>	○ 환기미술관 특별기획전<김환기의 뉴욕시대: 추상정신과 숭고의 미학> ○ 환기미술관 다원예술프로젝트 <1970,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이후> ○ 환기재단 작가전: <진유영, 빛 위에 그리다> ○ 환기미술관 창작공모작가 <진실한 남자>, <FACE> ○ 환기미술관 판화 소장품전<판화와 사진으로 보는 김환기의 Timeline> ○ 수향산방 재개관전<수화와 향안의 집>
프로그램 (교육, 공연)	○ 환기미술관 어린이 아카데미 ARThink(아트띵크) ○ 환기미술관 성인 미술강좌 ARTable(아트테이블) ○ 환기미술관 청소년 방학 프로그램 ARTCamp(아트캠프) ○ 환기미술관 아웃리치 교육프로그램	○ 치매노인 예술교육-환기미술관 노크 프로젝트<마음의 문을 두드리다> ○ 환기미술관 어린이 아카데미 ARTink ○ 성인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타 행사	○ 환기미술관 문화복지 사업: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프로그램, 구립청운실버센터,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아트힐링 프로그램 ○ 환기미술관 전시설명 프로그램 ARTalk(아트토크)	○ 환기미술관 전시연계 도슨트 ○ 2015 뮤지엄페스티벌-환기 프로젝트(zero) ○ 문화가 있는 날 연계 프로그램 -ARTon-예술로 소통하기 ○ 김환기 카탈로그 레조네 유화편 ○ 김환기 구술채록 사업

❖ 사업사진



특별기획전<1970,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만나랴>



환기미술관 창작공모전<FACE>



환기미술관 노크 프로젝트(치매노인)



환기미술관 ARTon 프로그램

◆ 창작공간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사업기획	• 미술관의 전시기획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3년 전부터 기획 진행하고 있음. 김환기 작가미술관인 만큼 작품의 주제와 시대별로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연구가 병행되어 기획되고 있는 점이 우수 • 2015년 특별기획전 <김환기뉴욕시대: 추상정신과 숭고의 미학>, <1970,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이후>는 그 일환으로 기획된 심도 있는 전시기획임. 그 밖에 환기의 정신을 이어받는 중진작가와 젊은 작가, 그리고 환기작품의 테마와 연결된 일관된 전시기획은 미술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수준 높은 기획임
사업운영	• <김환기뉴욕시대: 추상정신과 숭고의 미학>의 경우 전관에서 주제별로 구체적인 작업을 통해 작품이 진화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전시연출로 1층에서는 문자추상회화를 다루고 2층에서는 다양한 실험적 구도로서 유화와 비공개 드로잉 120여점을 새롭게 선보임. 3층에서 김환기의 우주적공간을 명상적으로 체험하며 김환기의 깊은 내면의 추상적 세계로 인도한 수준 높은 전시였음. <1970년,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만나랴 이후>전은 다양한 기관에서의 대여와 테마를 해석한 문학, 연극, 사진, 설치작가가 전시를 풍요롭게 해석하게 하였음. • 전시는 미술관전관에서 진행되었는데 사업의 주목성을 위해 예산집행을 단계적으로 집행함으로서 손실을 줄인 것이 눈길을 끔.
사업성과	• 테마별로 공간을 활용한 공간연출과 함께 시각적체험이 정신적이며 총체적인 사유적 체험으로 이어지도록 구성해 대중에게도 어렵지 않으면서도 예술적 수준을 잃지 않은 전시였음. 환기미술관의 전 공간에서 판화, 젊은 작가 발굴, 수화와 양안의 삶 등 김환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시가 이루어져 아름다운 경관과 풍성한 볼거리가 많은 전시였음 • 김환기의 점화가 탄생하기까지의 여정을 단순한 설명이 아닌 드로잉을 이용하여 시각적 사유가 감각의 사유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구성한 전시로 드로잉들로 구성된 공간의 힘에 의해 연구자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좋은 반향을 일으켰음
종합평가	• 김환기의 작품을 오래 전부터 연구하면서 타 기관과의 대여로 이루어지는 전시기획으로 작가의 작품을 새롭게 조명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 부암동지역의 관광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 미술관 방문객 숫자도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의 미술관의 사업은 기대를 할 수 있음. 수화의 작업실과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수화와 양안의 집>인 수향산방이 함께 개관하고 있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미술관은 활성화 되고 있었음. • 전시를 통해 김환기작품연구, 현대미술가유입을 통한 전시는 미래 세대들에게도 좋은 귀감을 자아내고 있으며 전시와 더불어 환기재단 창작공모전을 통하여 외국에서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을 지원하고 소개하는 활동 또는 지역과 연계교육 및 지역의 치매어르신들의 인지능력을 고양시키는 교육프로그램 또한 매우 괄목 할 만하였음.

21 아트스페이스 휴

◆ 공간개요

공간구분	• 대안공간
공간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광인사길 68
공간설립일	• 2003년
시설현황	• 1 전시실, 사무실
지원예산	• 40,000,000

◆ 공간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

○ 시각예술과 협업 가능한 인접분야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

○ 경기도 서북지역과 서울을 연결하고 파주지역의 창작인프라 구축

○ 미술프로그램을 위한 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 주요 추진계획 및 결과

구 분	추진계획	추진결과
주요기획전시	○ 개인전: 박준범<규모와의 놀이>, 빠키(Vakkki Park) 개인전, Kaiyp(이우준)+김철유 2인전 ○ 기획전: <만화가게 뒷방문을 열면>, <The Hours_그리고 만나다>, <깊이에 관한 한 연구>	○ 개인전: 박준범<규모와의 놀이>, 김창영개인전, 김철유+카입 2인전, 빠키 개인전 ○ 기획전:<칸 퍼레이드>, <The Hours, 그리고 만나다>, 깊이에 관한한 연구> ○ 교류전<동종업계 같지만 다른, 다르지만 같은
프로그램 (교육, 공연)	○ 휴+네트워크 창작 스튜디오 오픈스튜디오 ○ 파주출판도시 기존 네트워크 확대	○ 지역연계 교육프로그램: <살아있는 도시>(출판도시입주 기업협의화 공동 추최)
기타 행사	○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협업기업 연계 관객 개발 ○ 아티스트 토크	○ 작가와의 대화 및 질의응답 ○ 아트스페이스 휴 자료집 출품: 작가와의 대화 프로그램의 내용은 텍스트 작업을 거쳐 사후 제작되는 자료집에 게재, 다양한 형태의 인터뷰와 작가노트, 녹취 등 보다 확장된 개념의 텍스트를 적극 활용한 자료집 제작 ○ 아티스트 토크

❖ 사업사진



2015 김철유 + 카입 2인전



2015 빠키 개인전



2015 교류전 동종업계 부대행사 포럼



2015 지역연계 교육프로그램<살아있는 도시>

◆ 창작공간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사업기획	• 13년간 신진들을 육성하기 위한 대안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고, 특히 대중문화와 연계된 현대미술의 재조명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특히 파주출판단지 내에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미술구역을 조성하기 위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활동함 • 열악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과의 협업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종근당<예술지상>전) • 아티스트 톡과 지역의 레지던시를 연결한 전시운영 노력
사업운영	• 지역 내 출판사 건물에 입주한 레지던시 작가나 지역의 갤러리, 뮤지엄과의 사업적인 연대를 구축, 미술 불모지와 같은 지역에 시각예술분야의 독보적 활동을 유지함 • 종근당 등 유관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한 재정여건개선, 대중친화적 이미지와 소재를 현대미술의 문맥 속에서 재해석하는 작업을 지속함 • 재원의 부족 등 물리적 한계와 지역의 전문 인적자원부재로 사업이 풍요롭지 못하며 대부분 아카이브적 성격의 전시프로그램을 수행
사업성과	• 매월1회 전시를 개최하여 총 13건의 전시를 수행하며 휴창작네트워크를 가동하여 활동함 • 군산의 여인숙 등 타지역의 창작스튜디오들과의 협업 및 공동전시 등을 통해 파주지역에 국한된 공간으로서의 위상을 탈피하고 있음
종합평가	• 대안공간 휴는 홍대 앞의 청년창작활동의 중심지로부터 파주 출판단지라는 시각예술활동의 불모지로 이전하여 출판단지의 유휴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미술운동을 펼치고자 하고 있음.(새로운 대안적 방향을 적절히 선택함) • 실제로 휴의 이전과 함께 본래 출판단지에 산재하던 지역 작가들의 스튜디오를 휴창작네트워크로 묶어내는 역할을 하며, 전국의 대안공간협의체들의 연례 전시행사와 학술행사를 펼쳐 지역의 새로운 재생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함 • 하지만, 서울로부터 30Km 이상 떨어진 지정학적 여건으로 이상을 펼치기엔 많은 한계가 있음 • 하지만 휴의 노력으로 기업과의 협찬, 전시작가들의 유관기관들로부터의 수상실적 등 많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음. 또한 지속적으로 대중문화를 기반으로 이를 현대미술로 재해석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 휴의 정체성을 확보해가고 있음

22 800/40

◆ 공간개요

공간구분	• 대안공간
공간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7
공간설립일	• 2012년 12월
시설현황	• 1 전시실, 사무실
지원예산	• 10,000,000

◆ 공간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

○ 농촌지역의 문화 공간 활성화 및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

○ 창작과 향유 그리고 소통의 지점으로서의 대산미술관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향유의 확산에 초점을 둔 대산미술관

◆ 주요 추진계획 및 결과

구 분	추진계획	추진결과
주요기획전시	○ 기획전시: 행동, 행외 특정적 작업 진행, <세운상가 좋아요, 대림상가 좋아요, 청계상가 좋아요>, 800/40<800/40 체육대회>, <사생대회>, <브라질 여자단>, <고려인 삼단> 연계전시	○ <권미원은 장소 특정적 미술이 주변 환경의 맥락에 의해 형식적으로 규정되거나, 방향성이 유도되는 식으로 그 환경의 일부가 된다고 생각한다> ○ <30분과의 마주침:당신의 30분을 기부받습니다> ○ <24시간 전시-김정화 레지던시> ○ <후우후우, 나이스> ○ <예술화폐 프로젝트>
프로그램 (교육, 공연)	○ 지역연계 프로그램: <세운상가 좋아요, 대림상가 좋아요, 청계상가 좋아요> ○ 해외기관, 작가교류 : 칠레 <AK-35> 작가 교류	○ 페스티벌<세운상가 좋아요, 대림상가 좋아요, 청계상가 좋아요> ○ 레지던시<24시간 레지던시> ○ 전시 및 공연<Monkey, Monkey Shake Shake>
기타 행사	○ 이벤트: 800/40<800/40 명랑 체육대회>, <사생대회>, <7시부터7시까지-from 7 to 7> ○ 워크샵: 작가 및 큐레이터 대상 워크샵 <라운드테이블>	○ 이벤트 :<톡톡, 잘 부탁해>, '별 하늘은 타임머신-은하철도의 밤>

❖ 사업사진



세운상가 좋아요, 대림상가 좋아요, 청계상가 좋아요



김정화 24시 레지던시



Monkey Monkey Shake Shake



30분과의 마주침

◆ 창작공간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사업기획	• 800/40 자체가 하나의 전시 공간이자 예술 플랫폼의 역할을 도모하겠다는 공간의 정체성을 토대로 하여, 페스티벌 <세운상가 좋아요, 대림상가 좋아요, 청계상가 좋아요>를 비롯한 프로그램을 통해 을지로 세운상가 일대 예술생태계를 생성하는 구심점의 역할을 도모하는 일련의 기획들을 주목 • 미대생이 졸업 후 스스로의 활동 무대를 만들고 작가로서 발판을 만드는 시도일 뿐 아니라, 나아가 일종의제도화에서 벗어난 실험적인 예술 영역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800/40에서 내세우는 '오픈 프레임(open frame)'이라는 개념은 보수적인 미술계와 상반되는 것으로 젊은 작가들의 자유로운 예술 형식과 사고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사업운영	• '24시간 레지던시', '24시간 전시', '240시간 전시'프로그램을 통해,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공간 뿐만 아니라 창작 스튜디오로도 기능을 확대하여 지원하는 시스템을, 청년작가들 스스로 구축해내고자 하였다는 점에 주목함 • 세운상가 내에 위치한 800/40은 또 같은 건물 안에 예술 상점 300/20, 출판사 및 서점 200/20, 그리고 인근에 가장 최근 오픈한 '슬로우 슬로우 퀵 퀵'이라는 공간까지 총 4곳의 공간이 긴밀하고도 연계되어 있음. 특히 평가 방문 당시 전시 중이었던 <Somewhere in the World>의 경우 800/40과 더불어 300/20까지 연동되어 전시가 열렸고, 관련 출판물을 200/20에서 판매해 효율적인 진행을 보였음
사업성과	• 세운상가, 대림상가, 청계상가를 중심으로 창작공간 4곳을 연결함으로써 을지로 세운상가 일대 예술생태계를 생성하는 구심점의 역할을 일정부분 수행하였다고 평가되며, 이러한 일련의 기획을 통해 청계천 상인들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확대해내어 예술문화를 통한 지역의 소통에 성과를 내었다고 판단됨. 해외작가의 교류와 관할인 서울 중구청의 후원과 홍보를 이끌어내었다는 점도 평가함 • 페스티벌 <세운상가 좋아요, 대림상가 좋아요, 청계상가 좋아요>는 800/40의 장소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하는 가장 적절한 사례였음. 특히 을지로 상권의 문화 향수를 높이는 차원에서 중구청의 후원을 이끌어 내거나, 일간지 및 잡지 등 언론의 관심을 모으는 데도 좋은 성과를 올렸음
종합평가	• 청년작가들 스스로 공간을 확보하여 자신들 세대의 환경과 취향에 맞는 새로운 공간 기획 및 운영을 통해 공간의 자생성을 모색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였음 • 청계천 지역의 장소의 가치를 알리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이 지역의 창작 공간들과 지역민들 간의 소통을 시도하고 일련의 성과를 내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후 지속적인 역할을 기대함 • 예술을 판매하는 상점 역할로서의 공간 '300/20', 책 출판, 유통의 공간 '200/20'과 연계하여 한 작가,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한 실질적 금전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장소성과 판매되는 상품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하겠음.

23 대안공간루프

◆ 공간개요

공간구분	• 대안공간
공간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29나길 20
공간설립일	• 1999년
시설현황	• 1 전시실, 사무실
지원예산	• 50,000,000

◆ 공간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

○ 21세기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이 요구하는 대안적 매개공간(실험성, 독립성, 비영리성)의 기능과 역할을 연구

○ 국의 신진작가들을 발굴하고 국내, 국외 미술계에 지속적으로 소개

○ 현대 미술의 흐름 안에서 아시아성을 재정립하고 세계미술계와 균형화된 소통관계의 확립을 시도

◆ 주요 추진계획 및 결과

구 분	추진계획	추진결과
주요기획전시	○ 기획전: 고 이원일 추모전 <디지털 트라이앵글>, <독일 영상전 섹션 1: Looking at The Big Sky>, <독일 영상전 섹션2: Your Skin Makes Me Cry> ○ 대안공간 루프 신진작가공모 선정 작가 개인전 ○ 자체 기획전: <미쳐버리고 싶은, 미쳐지지 않는>, <가제-Photo-Act-ing>, <8th Move on Asia : The Pale Blue Dot>	○ 기획전: <Digital Triangle : 한중일 미디어 아트의 오늘>, <독일 동시대 영상의 새로운 흐름 New German Video Art>, <미칠, 전_미쳐버리고 싶은, 미쳐지지 않는>, <유쥬쥬마C> ○ 대안공간 루프 선정작가 전: 최찬숙 , 박지희 개인전 ○ 외부기획전: <희한한 시대>
프로그램 (교육, 공연)	○ 신진작가 공모: 국내의 실력있는 젊은 작가 발굴	○ 공연: 희한한 시대(옥상달빛 미니 콘서트
기타 행사	○ 워크샵, 세미나, 포럼: 일반인 참여 워크숍, 전문가 참여 세미나 및 포럼 ○ 전시 작가와의 대화 : 전시 기간 중 1~2회 참여 작가와의 대화 프로그램 진행	○ 오프닝 개막식 행사 및 네트워크 파티 개최

❖ 사업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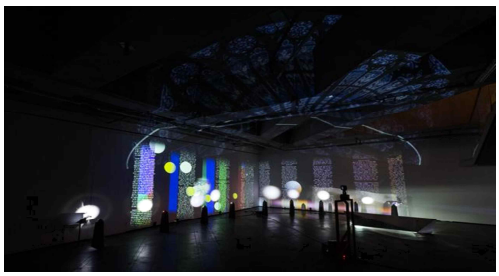
<Digital Triangle: 한중일 미디어 아트의 오늘>



<癲 미칠,전_미쳐버리고 싶은, 미쳐지지 않는>



<유쥬쥬마C>



신진작가 공모 선정 개인전<최찬숙 개인전>

◆ 창작공간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사업기획	• 대안공간 운영 16년차로 주로 미디어아트를 소개하고 젊은 신진작가를 발굴하는 중장기 계획아래 안정된 기획을 보임 • 대안공간루프는 다른 공간에 비해 홍대 앞이라는 위치적 장점과 한국 대안공간 역사에서 갖고 있는 의의가 큼. 이러한 위상에 걸맞게 대안공간루프는 아시아, 글로컬리즘, 디지털 등 21세기 동시대 미술의 흐름에서 한국미술의 하나의 제도적 기관으로 적합한 비전 설정하고 있음
사업운영	• 영상을 주로 다루는 국내외 전문적인 기관과 큐레이터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전을 기획하며 문화협력관계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 • <디지털 트라이앵글: 한중일 미디어아트의 오늘>은 동아시아 지역의 핵심 국가들의 상호교류를 도모하고, 작가뿐 아니라 해외 큐레이터까지 네트워크를 넓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함. 이어서 독일문화원과 공동기획으로 <독일 동시대 영상의 새로운 흐름>전을 개최함으로써 <무브 온 아시아> 등 오래전부터 쌓아 온 대안공간 루프만의 디지털 미학을 다시 한 번 주목 받도록 했음.
사업성과	• 독일 영상전을 통해 독일 4개 대학과 독일문화원과 문화협력을 시도하였고 젊은 큐레이터세대들의 시대적 문제를 실험하는 전시, 신진작가 발굴, 민중미술, 중견작가전 등 시대에 필요한 전시형태를 1개씩 배분하여 전시해 한국미술의 고른 발전을 고려한 점 • <유쥬쥬마C>전은 젊은 여성작가 유쥬쥬와 중견 남성작가 마문호가 만나 예상치 못했던 조화/충돌이 일어나는 즐거운 경험을 이끌어 냈음. 큐레이터의 역할도 함께 강조되는 전시로, 하위문화적 정서를 각기 다른 환경과 세대, 젠더에서 받아들이고 재해석하는 과정을 잘 보여 줬음. 또한 대안공간루프의 전시장 규모는 2인전에 알맞게 느껴졌음.
종합평가	•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나 결과물위주로 시대적 대안공간의 성격에는 맞지 않음. 대안공간 1세대의 네트워크와 작가군들과 함께하며 담론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전시나 기획을 해야 하고 지원 비중으로 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홍보와 현대미술을 보급하는 교육에 관한 계획이 요구됨 • 대안공간루프는 신작작가 창작지원 말고도 동아시아 문화교류, 중진작가 후원 등으로 오늘의 대안공간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특히 재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현대자동차 등의 기획 컨설팅으로 외부 재원을 유치하려고 노력했음 이와 더불어 <2015 아시아 창작공간 네트워크> <브릴리언트> 등 대안공간 루프 공간의 바깥까지 활동을 확장했음

24 갤러리소머리국밥

◆ 공간개요

공간구분	• 대안공간
공간소재지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69번지
공간설립일	• 2009년 7월
시설현황	• 1 전시실, 사무실, 세미나실, 레지던시
지원예산	• 30,000,000

◆ 공간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

○ 양평지역 작가들과 일반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양평'이라는 장소의 역사성 있는 전시기획과 세미나 연구를 통해 잊고 지낸 장소를 고찰

○ 서울이라는 문화의 중심에서 프로젝트 참여 작가들의 각 지역에서의 현장 작업과정과 작품들을 전시함으로서 문화적 소통, 공유를 유도

○ 소통의 공간으로서 '갤러리 소머리국밥'을 기점으로 다양한 문화 소외지역을 연결하며 누구에나 참여가능한 전시를 기획

◆ 주요 추진계획 및 결과

구 분	추진계획	추진결과
주요기획전시	○ 기획전: <매혹전>, <두 강이 만나다>, <근대성의 재발견>, <인베니오 과슈 초대전(그룹전)>, <이은경 개인전>, <이자영, 장성아 기획전>, <양평지역 작가전>, <젊은 작가 전시기획 공모전>, <Trialge Project 양평전> ○ 외부전시: <Triangle Project>	○ 기획전: <Scroll Painting>, <늑대들 Woolf-ves>, <Geometry landscape>, <아코디언방으로 들어가다>, <근대성의 재발견전>, <렛잇비>, <구아슈의 재발견>, <두강이 만나다>, <양평의 재발견전>, <매혹전>, <익숙한 혐오감>, <삶 충동>, <트라이앵글 프로젝트>, <작은 역사>, <겸재정선과 양천팔경 재해석_할아텍전>
프로그램 (교육, 공연)	○ 문화강연	○ 교육프로그램: 누원고등학교 작가탐방 및 예술현장 체험 ○ 비자 프로젝트: <독인-베를린 체크포인트 챨리>
기타 행사	○ 아티스트 톡: 각 전시마다 참여작가와의 대화 프로그램 진행 ○ 워크숍 및 답사: 근대성의 재발견전 워크숍 및 답사, Triangle Project 외부전시 목포 답사, 양평지역작가전 워크숍 및 답사	○ 양평의 재발견전 준비 답사 ○ 트라이앵글 프로젝트 <목포시간> 갑사 ○ 양천팔경 전 전시답사 ○ 아티스트 톡: 모든 전시마다 참여작가와의 대화 프로그램 진행

❖ 사업사진



구아슈의 재발견전



익숙한 혐오감전



아코디언방으로 들어가다 전



늑대들 전

◆ 창작공간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사업기획	• 소통의 공간으로서 '갤러리 소머리국밥'을 설정하고 문화소외 지역들(양평, 태백 구와우, 목포, 철암)을 연결하며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와 작품 활동을 통해 예술의 거점으로 자리 잡고자 하는 공간의 정체성은 지원목적에 부합하며, 특히, 예술인들뿐만 아니라 원하는 누구에게나 참여 가능한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 특히 이러한 지향점을 지니면서 동시에 4번의 외부전시(양서면사무소 북한강 갤러리, 태백 구와우 해바라기 문화재단, 목포대학교, 겸재정선미술관)와 다양한 국적의 작가(일본, 뉴욕, 프랑스)들과의 전시, 일본 도쿄의 Blockhouse(6-12-9 Jingumae, Shibuya-ku, Tokyo 150-0001 Japan) 갤러리와의 매년 교류전시를 체결 하였다는 기획력을 높이 평가함
사업운영	• 소머리국밥집이였던 비어있던 공간을 할아텍 작가들이 직접 공사하여 전시를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전시의 공간을 제공하고 공간연출을 '소머리국밥' 스텝들이 공간을 효과적으로 연출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됨 • 전시뿐만 아니라 복합공간을 활용하여 미술에 관심을 가지는 일반인, 양수리를 찾는 등산객, 양평에 있는 초,중,고등학생들과 함께 세미나, 연계교육프로그램 등을 예술가들과 함께 만들어 내는 프로그램이 문화소외지역에 의미 있게 동작되고 있음 • 이 복합공간이 작가의 작업실로 활용되고 있어서 작업실에서 하는 미술교육의 현장성이 지역민들과의 연결에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들을 기대하게 함
사업성과	• '갤러리 소머리국밥'을 기점으로 양평지역 작가들과 일반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양평'이라는 장소의 역사성 있는 전시기획(양평의 재발견_1부/2부, 양평지역작가전)과 세미나 연구를 통해 잊고 지내던 장소에 관한 발견으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예술의 장을 확장해내었다고 판단 • 소머리국밥'집이라는 지역에 버려진 공간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 누구든 전시를 원하면 지원한다는 지향점과 더불어 세련된 예술팀들이 기획하고 공간을 연출해서 전시를 해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었다. 문화소외지역에서 화이트 큐브가 해나가야 할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성과들을 내었다고 판단됨
종합평가	• 올해 6년째 지속적으로 <사람들 속으로 들어온 동네 미술관 - 갤러리 소머리국밥>을 통해 소통의 공간으로서 문화소외지역(구와우, 목포, 양수리)을 연결하며 누구에나 참여가능 한 전시를 기획하고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와 작품 활동을 통해 문화소외지역에 예술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판단 • 전시 공간뿐만 아니라 옆의 공간을 확장해서 작가의 작업실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작업실을 지역민에게 개방하여 여러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함으로써 현대미술작품에서 나아가 제작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들을 기대하게 함

25 스페이스몸미술관

◆ 공간개요

공간구분	• 사립미술관
공간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162
공간설립일	• 2000년 7월
시설현황	• 3 전시실, 사무실, 교육공간
지원예산	• 30,000,000

◆ 공간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

○ 전통에 대한 관심으로 공간을 차별화하고 우리 옛 아름다움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역사적 맥락 속에서의 현대성을 발견

○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 및 문화체험 학습장으로서 미술관 교육을 전문화

○ 소장품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지역출신 작가의 아카이브를 특성화하여 자긍심을 고양

◆ 주요 추진계획 및 결과

구 분	추진계획	추진결과
주요기획전시	○ 특별기획전: <장소를 품다=회령>, <불사조는 잿더미로부터 나오는가>, <차이의 공간>, <관계의 감각> ○ 기획전: <1964 보릿고개로부터!...>, <기·각·시·감(視·覺·視·感)>, <wild imagination>	○ 특별기획전: <장소를 품다=회령>, <불사조는 잿더미로부터 나오는가>, <차이의 공간>, <관계의 감각> ○ 기획전: <1964 보릿고개로부터!...>, <기·각·시·감(視·覺·視·感)>, <wild imagination>, <빈집 살리기>
프로그램 (교육, 공연)	○ 교육프로그램: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거꾸로 보는 미술관>, <일상으로 돌아온 미술-다시 그이름, 아름다움>, <일상으로 들어온 미술-들락날락 미술관>	○ 교육프로그램: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보이지 않는 것들>, <미술관으로 간 생각이>, <미술관놀이터 소꿉>, <들락날락 미술관>, <미술관 나들이 다茶> ○ 문화강연: <다시 그 이름, 아름다움> ○ 어린이 대상 체험프로그램: 뮤지엄페스티발 <말을 거는 몸>
기타 행사	○ 참여작가 워크숍 :<장소를 품다-회령>전 참여작가와 회령항아리를 탐구할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	○ 작가와의 대화 프로그램<블라인드 토크>: 참여 작가와 큐레이터, 관람객들의 심도 있지만 격 없는 대화 형식으로 전시와 진행과정에서의 에피소드를 공유

❖ 사업사진



특별기획전<장소를 품다– 회령>



작가와의 대화<1964 보릿고개로부터!...>



차이의 공간 전<블라인드 토크>



Wild Imagination 전<미술관 놀이터 소꿉>

◆ 창작공간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사업기획	• 사업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기획단계에서부터 목적에 부합하는 계획임 • 스페이스몸은 적절한 동시대성을 갖춘 감각적인 전시기획과 작가 발굴,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꾸준히 시도해 온 미술관으로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 미술관의 선도적 모델로 거론할 수 있는 곳임. 특히 지역의 작가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 전시기획의 일관성과 연구의 노력이 다른 미술관에 비해 월등함.
사업운영	• 소수의 인원이지만 우수한 전문인력 채용으로 조직 구성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임 • 지역 소재의 미술관으로서 가장 높은 수준의 동시대성과 차별성을 획득하고 있음. 대부분의 전시들이 적절한 미학적 수준과 차별화된 내용, 그리고 균형 잡힌 구성과 배치능력을 보여주고 있음. 또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또한 매우 충실함. • 스페이스몸은 설립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양질의 전시들과 적절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왔음. 그동안의 활동궤적을 아카이빙하여 새로운 콘텐츠로 제작, 선보이는 회고의 계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는 기존활동의 정리라기보다 그 자체로 분명한 홍보활동이며 미래의 수준 제고를 위한 기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임
사업성과	•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 추진으로 전시 효과를 높이고 관람객의 기대에 부응함 • 전체적으로 학예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기획전 중심의 전시운영이 돋보임. 적절한 시대적 감각을 가진 작가들을 섭외하여 동시대적 주제들을 구현했고, 그에 맞는 도서 출판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했음. 또한 <장소를 품다: 회령>과 같은 전시는 작가들의 창작을 독려하는 새로운 시도로서 전통의 동시대적 해석을 유도하는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음.
종합평가	• 지리적으로 외곽에 위치한 이 기관은 문화소외지역의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체험 활동을 가능케 한 진정한 의미의 공공미술기관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을 하고 있음 • 두 세 기관이 연합하여 하나의 축제분위기를 만들고, 이를 통해 홍보효과를 극대화 • 스페이스몸미술관은 지역미술관의 우수한 운영의 전형으로 거론할 만함. 전시기획의 수준과 주제, 그리고 구성과 배치가 우수하며 교육프로그램 제작 및 수행 활동 또한 우수함. 안정된 인력 구조에서 기인하는 전체적으로 탄탄한 기본기를 기반으로 양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좀 더 확장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음. • 전체인력 5명중에서 상근인력4명이며 근무연수가 높은 측면은 미술관 고용창출의 적절한 사례로 판단됨

26 남포미술관

◆ 공간개요

공간구분	• 사립미술관
공간소재지	•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팔영로 1081
공간설립일	• 2005년 2월
시설현황	• 4 전시실, 사무실, 세미나실, 교육공간
지원예산	• 40,000,000

◆ 공간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

○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과 예술인 간의 창작, 소통, 향유의 시스템 구축

○ 지역적 특성과 대상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지역민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예술 향유에 따른 저변 확대 도모

○ 지역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연과 예술, 과학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특화된 지역사회 문화 네트워크 형성

◆ 주요 추진계획 및 결과

구 분	추진계획	추진결과
주요기획전시	○ 지역작가 지원전: <아름다운 날들> ○ 특별기획전: <오래된 미래의 빛, 남도의 화가들> ○ 중견작가 초대전: 김재형 ○ 기획전: 호모루덴스의 파편들	○ 기획전: <10년의 기억>, <과거 속에서 미래를 보다>, <대한민국 국전작가회전>, <김재형 초대전, 자연·삶·신앙>, <전통의 미감>, <동국진체를 꽃피운 호남의 서맥>
프로그램 (교육, 공연)	○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 교육프로그램: <기와에 꿈을 새기다>, <문화예술로 행복한 여가를 즐기다>, <표현하자! 나만의 톡톡 튀는 예술감성> ○ 전시연계특강: <한국 서예의 시대별 특징과 호남 서맥의 위상>,
기타 행사	○ 매달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한 공연, 이벤트 진행 ○ 협력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팔영산 국립공원, 나로우주과학관, 우주발사전망대,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와 공동전시 및 페스티벌, 투어프로그램 운영	○ 공연 :지역주민 초청 재즈콘서트 <당신을 위한 노래>, <놀이꾼과 함께하는 연희 한마당>, <JOY트리오와 함께하는 VISION 콘서트>, <금관앙상블과 판소리가 어우러진 가을음악회>, <이끌림, 유랑하다>, <한세인 초청 가을 음악회>, <어린이음악회-클래식 음악과 함께 보고 듣는 동화책>, <송년음악회>

❖ 사업사진



<10년의 기억>



김재형 초대전<자연·삶·신앙>



놀이꾼들과 함께하는 연희 한마당



전시연계 특강

◆ 창작공간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사업기획	• 적은 규모와 인력, 그리고 고흥 읍내에서도 멀리 떨어진 벽지에 위치한 조건 등 여러 면에서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전시와 관련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기획했음. 특히 지역 정서에 부합하는 전시 선정과 예술교육으로부터 소외된 대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그 공공적 의미를 잘 구현하고 있으며, 여러 장르의 공연예술을 수용하는 공연 프로그램은 지역의 일반적인 관심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음. • 남포미술관은 지역의 사립미술관으로서 다양한 연령층의 작가군과 다양한 장르를 배려하는 기획력이 탁월하며 지역작가를 배려하는 노력이 돋보임
사업운영	• 지역 미술관들의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기획력을 지니고 있음. 각각의 전시들이 적절한 의미와 차별성을 지니고 있음. 또한 매 전시별로 적절한 홍보와 관련 프로그램들을 구비하고 있어서 지역사회의 향수권 확보에 충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특히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들과 공연 프로그램은 그 공로를 충분히 인정할 만하며, 미술관의 활동반경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수준 높은 원로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하여 미술관을 찾는 방문자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주는 수준 높은 행사를 진행하였음
사업성과	• 연간 3만명에 육박하는 관람객을 확보하고, 또한 한센인이나 장병 등 문화교육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다수의 대상자들을 찾아가 미술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우수한 점임. 8회에 걸친 기획전시도 모두 적적한 무게와 형식을 갖추고 있음. 특히 남도서양화단의 발아기를 조명한 '과거 속에서 미래를 보다'와 같은 전시는 지역 미술관이 기획해야 할 전시의 적절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임 • 조화로운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다양한 연령의 미술인들이 참여하였고 다양한 장르의 전시조합으로 지역 미술문화 발전에 높은 기여를 함
종합평가	• 남포미술관은 지역 미술관이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들을 가장 많이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진의 헌신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한계를 극복하며 의미 깊은 활동들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는 좋은 사례임. 특히 소규모의 대안공간이나 화랑이 아닌 미술관의 규모에 부합하는 규모의 프로그램과 전시들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있음. 특히 미술관 내에 국한되지 않고 외부로 프로그램 활동반경을 넓히려는 시도가 인상적임 • 지역의 사립미술관으로서 다양한 전시를 추진하였고 특히 추진하기 어려운 원로작가전을 추진하여 지역미술계의 주요 미술관으로 평가됨

27 한국미술관

◆ 공간개요

공간구분	• 사립미술관
공간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244-2
공간설립일	• 1983년 3월
시설현황	• 5 전시실, 사무실, 세미나실, 교육공간
지원예산	• 30,000,000

◆ 공간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

○ 인구의 대거유입과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경기도와 용인시 지역중심미술관으로서 위상 확립

○ 지역주민과 그 삶의 형태가 예술과 만나는 밀착형 미술관으로서 적극적인 문화예술의 소통과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

○ '문화창조'와 '작가발굴'이라는 한국미술관의 역사와 성과를 재조명하는 전시,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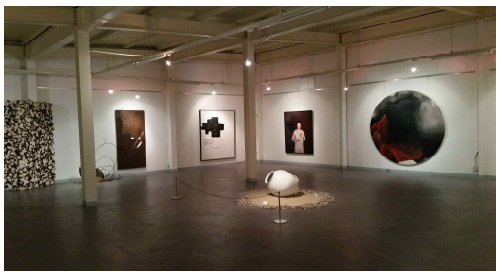
◆ 주요 추진계획 및 결과

구 분	추진계획	추진결과
주요기획전시	○ 기획전: <자연이 빚은 예술-한국공예전>, <용인 마북동 시대 20주년 기념-여성, 그 다름과 힘 다시 시작하다>, <움직이는 손 맛 솜씨>, <Passion, Fashion>, <미술관 놀러와>	○ 기획전: <예술로 빚은 자연-한국공예전>, <용인 마북동 시대 20-여성, 그 다름과 힘20>, <김승희-다시 보는 풍경>, <백남준 선생 부인 구보타 시케고 추모전>, <한국현대미술이 흘러 Passion Fashion으로>, <이명욱전>, <이효문-나에게 말을걸다>
프로그램 (교육, 공연)	○ 교육프로그램: 문화소외지역 및 노인회관 직접 탐방 <찾아가는 미술관> ○ 전시연계 프로그램: 전시연계 체험,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한지 꼴라쥬 작업>, <나를 그리다>, <장신구만들기>, <패턴디자인>, <우리가족예술캠핑>	○ 교육프로그램:<행복담은 행주치마>, <재미있는 현대미술 감상법>, <찾아가는 미술관>, <미술관 놀러와>, <미술관 예술캠프>
기타 행사	○ 세미나, 행사, 강의: <여성, 디지털시대의 페미니즘>, <바묵동패션쇼와 바자> ○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지역 초등학교 교사 연수프로그램	○ 세미나 및 행사 : 미술관 정보제공 행사 <뮤지엄 위크>, <2015 경기도 교육청 교사연수 프로그램>, 전시 연계 체험 프로그램 <뮤지엄 페스티벌> ○ 예술문화 체험행사: 용인시가 주최하고 시의 각 교육단체와 문화단체들이 참여하는 <에버라인 타고 떠나는 용인 스탬프 여행> ○ 추모 퍼포먼스: 백남준선생 부인 구보타시케고 추모를 위한 흥신자(현대무용가 추모 퍼포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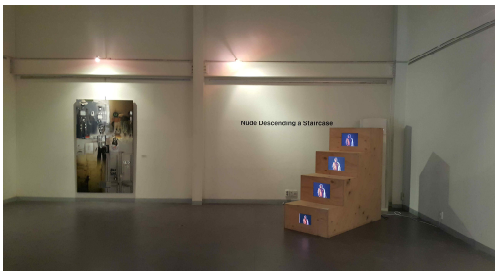
❖ 사업사진



예술로 빚은 자연-한국공예 展



용인마북동시대20-여성, 그 다름과 힘 展



백남준선생 부인 구보타시케코 추모 展



한국현대미술이 흘러 Passion Fashion으로 展 패션쇼

◆ 창작공간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사업기획	• 개관 32년을 맞는 미술관으로서 한국미술사를 끊임없이 재조명하며 회화, 공예, 미디어, 패션 등 다양한 미술 장르의 협업전시 기획과 전통을 가진 문화예술아카데미를 지속 운영함 • 위치상 접근성이 떨어지며 소장품 중심의 전시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전시가 다소 단조로운 점이 있음
사업운영	• 1세대 패션디자이너인 이용렬의 작품세계와 현대미술을 연계한 <한국현대미술이 흘러 패션전>과 같은 융복합 전시를 개최함 • 백남준의 미망인 구보다 시게코의 사망과 관련하여 구보다시게코의 추모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백남준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지속하고 있음 • 문화예술아카데미 25년째 지속 실시(매주 1회 2시간) • 국내의 현대미술의 대표적인 작가(10명)들이 동시성 이루어 전시 되었으며 미술과 패션의 융합된 모습이 시대의 미술문화를 확장시키는데 일조
사업성과	• 보통 연간 2-3회의 전시를 기획하고 있으나 금년엔 7차례의 의욕적인 전시를 개최함 • 특히 패션과 공예전과 같은 장르융합적 전시와 <용인 마북동 시대 20-여성, 그 다름과 힘 20전> 등과 같이 지역과 여성이라는 주제의 전시를 통해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과거 소장품 중심의 전시를 탈피하여 다양한 전시콘텐츠를 입체적으로 개발코자 하고 있음
종합평가	• 32년의 역사를 가진 미술관으로서 다양한 현대미술 컬렉션을 소유하고 있으며 특히 백남준과 구보다시게코의 작품을 통해 백남준 작품세계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 • 현대미술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아카데미를 24년째 지속함으로써 현대미술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쌓아가고 있음 • 다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홍보 등 관객유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나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금년의 경우, 의욕적인 기획을 통해 예년보다 많은 전시콘텐츠를 개발하며, 특히 최근 융복합시대에 부응하는 패션과 현대미술을 연계시킨 전시를 개최하여 패션사를 정리할 뿐만 아니라 패션과 미술의 연계성을 탐구함으로써 호응을 얻음 • 지역의 문화시민을 리드하는 양질의 전시로서 관람객들에게 홍보물을 제공하여 작품을 보면서 이해를 돕는 전시를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28 모란미술관

◆ 공간개요

공간구분	• 사립미술관
공간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2110번길 8
공간설립일	• 1990년 4월
시설현황	• 6 전시실, 사무실, 세미나실, 교육공간
지원예산	• 50,000,000

◆ 공간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

○ 조각전문 미술관으로서 소장품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창조적 의미 창출

○ 25년의 전통과 품격을 유지하며 시민의 삶 속 문화향유 저변확대 주도

○ ‘Creative Moran, The New Art Platform!’슬로건을 통해 독창적인 시각예술 및 건축 등 ‘문화예술과의 만남과 소통’ 이라는 새로운 문화전시행사 개최

◆ 주요 추진계획 및 결과

구 분	추진계획	추진결과
주요기획전시	○ Moran Folly2015 : 건축, 조각분야의 알려져 있지 않은 젊은 예술가들의 가치를 발견 ○ 유연한 시선: 모란미술관 25주년 기념 조각전 ○ 자연을 닮은 예술-찰나의 발견: 청소년교육프로그램으로 자연을 주제로 청소년들의 독창적 예술활동을 유도하는 전시 ○ 마나오 투파파우	○ 모란미술관 상설전 ○ 마나오 투파파우 ○ 유연한 시선 ○ 2015 모란미술관 청소년 프로그램 <자연을 닮은 예술> ○ MORAN FOLLY2015: 건축공모전 ○ 찰나의 발견
프로그램 (교육, 공연)	○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전시투어 및 활동지, 체험 등 <미술관 가족되기>, <모란미술관학교>	○ 전시연계 프로그램: <마나오 투파파우> 전시투어, 활동지, 체험, <유연한 시선>, 전시투어, 활동지, 체험, 2015 모란미술관 청소년 프로그램 모란미술관학교<자연을 닮은 예술>, <찰나의 발견> 교육
기타 행사	○ 다문화 소외 가족초대 ○ 재즈 대중음악 콘서트	○ 공연 프로그램: 피크닉 페스티벌

❖ 사업사진



전시투어 <마나우 투파파우>



유연한 시선



MORAN FOLLY 2015



찰나의 발견 수업이미지

◆ 창작공간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사업기획	• 한국의 대표적 조각미술관인 모란미술관이 25년의 전통을 넘어, 인접분야인 건축, 사진, 음악, 디자인 그리고 예술과 기술이 결합한 뉴미디어 아트로 범위를 확장시켜 내는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주목. 특히 이를 토대로, 건축, 설치미술 그리고 조각의 결정체인 폴리를 주제로 하는 MORAN FOLLY 2015를 개최하여 다시 건축이란 무엇인가를 역설적으로 묻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기획이었다고 판단 • 모란미술관의 전시는 미나오 투파파우(2015.4..3-6.7),와 유연한시선(6.176-7.20) 전을 유치하였으며 전시와 더불어 교육아카데미 등 다양한 활동을 함
사업운영	• 모란미술관이 인접한 모란공원묘원과의 확장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 위치한 모란미술관의 지리적 위치에 착안하여, 'Between Life and Death' 이라는 주제를 내세워 MORAN FOLLY 2015를 진행하였다는 점은, 모란미술관 공간의 지정학적 정체성과 향후 방향성을 확인하고 검증해본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진행이었다고 판단함. 그 결과들을 향후 과제에 의미 있게 결합시켜낼 것을 기대함. • 전시와 전시연계교육프로그램, 청소년 교육, 공연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간을 활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으나 중동발 발생한 "메르스"의 여파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내용으로 기획되어 진행함으로써 관람객 감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사업성과	• MORAN FOLLY 2015를 통해, 조각전문미술관으로서의 전통을 토대로 확장된 조각의 방향성 속에서 '조각' 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환기시켜냈다는 점에 주목함. 모란미술관 인근 지역아동센터와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현장중심의 체험프로그램이 지역 사회의 소통과 문화소외지역의 문화교육으로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었다고 판단함 • <유연한 시선>展은 예술작품에 나타난 시선의 문제를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음 • 남양주시가 가지고 있는 인류학적 배경은 타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의 문화로 융화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문화가 자연친화적인 삶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초를 마련
종합평가	• 조각전문미술관이 흔치 않은 상황에서 모란미술관이 공간의 정체성 토대 위에서 뉴미디어 미술들과의 접목을 고민하고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미술계에서 주목하였다고 판단 • 문화소외지역에서, 지역 학교 및 지역 아동센터, 다문화 가정들과 연계된 미술교육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지역사회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지속해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었음. 미술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조각교육프로그램이 흔치 않은 미술계 상황들을 고려하여, 조각 중심 교육프로그램 또한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함

29 신미술관

◆ 공간개요

공간구분	• 사립미술관
공간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호국로 97번길 30
공간설립일	• 2003년 10월
시설현황	• 6 전시실, 사무실, 세미나실, 교육공간
지원예산	• 30,000,000

◆ 공간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

○ 충청권의 대표적 미술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청주시민의 미술 문화 향유의 기회를 증대하기 위해 다양한 장르의 현대미술을 전시

○ 다양한 전시의 참여적인 구성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과 작가(작품)와의 상호작용 확대

○ 충청지역 출신의 청년작가들을 발굴하는 전시를 기획하여 지역의 젊은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

◆ 주요 추진계획 및 결과

구 분	추진계획	추진결과
주요기획전시	○ 2015 신미술관 신인작가지원전-잠재적 표상 PotentialSymbol展 ○ 2015 미술관은 내친구-아임리얼展 ○ 2015 신미술관 신인작가선정展 ○ 2015 신미술관 특별기획-무형유기無形有氣_Energy without Form 展	○ 2015 신미술관 신인작가지원전-잠재적 표상 PotentialSymbol展 ○ 2015 미술관은 내친구-아임리얼展 ○ 2015 신미술관 신인작가선정展 : 최성임 <두 번째 장소>展 ○ 2015 신미술관 특별기획-이재산<달빛정원>展
프로그램 (교육, 공연)	○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 특별기획교육프로그램: 2015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거꾸로 보는 미술관>	○ 2015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거꾸로+마음대로=바로보기!> ○ 2015 도슨트 양성 프로그램 ○ 미술관 전시와 함께하는 체험교실 운영
기타 행사	○ 도슨트프로그램 ○ 기자간담회 ○ 세미나: 작가와의 대화 등	○ 문화가 있는 날 연계 <수요일은 미술관 가는날> ○ 문화행사:<작은 음악회>, <소방관 가정 초청 문화 나눔 행사>

❖ 사업사진



아임리얼 展



신미술관 신인작가 지원展



신미술관 특별기획<이재삼 달빛정원>



전시연계 체험프로그램

◆ 창작공간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사업기획	• 사업기획단계에서부터 회의를 통해 연초에 세팅되고 구체적 실행계획이 수립되고 있음. 신진작가를 발굴하고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열악한 청주지역의 시각예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 작가에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사업목적이 명확함 • 신미술관은 청주 지역의 신진작가에 주목하여 지역의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전시를 기획하고 있음. 전체적인 사업의 기획은 그러한 미술관 운영의 방향성을 잘 구현하고 있음. 미술관 전시기획의 전제조건이 잘 구비되어 있음으로 인해 전체 기획의 일관성이 견지되는 것을 목도하게 됨.
사업운영	• 새로운 현대미술 작품을 선보이는 특별전을 기획하여 나날이 다변화되고 있는 현대미술의 양상을 다양한 주제 안에서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미술관과 청주시민, 작가와 일반인들 간의 현대미술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현대미술의 다양성과 새로운 의미에 대한 이해를 돕게 됨 • 청주지역의 작가와의 교류를 활발히 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고, 또한 전시에 지역작가와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음. 공간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지만 두 공간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두 공간간의 차별화된 활용을 통해 시너지 가능
사업성과	• 지원받은 신인작가지원 전시인 잠재적 표상은 관람객수가 많고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의 신인작가를 발굴하는 기회를 가짐. 또한 신미술관 특별기획전 이재삼 달빛정원도 성황리에 진행. 수혜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전시와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어 수혜자들의 만족도도 높음 • 전시기회를 갖기 쉽지 않은 지역의 젊은 작가들에게 전시를 통한 조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성과를 갖고 있음. 또한 부족하지 않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미술 향수권 신장에도 기여하고 있음. 미술관에는 카페 등 적절한 휴게공간을 통해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종합평가	• 지역 미술관, 박물관, 창작스튜디오 등의 문화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전시기획, 문화행사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비수도권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지역특수성을 살린 것이 전시의 가장 큰 의미였음 • 비교적 잘 정비된 공간을 가지고 있고, 신인작가 발굴과 청주시의 작가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설립되어 설립취지에 맞게 현재까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 청주 시내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신미술관은 지역의 신진작가들의 발굴과 조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측면에서 분명한 성격을 확보하고 있음. 의외로 문화적 소외가 존재하는 지역에서도 꾸준히 신진 작가 발굴을 유지하고 있으며 교육프로그램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민들과의 꾸준한 소통을 시도하고 있음

30 무등현대미술관

◆ 공간개요

공간구분	• 사립미술관
공간소재지	• 광주광역시 동구 중심사길 9
공간설립일	• 2007년 7월
시설현황	• 2 전시실, 사무실, 세미나실, 교육공간
지원예산	• 25,000,000

◆ 공간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

○ 지역 유일의 현대미술관으로서의 역할

○ 지역문화의 개발과 문화자원 형성으로 미술관과 주변의 특색을 적극 활용

○ 무등 아트밸리 구축과 지역사회에 이바지

◆ 주요 추진계획 및 결과

구 분	추진계획	추진결과
주요기획전시	○ 나랏말ᄊᆞ미, 아름다운 우리 한글 展: 한글을 소재로 순수미술, 미디어, 조각, 설치 등의 예술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한글'을 바라보는 특유의 관점을 담은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 ○ 운림골 의재로 환경미술제: 인간과 예술의 공존을 모색하고 하나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하는 전시	○ 강과 유가 함께 展 ○ 나랏말ᄊᆞ미, 아름다운 우리 한글 展 ○ 本, 쌈지에서의 외출 展 ○ 정이석-도예조형展 ○ 김주연- 유기체적 풍경 展 ○ 2015 환경미술제 <자연과 인간, 인간과 자연>展 ○ 김왕주 초대전<바람, 바람> 展
프로그램 (교육, 공연)	○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 마련	○ 2015 꿈다락 토요문화학교<Come Together> 조형예술학교- 자연과 친구되는 감감감 ART Lab> ○ 2015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미술관연계 프로그램<거꾸로 보는 미술관> ○ 2015 사립미술관 문화교육프로그램지원사업 문화가 있는 날 연계 프로그램 ○ 2015 KB국민은행 박물관 노닐기<명화 속 수학이 꿈틀꿈틀>
기타 행사	○ 문화가 있는날 프로그램 ○ 무등산 등산객을 위한 편안한 쉼터 프로그램 개발	○ 2015 도슨트 양성 프로그램 ○ 2015 예술 노마드-빛을 찾다, 길을 걷다, 땅에놀까? ○ 무등골, 예술리듬을 타고

❖ 사업사진



<나랏말ᄊᆞ미, 아름다운 우리 한글>



<자연과 인간, 인간과 자연>



국립공원 일대 특별전시<자연과 인간, 인간과 자연>



Museum Festival<예술체험 그리고 놀이>

◆ 창작공간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사업기획	•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 입구의 무등현대미술관의 지리적 입지를 생각하여 추진된 환경미술제는 지역에서 매우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음 • 주제가 분명한 기획전 중심으로 연간 계획을 수립하였음. 적절한 규모와 기간을 안배하여 전시로서의 형식적 수준을 갖추고자 했음. 그리고 연간 대부분의 주말을 채우는 교육프로그램 기획이 놀라움. 광주광역시의 다른 미술관들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내용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지역의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음
사업운영	• 작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작품설치공간과 제작에 이르기까지 작가들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창의적이 환경미술제가 진행되었음 • 어린아이부터 성인들까지, 일반인부터 전문가까지 다양한 대상을 아우르는 교육프로그램들을 실행하고 있음. 특히 도슨트 전문교육과 같은 것은 여타의 미술관과 차별화되는 무등현대미술관만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좋은 사례임. 다양한 전문가들을 강사로 섭외하는 것 또한 좋은 사례임
사업성과	• 미술관을 벗어나 자연에 설치되어진 작품들은 자연과 동화되어 관람자들에게 작품의 새로운 가치관을 인식시켰고, 현대미술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리적 특성으로 수많은 등산객이 통과하여 참으로 많은 관람자들이 전시를 즐겼음 • 우리 한글을 주제로 한 기획전이나 생태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환경미술제 등은 적절한 전시기획의 사례로 거론될 수 있을 것임. 나름대로의 성격을 견지하는 미술전시 기획 또한 적절함.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미술교육프로그램은 본 미술관의 특수한 장점임 • 기획전시 개최를 논의하는 외부 인력들을 제한된 자문위원역에 국한시키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우수한 인력과의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시주제를 발굴하고 기획의 수준을 제고시키며 홍보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종합평가	• 무등현대미술관은 주변의 환경을 이루는 무등산과 성촌마을을 배경으로 오랜 기간 다양한 문화사업을 하였으며, 이는 지역의 미술인들과 미술애호가들에게 미술의 다양한 기능과 가치에 관하여 생각하는 계기를 창출함. • 미술 이외의 환경전문가, 환경교육자 등 다양한 인력을 발굴하여 조력자로 도움을 받음 • 무등현대미술관은 무등산자락에 위치하고 있고, 최근 국립공원의 활성화로 인해 배후지역의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좋은 입지조건을 가졌음. 또한 적절한 규모의 전시장과 기획전의 규모를 견지하고 있음. 무엇보다 적극적인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서 공공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 사례임

30 오픈베타공간 반지하

◆ 공간개요

공간구분	• 대안공간
공간소재지	• 서울시 중랑구 상봉중앙로 6길 26-12 반지층 102
공간설립일	• 1999년 1월
시설현황	• 1 전시실, 사무실
지원예산	• 10,000,000

◆ 공간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

○ 적극적인 실험을 위한 오픈베타(open-beta)공간을 목표로 함

○ 익명성을 목표로 하여 작가들이 자유롭게 예술적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작가와 관객 간의 직접적인 피드백을 장려

◆ 주요 추진계획 및 결과

구 분	추진계획	추진결과
주요기획전시	○ 개인전 형식의 프로젝트: 별도의 공모나 심사과정이 없고 작가와 반지하 관리자의 기획회의를 통해 진행 ○ 협업 프로젝트 : 작가와 평론가의 협업(2015년 2월 예정), 영상 작가들의 릴레이 상영회(2015년 4, 5월 예정)등 작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개인 프로젝트에서 좀 더 확장	○ <우주는 대체로 텅 비어있다> ○ <낮퇴계 밤토끼> ○ <Black Forest> ○ <까마귀가 닭이 되는 기분> ○ <정지이미지> ○ <figurine out> ○ <감광생활> ○ <그러지못해 안타깝다> ○ <욕조프리퀄> ○ <미나리 키우기>
프로그램 (교육, 공연)		
기타 행사	○ 대담 및 토론회 : 비슷한 공간 운영자들과 지속해서 협력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대담 및 토론의 장을 마련, <예술의 부스러기(가제) 실패한 소규모 프로젝트 대담회>, 토론회 <미술이거나 혹은 : 새로운 생산공간들>	○ 워크숍: <안무실격>-안무를 배우면서 동시에 국내에서 발생하는 기묘한 사건들과 하나가 되어보는 워크숍, <Everyone wil be afraid of us> ○ 데굴데굴 데모험: 영상작업 관람 및 작가와의 빙고게임 ○ 폽스트라다무스의 데예언: 베스트 영상 상영과 랜덤채팅으로 세계인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는 프로젝트

❖ 사업사진



<우주는 대체로 텅 비어있다>



<안무실격>



<데굴대굴 데모험>



<감광생활>

◆ 창작공간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사업기획	• 반지하는 작가들을 위한 오픈베타공간으로써 작업실과 전시공간의 중간역할로 공간의 정체성을 규정함으로써, 공간을 통해 피드백을 받고 수정 보완하는 과정의 공간으로서 '반지하'의 정체성을 설정하였다는 점에 주목함 • 오픈베타(open-beta)공간 반 지하는 적극적인 실험 작업 프로젝트의 공간을 표방하며 1인 운영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작업실과 전시실의 중간과정을 취하게 되는 공간 • 오픈베타는 게임용어로 베타버전(Beta version)인 시범 서비스를 체험하게 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수정-보완 후 정식 서비스로 전환하는 시스템의 개념을 차용한 반지하는 작가들의 창작실험 수행 작용이 일어날 때만 존재하게 됨
사업운영	• 반지하는 익명성을 목표로 함으로써 과정의 공간이라는 정체성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였음. 작가들의 자발적 참여와 선착순에 의한 전시 기회 부여, 무료 전시라는 진행과정을 통해, 창작과 실험을 위한 공간이 보다 역동적으로 동작될 수 있었다고 판단됨.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으로는 온라인 홍보와, 텀블러 페이지에의 아카이브 활동이 젊은 층의 감수성과 소통되었기 때문이었다고 판단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활동이었다고 판단함 • 반지하는 기존의 미술관이나 갤러리들이 갖춘 상업적인 시스템 공간의 전통성을 정면거부하며 결과적인 작품만을 추구하고 전시하는 공간이 아닌 작가의 작업이 발전 변화할 수 있는 실험의 과정을 병렬시키는 공간임
사업성과	• 청년미술가들이 원하는 실험적인 공간, 익명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예약을 통해 입장하는 관람자들과의 질적인 소통과 온라인상의 소통이 동시에 가능한 공간을 창출함을 통해서 작가들 간의, 작가와 관람객 간의 의미 있는 소통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점에 주목하였음 • 반지하의 특성상 출입구의 기능은 기존의 창문을 이용하고 있는데, 인문학적 공간이 물리학적 환경을 취하는 프로젝트가 적합한 곳 이기도함. 다시 말해서 인문학적 구조 공간 속에서 초유의 자연환경 공간의 개념을 설정하여 자연환경 생태계가 성립되고 그 공간에서 수행미술 실험극의 리허설이 진행
종합평가	• 작가들에게 사적이며 동시에 공적인 장소를 제공하여 자유롭게 각자의 작업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는 점을 평가함. 이를 아카이브화해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함. 이 공간에 대한 관리자에 고민에 공감하며, 향후 계획이나 비전에 대한 고민이 보다 구체화되길 기대함 • 작가들에게 사적이며 동시에 공적인 장소를 제공하여 자유롭게 각자의 작업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줬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함. 어떤 것을 해볼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미술공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함. • 그러나 이렇게 작고 외진 곳에 자리하는 반지하에서 미술활동이 진행되는 것이 장기적인 큰 그림을 그려보았을 때는 긍정적으로만 평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임

30 코너아트스페이스

◆ 공간개요

공간구분	• 대안공간
공간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80-6
공간설립일	• 2012년 10월
시설현황	• 1 전시실
지원예산	• 20,000,000

◆ 공간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

○ 소비문화에 대응하는 예술적 태도

○ 화이트 큐브의 안과 밖

○ 새로운 예술 수용자와 창작자

◆ 주요 추진계획 및 결과

구 분	추진계획	추진결과
주요기획전시	○ <Shower Tour> Andrea Eva Gyori 개인전 ○ <Danger 위험> Flo Maak 개인전 ○ <이병찬 개인전> ○ <대만&한국 교류전> ○ <문훈 개인전> ○ <작은공간 프로젝트> ○ <홍순명 개인전> ○ <김은형 개인전> ○ <점방 전시>	○ <샤워투어:안드레아 에바 교리 개인전> ○ <위험 플로마크 개인전> ○ <거울너머 환각 이병찬 개인전> ○ <사색적 먼지: 한국-대만 그룹전> ○ <집과 집사이: 조전환 개인전> ○ <사소한 기념비:홍순명 개인전> ○ <베를린 천사의 시: 임의진 개인전> ○ <호접몽: 김은형 개인전> ○ <불안의 순정: 고등어 개인전> ○ <세계문자심포지아 2015 문자발명가들>-외부기획
프로그램 (교육, 공연)		
기타 행사	○ 타 공간 및 타 기관과의 협력프로젝트: <작은 공간 프로젝트> ○ 코너스테이션 녹음: 아티스트 인터뷰 및 예술인사들과 함께하는 강연 시리즈를 녹음·녹화하여 온라인에 공유	○ 전시 스크리닝, 강연퍼포먼스, 대담 <세계문자심포지아 2015 문자발명가들> ○ 콘서트: <베를린 천사의 시> 오프닝 콘서트

❖ 사업사진



<집과 집사이: 조전환 개인전>



<베를린 천사의 시: 임의진 개인전>



<호접몽: 김은형 개인전>



<사소한 기념비: 홍순명 개인전>

◆ 창작공간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사업기획	• 자본주의의 중심지역이라 할 수 있는 압구정동 도심공간에 작은 코너공간을 이용하여 윈도우갤러리를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의 문화에 대해 다각적인 해석을 가하는 대안적 전시를 추진 • 압구정동의 현대백화점 본점 맞은 편 병원로비를 통해 출입이 가능한 대안공긴 코너아트스페이스는 소비문화에 대응하는 예술적 태도의 키워드로 잡고 운영되고 있는 경제적 특구 소비문화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또 다른 유통의 MD를 구성하여 국제적인 작가 및 큐레이터 네트워크를 통한 프로젝트들을 한 해 동안 집중 진행
사업운영	• 압구정동 소비지구에 대한 장소 특정적 전시를 연간 10회를 갖는 예술 작업 커미션 집행 중인데 시각적 예술장르의 포괄적인 현대미술을 포함한 디자인, 현대음악 등 장르와 경계를 넘나드는 다원적장르의 전시들로 구성됨. 이를 통해 창조적 예술 활동과 문화산업을 연계하여 새로운 시험과 융합을 모색함 • 홍보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윈도우 갤러리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윈도우 앞 공간이 관람객들의 관람을 위한 시야확보가 충분해야하나 주차장 공간이어서 관람에 제약이 있고 내부 공간도 너무 협소하여 한번에 5인 이상이 관람하는데도 한계가 있음
사업성과	• 개성강한 신진작가들의 발굴을 위한 노력 및 전통건축 등 융복합적 전시 개발 • 대안공간 코너스페이스의 인문학적 개념을 넘어 다양한 장르가 교류하는 국제교차로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가는 공간 운영 사업전개 결실을 맺고 있음 • 전시규모가 대체로 소규모인 한계와 아티스트톡 등 부대행사의 다양성 제약
종합평가	• 소규모 전시공간을 통한 제도미술과 다른 새로운 양식의 신진작가발굴 노력 • 시각예술의 영역을 확대하여 건축 등 인접분야와 대중문화와의 교류 협력 등 문화적 담론 생산과 소통에 기여 • 하지만 전시장 규모가 너무 적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에 제약이 크며 이를 만회하기 위한 SNS기반의 소통 체계를 강화하며, 인적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대표가 기획자로서 외부 프로젝트에 참여(전반부 파주 미메시스미술관, 후반부 광주 아시아문화전당)하고 있어 공간운영에 올인하지 못하는 관계로 전시 등 프로그램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에 한계가 있음 •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여 개관시간을 변경하고, 윈도우 갤러리 앞 주차된 차량으로 작품이 가려지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주차장이 한가한 주말에도 개관토록 운영시스템을 변경함

33 자하미술관

◆ 공간개요

공간구분	• 사립미술관
공간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창의문로 5가길 46
공간설립일	• 2003년 3월
시설현황	• 3 전시실, 사무실, 세미나실, 교육공간
지원예산	• 30,000,000

◆ 공간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

○ 지역미술관으로서의 역할 및 한국 현대미술의 담론 형성에 중추역할

○ 작가의 새로운 실험을 후원하고 작가와 함께 고민하는 공간

○ 국내외 문화·예술사업에 새로운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하는 공간

◆ 주요 추진계획 및 결과

구 분	추진계획	추진결과
주요기획전시	○ 자체기획전: <안평의 유토피아>, <용한점집_현대 속의 샤머니즘>, <길벗의 정신-현대조각전>, <서상익 개인전> ○ 교류전: 공립&사립미술관 협업 교류전_경기도 미술관의 서울나들이 ○ 외부기획전: Neue Empriker	○ <Lights from the River Flow> ○ <Neue Empiriker> ○ <중구난방> ○ <서상익_모놀로그> ○ <어느의 지시성> ○ <몽중애상-삼색도> ○ <용한 점집> ○ <윤남웅_바람 그리고 놀다> ○ <바다로 가는 강>
프로그램 (교육, 공연)	○ 신진작가발굴 프로젝트: <자하아티스트> ○ 교육프로그램 : 소외계층 미술교육프로그램<LG아트클래스>, <뮤지엄페스티벌>,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 신진작가발굴 프로젝트 <자하아티스트> ○ LG아트 클래스: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술교육의 참여기회 제공 ○ 2015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기타 행사	○ 심포지움: <Rebooting안평> 展 공개 심포지움 진행	○ 몽중애상-삼색도 사전답사, 세미나, 심포지움을 진행 ○ 용한점집 세미나: 샤머니즘의 기본원리와 평론을 이야기하는 자리로 세미나 개최

❖ 사업사진



<몽중애상-삼색도>



<용한점집 세미나>



LG 아트클래스 수업



2015 장애인문화예술향유 지원사업

◆ 창작공간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사업기획	• 자하미술관이 있는 부암동이 가지는 지역적,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현대 작가들과 함께 안평을 재조명하는 기획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음에 주목했음 • 사업목표가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목표와 일치하고 비교적 일 년 동안의 사업기획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사업운영	• 다양한 프로그램(세미나, 심포지움, 답사)으로 관객층을 보다 확대시켜냈다는 점을 평가함 • 미술관은 도심 속 자연과 가장 가까이 위치한 미술관으로 아름다운 시각예술과 자연을 통해 정서적, 심미적으로 힐링하는 열린 미술관으로의 역할을 지향함. 한국의 시각예술을 전시, 연구 및 지원하는 공간으로 다양한 예술장르의 수용하고 현대미술담론 형성과 문화영역의 확장을 지향함. • 특히 타 장르와의 교류로 시각예술의 범위 확대하고자 하며 지역문화 활성화와 관람객들의 더 많은 유입으로 미술관 재정자립도 확대에 남다른 노력을 해오고 있음. 그리고 열린 공간으로서 미술관의 역할 및 공익적활동 확대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세미나, 심포지엄, 답사)으로 관객을 유치하여 지속적 흥미 유발을 통한 관객 확대는 물론이고 지역 주민과 장애우등을 우선 초대하여 운영하고 있음
사업성과	• 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예술 프로젝트로 연결시켜 지역문화예술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및 문화교류를 증진시켜냈다는 점에 주목함. • <몽중애상-삼색도>展등 다양한 현대미술작품들을 전시한 미술관으로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선조들의 인문학 그리고 문화예술의 전기를 되짚는 전시를 추진함으로서 희석되기 쉬운 우리 것에 대한 계승적 차원의 전시를 함 •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획전시의 전시 횟수와 행사일수가 계획과 비교하여 양호함. 관객 및 참여예술인도 9월까지의 통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약간 모자라지만 연말 관객 동원력을 감안하면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종합평가	• 타 장르와의 교류로 시각예술의 범위를 확대시켜내면서 동시에 미술관 공간의 지역적 특성을 전통의 현대화라는 맥락 속에서 결합시켜내면서 미술관 관객을 보다 확대시켜내었다는 점에 대해 주목함 • 지역문화 활성화와 현대미술의 결합이라는 시도를 통해 열린 공간으로서 미술관의 역할 및 공익적 활동 확대를 기대함. • 사업기획, 사업집행, 사업성과 면에서 큰 하자는 없어 보이며, 사업목표가 적정하고 이에 따른 성과도 좋은 편임

34 교동아트미술관

◆ 공간개요

공간구분	• 사립미술관
공간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경기전길 89
공간설립일	• 2007년 4월
시설현황	• 2 전시실, 사무실, 세미나실, 교육공간
지원예산	• 20,000,000

◆ 공간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

○ 예술 창작의 산실 교동아트미술관

○ 국제 네트워크 플랫폼으로서의 교동아트미술관

○ 전업작가의 프로모션 장으로써의 교동아트미술관

○ 신진작가 발굴・육성의 장으로서의 교동아트미술관

◆ 주요 추진계획 및 결과

구 분	추진계획	추진결과
주요기획전시	○ <사제동행: 사제수어지교師弟水魚之交> ○ <한옥마을 아트프로젝트: 경기전에 온 미술가> ○ <인간이 만난 흥과 멋> ○ <2015 젊은 미술전! 이 작가를 주목하라> ○ <아시아 in 전북>	○ <Review, 교동아트미술관> ○ <7980展> ○ <경기전옆미술관> ○ <젊은작가 후원展> ○ <故하상용 유작전> ○ <전주에서 아시아로> ○ <산수풍경展>
프로그램 (교육, 공연)	○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나의 스승, 나의 제자>, <교동투어: 경기전과 한옥마을>, <거리 예술가>, <상상놀이터>, <아시아 in 전북> ○ 전문가양성 교육프로그램: 신진큐레이터 양성을 위한 <Round table> - <시대의 담론>, <평론가와 평론가 큐레이터가 말하는 전북미술 발전방향>, <공간의 경계>, <본질과 실체>, <공간의 언어>, <아시아 현대미술의 오늘 그리고 내일>	○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 전문가양성 교육프로그램 <Round table>
기타 행사	○ 작가연구: <이효철 조각가의 예술관 연구>, <이보영 작가의 예술관 연구>, <황유진 작가의 예술관 연구>, <서완효 작가의 예술관 연구>, <김성수 조각가의 예술관 연구>	○ 문화가 있는날 무료 공연: 구혜경, 김기훈 외 공연팀

❖ 사업사진



<7080전>



<젊은작가 후원전>



<전주에서 아시아로>



<산수풍경전>

◆ 창작공간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사업기획	• 교동아트미술관은 지역의 사립미술관으로서 문화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100프로의 공간 활용 계획의 기획을 추진하는 노력이 매우 돋보임 • 지역 예술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작가들을 폭넓게 수용하고 조명하고자 하는 기획의도가 돋보임. 회화 및 조각과 같은 순수미술의 대표적 장르의 작가들뿐만 아니라 사진, 디자인,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을 초대하여 전시함으로써 다양한 대중들의 관심을 유도했음. 미술관이 위치하고 있는 입지적 조건에 부합하는 적절한 기획의도라고 해석됨.
사업운영	• 매월 문화가 있는 날의 다양한 무료공연을 진행하여 미술관을 찾는 방문자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주는 수준 높은 행사를 진행하고, 적극적인 보도자료의 홍보로 언론의 호평을 받음 • 타 기관에 비해 다수의 인력들이 존재하며 대부분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있음. 이는 고용의 안정과 적절한 업무분배로 효율적이면서 체계적인 조직운영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미술관의 장점임. 이러한 인력 규모로 전시에만 국한된 활동범위를 탈피,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 및 공예 디자인 품목 개발과 판매 등 폭넓은 미술관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사업성과	• 조화로운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다양한 연령의 미술인들이 참여하였고 다양한 장르의 전시조합으로 지역 미술문화 발전에 높은 기여를 함 • 연간 20회가 넘는 전시를 개최하고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중심으로 다수의 공연프로그램들을 진행했다. 전시의 내용 또한 다양한 장르를 폭넓게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젊은 작가부터 지역의 중견 작가 까지 다수의 작가들을 초대하여 전시를 진행했음. 특히 지역의 학교를 졸업하고 아직 본격적으로 조명 받지 못한 젊은 작가들을 초대하여 전시하는 것은 미술관의 포지셔닝 상 적절한 활동이라고 생각됨
종합평가	• 지역의 사립미술관으로서 열악한 재정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이며 성실한 운영을 하는 우수한 미술관으로 평가됨 • 교동아트는 수많은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입지조건이 매우 좋은 편임.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전시의 내용에 크게 집중하지 않는 관광객 중심의 관람객 분포로 인해 오히려 진성관객의 진입을 방해할 수도 있음. 교동아트의 전시들은 폭넓은 수용력으로 다수의 예술가들을 아우르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관람객들의 부담 없는 진입을 유도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장점을 갖고 있음

34 다산미술관

◆ 공간개요

공간구분	• 사립미술관
공간소재지	•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다공길25
공간설립일	• 2001년 4월
시설현황	• 3 전시실, 사무실, 세미나실, 교육공간
지원예산	• 10,000,000

◆ 공간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

○ 상대적으로 문화소외지역인 화순군 지역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통해 지역의 문화 활성화를 도모

○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통해 사고의 벽을 허물고 이 지역에도 문화예술공간, 문화예술인 등이 있음을 알게 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고 문화자원을 발굴

○ 지역 미술관이 문화 매개자로 활동하여 공공기관의 확장된 역할과 의의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

◆ 주요 추진계획 및 결과

구 분	추진계획	추진결과
주요기획전시	○ 지역작가발굴 및 청년작가지원전: <청년작가지원전-Blue Mood> ○ 교류협력전: <지역연계교류협력전-공감 3-2>, 지역연계교류협력전-4-3> ○ 문화융복합 전시: <light2015> ○ 기획초대전: <황선화>, <이은경> 개인전, <미디어전>, <국제드로잉전> ○ 다산미술관 소장품전	○ 기획프로그램 : <Blue Mood>, <유유자적-황선화전>, <아름다움을 탐하다-이은경>, <공감4-3 노여운, 이재호, 전승>, <한지조형전-민은주>, 최혜심전>, <조선대학교 이공대학 톡톡튀는 creative전>
프로그램 (교육, 공연)	○ 전시연계 참여프로그램 : 전시특성에 따라 에듀케이터의 프로그램 기획 ○ KB박물관 노닐기 창의적 체험프로그램	○ 전시연계 교육 : <Blue Mood>, <뮤지움페스티벌 나비의 사랑>, <아름다움을 그려요>, <하면돼지>, <자연미술>, <공감동행>, <다산리, 오색빛깔로 물들다>, <한지조형전>, <다산리, 무지개및이야기>, <박이어라-최혜심전>, <흥부네 박축제>
기타 행사	○ 문화가 있는 날 연계 전시감상 프로그램 진행 ○ 작가와의 만남: 작가와 관람객간 대화 프로그램 ○ 참여작가와의 토크쇼: 화순지역, 초, 중, 고등학교와 연계 각 전시에 따른 참여작가와의 토크쇼 ○ 청소년 문화복지프로그램	○ 한지조형 워크숍 ○ 박축제 흥부네 박이야기

❖ 사업사진



<Blue Mood>



<공감3-2>



<화담>



<화담>

◆ 창작공간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사업기획	• 전반적인 계획선상에서 청년작가를 배려하는 정체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경복문화원과의 교류 협력방안은 우수 • 화순이라는 소재지의 지역성에 맞춰 지역 작가를 발굴하고 조명하는 전시와 인근 지역에 소재한 창작스튜디오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입주작가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는 등 지역성에 초점을 맞춘 사업 기획의 방향성이 드러남 • 청년작가지원전, 경복문화원과의 공감전, 2인전, 개인전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다소 평이한 진행으로 미술관이 자립잡고 있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음
사업운영	• 전시기획, 교육프로그램 등의 자체행사를 지역에 알려내는 홍보매체인 언론사와 긴밀한 협조로 인하여 많지는 않아도 꾸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노력은 매우 효과적임 • 같은 지역에 위치한 창작스튜디오 기관인 경복미술관과 협업을 도모, 입주작가들의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은 한정된 조건하에 있는 지역미술관으로써 그 활동반경을 확대시키는 적절한 사례임. 또한 지역의 작가들을 다수 조명하고자 하는 활동과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활동은 그 반향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전시기간 중의 전시를 찾아오는 관람객대상 교육프로그램 혹은 다양한 방문자 서비스를 위한 노력의 부재가 아쉬웠음
사업성과	• 전시를 참여한 작가들에게 많은 자율성과 동기부여를 가능케 하여 스스로를 검증하는 의미 있는 시공간을 작가에게 제공함 • 조선대학교나 인근 경복미술원 등의 기관협력과 지역작가를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활동으로 인해 지역 미술계의 분명한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역의 젊은 작가들의 작품이 미술계에 소개되는 적절한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음
종합평가	• 지리적 특성으로 많은 관람객이 찾아오기 어려운 상황에도 양질의 전시와 미술관 유지관리를 위한 미술관 학예직들의 노력과 정성이 느껴지는 상황이었음 • 다산미술관은 광주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에 위치한 미술관으로써 다른 미술관에 비해 좋은 배후조건을 지니고 있으나, 활용 여하에 따라 그것이 악조건이 될 수도 있음. 결국 모객과 공공활동은 철저히 지역민을 향하되 전시 및 내용의 기획은 굳이 지역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임. 또한 동시대적 개념을 지향하는 기존의 기획방향을 보다 강화시킬 필요도 있음. • 지역인근의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하는 노력을 하며 이를 통하여 관람객 증대와 미술관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작지만 알차고 특정부분에서 인정받는 문화공간으로 발전가능

Ⅳ. 우수사례

1. 국제교류 우수사례-토탈미술관
2. 운영전략 우수사례-Project Space 사루비아다방
3. 지역공간 우수사례-스페이스몸미술관
4. 청년공간 우수사례-800/40

Ⅳ. 우수사례

1. 국제교류 우수사례 – 토탈미술관

가. 토탈미술관 개요

○ 토탈미술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미술관으로 1976년 서울, 동숭동 대학로에서 디자이너를 위한 갤러리로 출발
- 1984년 경기도 장흥에 국내 최초의 야외 조각공원을 설립하여 2002년까지 예술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은 명소로 자리매김함
- 미술관의 개념 확대와 함께 1992년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예술 전반을 통섭하는 현대적인 전시장을 마련함으로써 본관으로 정착
- 이 공간은 국내외 현대미술 전시 외에도 음악회와 각종 이벤트, 교육프로그램, 도서 간행, 강연, 워크숍, 세미나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문화를 폭넓게 수용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역할을 함
- 토탈미술관은 개관이래로 프랑스문화원, 독일문화원, 영국문화원과 같은 각국 문화원은 물론 싱가폴 관광청 등 다양한 협력기관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해 옴

○ 토탈미술관은 전시공간 환경의 한계로 인하여 기획전시의 경우 3월-6월, 9월-11월에 진행하고 있으며, 전시가 없는 12월에서 2월, 7월에서 8월 사이에는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젝트들을 장기적으로 진행
- 2010년에 시작한 〈Playground in Island〉는 올해로 6년 차를 맞았고, 2011년에 시작한 〈로드쇼〉는 5년차를 맞이함
- 장기적으로 지속해온 이들 프로젝트는 토탈미술관의 대표적인 국제교류프로젝트로서, 〈Playground in island〉는 지금까지의 교류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부터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 한국작가 및 기획자를 위한 레지던시, 큐레이터 양상과정 기획 및 쇼케이스 운영 등의 성과를 이루었음

나. 국제교류프로그램

1) 로드쇼2015_7번국도

① 프로그램 목적 및 내용

○ 토탈미술관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중 하나인 〈로드쇼(Road Show)〉는 매 년 해외에서 기획자(혹은 기획을 겸한 작가)와 국내작가 및 기획자를 초청하여 함께 여행을 하면서 작품과 프로젝트를 하는 새로운 형식의 국제프로젝트임

– 〈로드쇼〉는 연간 2회 이상 실시되며, 매회 20여명의 작가 및 기획자가 참여하는 프로젝트임

○ 〈로드쇼2015_7번국도〉 프로젝트는 해외(아시아)에서부터 초청한 기획자들과 한국 작가들이 함께 포항에서 고성까지 함께 여행하는 과정에서 퍼포먼스, 영상작업, 토크 등의 시간을 갖고 해외 기획자들과 한국 작가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교류함

– 이 과정에서 토탈미술관은 한국 작가를 국내외로 소개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표4-1〉 로드쇼 2015 7번국도

■ 로드쇼2015_7번국도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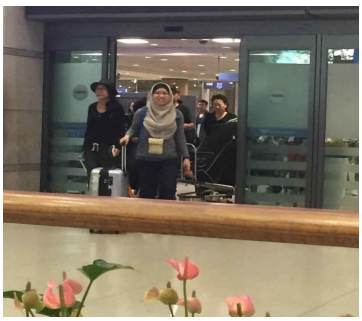
- 일정: 2015. 10. 5 – 10. 9 / 총 5일
- 참여자: Haymann Oo(미얀마), Marina Abdul Ghanie(말레이시아), Melanie Pockock(싱가포르), Prajna Desai(인도), Gregoire Michot(프랑스), 노기훈, 노세환, 노순택, 안종현, 유목연, 최대진, 최윤석, 서준호, 신보슬, 우혜진, 전우치, 전지호

○ 세부일정:

- 5일(월): 서울-구미-포항 /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대통령 생가, 구미초등학교
- 6일(화): 포항-울진 / 죽도시장, 포스코, 해맞이공원, 이명박 대통령 생가
- 7일(수): 울진-강릉-인제 / 울진 원자력발전소, 금진해변, 헌화로, 정동진
- 8일(목): 인제-속초-인제 / 설악산 국립공원, 백담사, 백공미술관
- 9일(금): 인제-고성-서울 / 김일성 별장, 이승만 별장, 대진해변, 통일전망대, 토탈미술관
- 저녁마다 작가와 해외큐레이터들의 각각의 프레젠테이션 시간을 별도로 갖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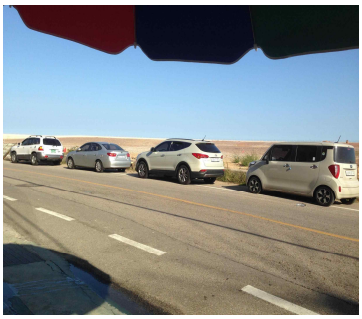
〈로드쇼2015_7번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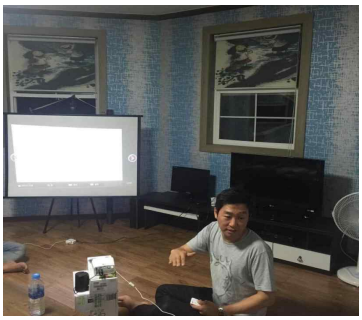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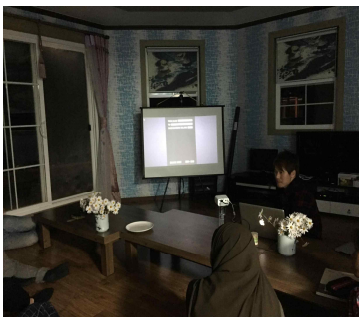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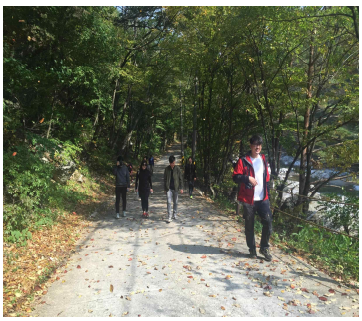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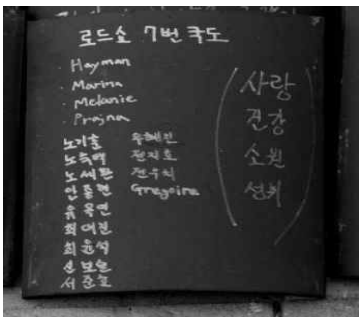








② 프로그램 성과

○ 아시아 4개국 큐레이터와의 교류의 장 마련
-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에서 온 큐레이터들과의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는 각국의 미술계 상황을 소개

○ 후속사업으로 '로드쇼2016 에디션' 요청
- 미얀마에서 온 Haymann Oo로부터 〈로드쇼 미얀마〉편에 대한 제안을 받았으며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
- 인도 뭄바이에서 온 Prajana Desai역시 토탈미술관에서 기획중인 〈로드쇼: 봄베이에서 고아까지〉에 대한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하기로 함

○ 해외 레지던시 및 전시 관련 제안
- 인도 뭄바이를 기반으로 독립기획자이자 Dharvi Biennale 큐레이터로 활동한 경력 Prajana Desai는 노순택, 안종현, 노기훈의 작품을 인도에 소개하는 전시를 준비하기로 협의함

○ 한국현대사 및 역사에 대한 고찰
- 문화와 예술은 역사와 사회를 떠나서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가와 큐레이터들이 직접 지역을 방문할 기회를 얻기 쉽지 않은 한계가 있음
- 이번 로드쇼를 통해서 구미를 거쳐 포항에서 고성까지 7번국도를 해외 큐레이터와 함께 여행하면서 한국현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됨

2) Playground in Island 2015

① 프로그램 목적 및 내용

○ 〈Playground in island〉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Kolej Yayasan Sabah(KYS)와 함께 국제아트페스티벌의 파일럿 프로젝트로 2011년부터 진행해 온 프로젝트임

○ 토탈미술관과 5년째 협력관계를 맺어오고 있는 Sabah Animation Creative Content Center 와 함께 한국의 사진, 영상, 회화, 미디어아트 작가들이 전시 및 워크숍을 진행하여 한국현대미술의 다양성을 소개

- 특히 2015년에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유명한 천연나염 방식인 바틱(Batik)을 주요 모티브로 한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시방식에 국한되지 않고, 예술의 사회적 기여 및 역할에 대한 실험적인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도
- 바틱, 브랜드 네이밍, 패턴디자인, 큐레토리얼 프로그램 등 프로젝트를 한 단계 발전시켜 심화시킬 수 있는 워크샵을 진행함
  · 보르네오 바틱 학교와 연계해 바틱의 개념과 의미, 기술 등에 대해 배우고 직접 만들어보며 체험하였으며, 더 나아가 바틱과 아티스트의 협업을 통해 단지 교육이나 시연의 모습을 넘어 현지 작가와 학생, 참여 해외작가들이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이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바틱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관련 상품을 함께 개발하고 브랜드 네이밍을 하고자 하며, 현대미술기반이 부족한 코타키나발루 현지에 갤러리와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기록물로서의 포토북이나 메이킹 필름 등을 전반적인 기획 부분에 있어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자 하였음

〈표4-2〉 Playground in Island 2015

■ Playground in Island 2015

○ 개요

- 일정: 2015. 12. 15 - 12. 22 / 총 8일
- 장소: Batik School 워크숍 공방
- 참여자: 김은아, 김지연, 노순택, 서준호, 서효정, 신보슬, 이미혜, 윤예지, 전우치, 전지호, 최윤석 말레이시아 현지 참가자

○ 세부일정

- 16일(수): 바틱학교 도착, 한국팀 환영회 및 참가자 소개, 바틱 재료탐색 및 실습시간
- 17일(목): 바틱 스카프만들기 실습: 종이 위에 패턴뜨기, 쉬폰실크 위에 스케치하기→챤띵으로 천 위에 왁스물로 그리기→완성 후 윤곽선 한번 더 잡아주기→밑작업이 끝난 천을 비눗물에 10분 담가두기→염색할 색상을 고르고 색물에 30분간 담가두기→담그고 말리기를 수차례 하며 원하는 색 얻기→스카프 바탕의 염색작업이 끝나면 왁스에 열을 가하여 뜯어내고→남은 흰색 부분에 추가 염색→수차례 반복적인 염색과 건조과정을 거쳐 스카프 완성
- 18일(금): 보르네오섬의 문화와 전통을 알기 위해 코타키나발루 박물관 투어뮤지엄 사바, 현대미술관, 전통 원단시장 방문
- 19일(토): 바틱의 천연재료를 얻을 수 있는 곳 탐험1(키나발루산, DESA농장, KUNDASANG 전통시장 방문)
- 20일(일): 바틱의 천연재료를 얻을 수 있는 곳 탐험2(BUKAU RIVER 방문, 바틱의 원료인 맹그

로브 숲 리서치)
- 21일(월):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현지팀과 한국팀의 의견교환, 완성된 실크스카프 발표회, 양팀 기획자회의 → 2016년 프로젝트 일정 및 계획

〈Playground Island2015〉



② 사업성과

○ 한국현대예술작가들의 다양한 기여 가능성 확인
- 바틱은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천연나염기법임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를 제외하고는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활용도 역시 전통공예의 분야에 머물러 있음
- 이번 〈Playground in island〉에서 한국 사진작가, 영상작가, 패턴 컨트롤러, 애니메이션 작가들의 방문을 통해 바틱을 다양하게 홍보 활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

○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현지 학교 및 학생들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 이번 〈Playground in island〉는 단순히 바틱의 기술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장르에서 참여한 전문가들이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현지 바틱학교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코타키나발루 레지던시 및 큐레이토리얼 코스 개설을 위한 MOU
- 바틱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진행을 위해 UCSF (Univeersity College Sabah Foundation)산하 SAC3 (Sabah Animation & Creative Content Centre) 와 MOU를 체결하여 작가와 큐레이터가 함께 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 (1년에 1회, 작가와 기획자 2인, 항공 및 숙박, 체류비 지원)을 운영하고, SAC3에 있는 갤러리 운영을 위한 기획자 양성코스를 진행하기로 함

○ 종합적으로 〈Playground in island 2015- Batik Story vol.1〉 유네스코 무형유산인 인도네시아 바틱에 대한 사전리서치와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한 향후 다양한 콜레보레이션의 가능성을 열었음은 물론이고, 리서치와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한국의 천연나염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음
- 이를 통해 향후 이어지는 3년간의 파일럿 프로젝트 기간 동안 한국의 천연나염과의 접목, 한국예술가들의 아티스트 라인 개발 등 다양한 실험적인 모색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2. 운영전략 우수사례 -사루비아다방

가. Project Space 사루비아다방 개요

○ Project Space 사루비아다방은 예술의 다양한 분야, 즉 미술을 중심으로 건축, 음악, 무용, 필름 등을 포괄하는 실험적인 예술을 지원하는 비영리갤러리임

- 사루비아다방은 나이와 경력, 작업경향에 구분을 두지 않고 독창적 사고와 실험 정신에 바탕을 둔 예술가를 선정하여 기획한 작품을 제작하고 전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자 설립
- 1999년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문화계 내의 명소, (구)사루비아다방을 인수하여 설립되었으며, 1999년 한국의 대안공간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사루비아다방은 한국 현대미술계 내의 대안적 기능을 수행하고 그 대안의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모색하는 역할을 해 옴

○ Project Space 사루비아다방은 창의적 사고와 실험 정신이 분명한 작가를 선정하여 지원한다는 것과 지나친 예술 분류 기준에 의한 선입견을 버리고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입장에서 예술창작 산실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사루비아다방은 모든 전시에 프로젝트 개념을 강조하고 프로젝트 개념의 확장을 지향

- 새로운 개념과 담론, 경향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현대미술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강조하고자 함
- 또한 사루비아다방은 명확한 주제와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작업을 위해 전시, 프로젝트의 기획과 진행에서 뚜렷한 목적의식을 구현해나가고자 함
- 이는 작가와 대중을 연결하는 매개자로서 예술 영역의 확장과 소통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란 생각으로 위와 같은 목표를 추진

○ 1999년 설립이후 운영위원회 7인과 전시기획 및 진행 등 실무담당 큐레이터 2인으로 구성된 운영체제로 운영이 지속되었으나, 2014년 운영체제의 변화가 발생함

나. 사루비아다방 운영전략

1) 사루비아다방의 운영체제 변화

① 운영 체제 변화

○ 사루비아다방은 운영의 투명성(사단법인, 전문예술법인), 운영위원 제도, 프로젝트 개념의 독자적인 전시, 지역네트워킹 워크샵, 후원의 밤 등 15년간의 활동을 통해 한국미술계에 기여하며 대안공간의 선두주자로 입지를 다져왔음

- 그러나 2008년 하반기 이후 운영자금 위축으로 인해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전시영역의 확장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고, 급기야 2014년 존폐 위기로 운영위원들이 물러나고 미술인들의 회원제 중심공간이자 큐레이터 체제가 강화되는 시스템을 시작하려는 과도기를 맞게 됨
- 사루비아의 운용자금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이 되어버린 현 상황에서, 어려움이 많지만 프로그램의 변화를 꾀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은 운영체제 변화를 통한 사루비아다방의 공공성, 실험성, 확장성(네트워크)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15년간 지속해온 기존 운영위원 체제(기존 이사진 사임)에서 미술인(회원)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공간이 되고 큐레이터쉽이 더 강화되는 운영 시스템을 구축
- 현재 회원 60명(연 100만원, 5년 약정)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며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신규 큐레이터를 영입하는 등 큐레이팅을 강화함

② 공공성 및 재정자립성

○ Project Space 사루비아다방은 15년간 지속해온 기존 운영위원 체제(기존 이사진 사임)에서 미술인(회원)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공간으로 운영체제는 변화하였으나 사단법인 체제는 그대로 존속됨

- 기금은 운영위원들의 사재출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금 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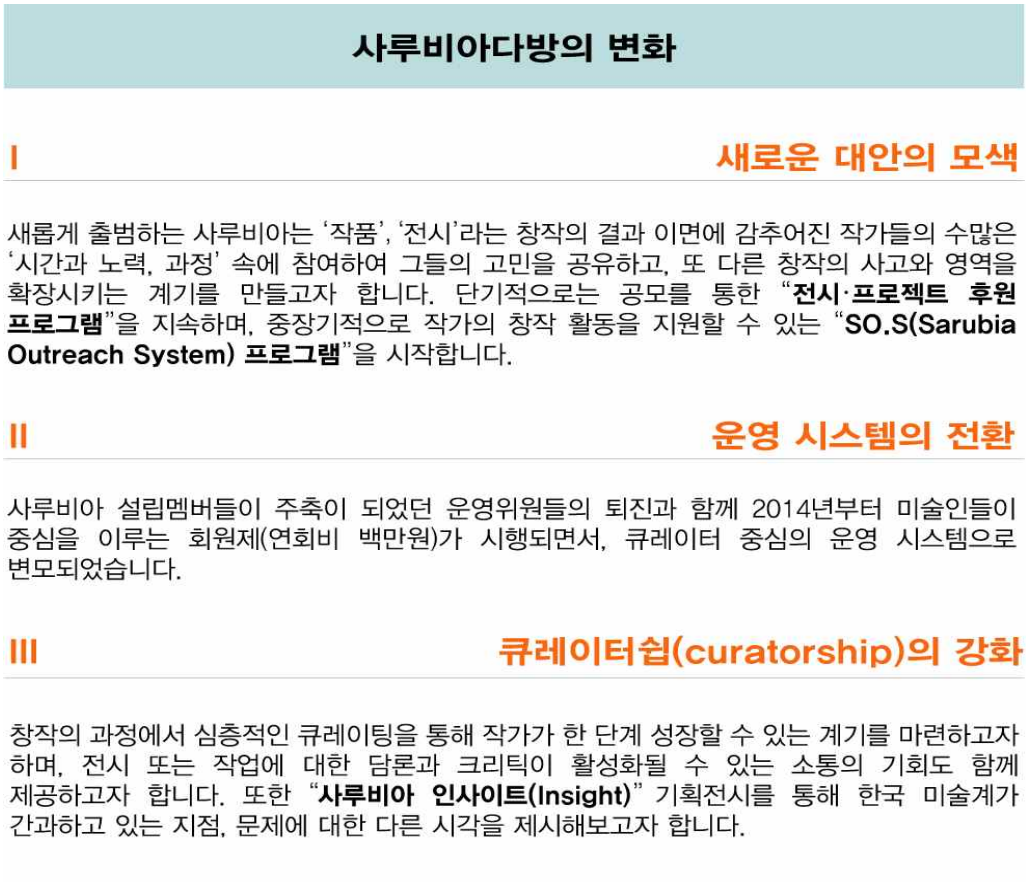
기금마련행사(후원의 밤, 기금마련전시), 전시 및 운영 아웃소싱, 기부금 모금(지로 발행을 통한 후원금 납부 등), 회원제 운영을 통해 조성

- 또한 전문예술법인을 통해 일반인 및 기업의 기부참여를 도모함과 동시에 운영기금수입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음

○ 공간 운영의 공공성 및 재정자립 확보를 위한 활동 강화

- 회원제 운영을 통한 기부금을 조성하여 공간의 자생력을 위한 기부전략을 모색하였으며, 〈후원의 밤〉, 〈기금마련전〉을 통한 재원 마련 및 변화된 사루비아 이미지를 홍보
- 전문예술법인을 통해 일반인들 및 기업들의 기부문화의 참여 도모하고,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갤러리 공간 아웃 소싱을 통해 재원 마련 및 미술영역 확장

〈그림4-1〉 사루비아다방의 변화 모색 방안



2) 새로운 전시시스템 도입

○ 사루비아프로젝트 스페이스의 변화된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실험적인 프로젝트, 네트워크, 현장시스템이슈, 아카이브 등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

① 실험적 창작을 위한 전시여건 제공

- 예술전문성, 창조성, 실험성 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실행 : 공모진행 1차 심사(내부심사), 2차 심사(면접 : 작업실 방문)를 통해 만장일치제로 선정
- 선정된 작가에게 창작지원금 제공, 작업설치 15일 /전시 1개월 제공
- 적극전인 전시연출 및 서포터 역할을 제공 (검토-논의-실험-검증·비평-담론)

② 사루비아 인사이트(Sarubia Insight)

- 한국의 현대미술 시스템이 시대에 흐름에 맞춰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관습화된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주제 전시를 기획
- 국내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해외 작가들의 네트워크 부재를 강화하며 국내 미술계 전문가의 심층비평의 자리를 갖는 〈사루비아 기획전 Ⅰ- 맞물린 대화〉, 예술 장르의 경계지점에 위치하거나 타 장르의 접근방식으로 예술의 실험성을 제시하고 있는 작업을 소개하고 예술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두는 〈사루비아 기획전 Ⅱ- In Between〉, 한국의 미술대학이 해마다 시행하는 졸업전시와 과제전시의 기능과 소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루비아 기획전 Ⅲ - 제3과제전〉 등을 구성
  · 맞물린 대화 : 우정수, 유목연, 김동규, 김신애 작가 공모기획전
  · In Between : 사루비아 인사이트 기획전 요건 던호펜 〈근시〉, 적극 〈다베르트 스튜디오〉
  · 제3과제전 : 미술대학 4학년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하였고, 전국 25개 대학에서 97명이 지원하여 최종 6명을 선정

〈표4-3〉사루비아 공모기획전

■ **공모기획전_김동규 〈비정형특강〉**

- 기간: 9. 9 - 10. 11 (전시), 8. 19 - 9. 8 (작업/설치)
- 내용: 김동규는 2012년 동묘에서 우연히 구입한 앵포르멜 양식의 추상화 한 점을 소재로 『정념의 연대』라는 주제 아래 영상과 출판, 드로잉, 도해 등으로 구성된 중장기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진행. 『비정형 특강』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 전시는 지난 4년간 작가가 천착해 온 정념의 의미와 구조, 작동원리를 회화와 설치, 드로잉과 퍼포먼스를 통해 파악해 보는 자리이자, 「정념의 연대」 연작을 총 정리하는 시간

〈김동규 '비정형특강' 전시 광경〉



〈표4-3〉사루비아인사이트(Sarubia Insight)

■ **이슈 기획전_사루비아 인사이트(Sarubia Insight)**

○ 사루비아 기획전 Ⅰ : 요건 던호펜_ '근시'

- 기간: 4. 8 - 4. 30 (전시), 3. 18 - 4. 7 (작업/설치)
- 내용: 전시 주제인 근시(Myopia)'는 자아와 세상과의 거리,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인식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로 호펜의 조각에서는 관객의 보는 행위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내는 렌즈와 함께 고된 노동의 시간을 거쳐 완성된 나무 재질의 형상을 만나볼 수 있음

〈요건 던호펜_ '근시' 전시 광경〉



③ SO.S 프로그램 전시

- SO.S (Sarubia Outreach System) 프로그램은 기획자가 작가의 작업실을 직접 방문하여 크리틱, 미술계 전문가들과의 매칭(Matching), 카운슬링(Counseling)을 제공하고, 미술정보 및 자료 공유를 통해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전시형태로 진행되는 기획프로그램임
- 지원대상은 40세 이상 작가(A그룹),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B그룹), 40세 미만 작가(C그룹)의 세 그룹으로 선정

○ 본 사업은 사루비아 자체적으로도 처음 시도하는 1년 6개월간의 중장기 프로그램으로서, 미술계의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시작

3) 현장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 SO.S(Sarubia Outreach System)는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이 2015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작가지원 프로그램

- 본 프로그램은 작품, 전시와 같은 창작의 결과물 이면에 감춰진 작가들의 수많은 시간과 노력, 과정 속에 큐레이터를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그들의 고민을 공유하고 또 다른 발전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작가의 창작활동을 중장기적(2년간)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수많은 전시 행태가 결과에 주목하고 일회성의 소모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에 대한 반성으로, 작가가 오랜 작업의 과정에서 고민하는 지점을 직접 듣고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
- 작가가 직면한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는 미술계 전문가 또는 적임자를 1:1 형식으로 매칭(Matching)하여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채널 제공
- 한국 미술계의 운영 논리에 작가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작업실에서부터 출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건설적인 창작 풍토를 만들고,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작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피드백을 구하고자 함
- 매칭을 통해 창작의 조력자이자, 심도 있는 크리틱, 작가의 고유한 언어를 복원시켜주는 매개자로서 대안공간의 기능을 강화하며, 미술정보 및 자료 공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자의 질적인 만족도에 초점

을 맞추고자 함

○ SO.S (Sarubia Outreach System) 프로그램 2년 간 실행, 교육 및 전시는 격년제로 시행

- 1:1 맞춤 서비스로 작업실 방문을 통한 크리틱, 미술계 전문가들과의 매칭(Matching), 카운슬링 (Counseling), 미술정보 및 자료 공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
- A. 40세 이상 작가 : 제도권 밖의 작가들과 네트워크
- B.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 : 지역네트워킹 활성화
- C. 40세 미만 작가 : 작품 및 전시 연구지원 프로그램

〈표4-5〉 SO.S 프로그램

중장기 프로그램
SO.S
Sarubia
Outreach
System

■ SO.S 프로그램 공모 심사 진행 결과

○ 2015년 6월 첫 공모를 시작, A, B, C 그룹 총합 111명이 지원
- 이번 심사는 작가들의 오랜 작업과정에서 도출되는 고민을 듣는 것에서 시작하자는 기본 취지에 맞춰 나름대로 타당한 기준을 설정하고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작업과 경력을 검토하는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침

○ 그룹별 선정작가
- A그룹(40세 이상 작가): 민재영, 이소영
- B그룹(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 이지유, 김미련
- C그룹(40세 미만 작가): 김주리, 박재영

○ 진행사항
- 9-11월 : 작가 6명 1차 작업실 방문(사루비아 큐레이터 3인)




3. 지역공간 우수사례 – 스페이스몸미술관

가. 스페이스몸미술관 개요

○ 스페이스몸미술관은 2000년 전시 공간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계층을 넘나드는 90여회의 기획전을 개최
- 미술의 다양한 양태를 수용하려는 노력으로 젊은 작가들의 실험적인 안목을 소개하고 기존시각에 탈 시각을 만들어가는 주체들의 깊이 있는 작품발표는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설치미술, 영상매체 등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현시대의 흐름을 보여주는데 주력

○ 2005년 12월 미술관으로 등록하면서 보다 폭넓은 작품들과 작가들을 소개하였으며, 개인작품 발표의 기능을 넘어서 다양한 시각을 묶어 보는 주제기획전을 진행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음
- 특히 스페이스몸미술관이 주목하는 것은 전통과 현대와의 조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라 할 수 있음
- 전통 옹기와 현대도예가의 만남인 〈옹기! 그 힘과 울림〉2006년, 청화백자와 현대작가들의 간결한 단순성에 초점을 맞춘 〈최소한의 흔적〉2007년, 동자석, 문인석 등의 옛 석인과 현대작품에서 나타나는 얼굴을 살펴보는 [얼굴 그리고 기억-얼굴, 욕망의 파사드]2008년, 2009년 국악과 음악성이 강한 회화 작품이 한자리에 펼쳐진 [소리풍경]을 통해서 전통의 아름다움과 현대적 미감을 발견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동시에 현대에 근거가 되는 전통을 함께 보면서 예술의 영향과 그 의미를 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또한 현대미술의 틀에 박힌 화이트 큐브로서의 전시 공간을 탈피하고 작가 개인의 다양한 스타일을 공간과 연계하여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작업공간 제공
- 도심 속에 위치한 제1관과 자연과 어우러져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는 제2관의 개성 있는 공간은 작가들에게 새로운 자극이 되고 창작의 욕을 고취시키며 관람객에게는 색다른 감각적 경험을 제공

○ 스페이스몸미술관은 비영리기관으로서 수집, 출판, 교육과 문화예술교류에 힘쓰고 있음

- 대중과의 소통과 어린이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체험프로그램, 문화행사 등을 통해 가까운 미술관으로 예술을 함께 교감하고 누리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기획 프로그램

1) 기획력의 우수성

○ 스페이스몸미술관은 상업적 갤러리에 대안적 모색으로 시작하여 젊은 작가들에게 기회와 실험의 장이었다면, 미술관 등록 후에는 우리의 전통적 미감에 대한 현대적 관점을 밝히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공간으로 탈바꿈하였음

- 근원으로서의 미감에 대한 깊은 관심이 반복되면서 정형화되어가는 관성적 접근을 탈피하고자 차원을 달리한 새로운 형식의 전시로 도약이 필요함에 따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스페이스몸미술관은 지역 소재의 미술관으로서 가장 높은 수준의 동시대성과 차별성을 획득하여 지역미술관의 우수한 운영의 전형이 됨

- 적절한 동시대성을 갖춘 감각적인 전시기획과 작가 발굴,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꾸준히 시도해 온 미술관으로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 미술관의 선도적 모델로 거론할 수 있는 곳임
- 특히 지역의 작가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 전시기획의 일관성과 연구의 노력이 다른 미술관에 비해 우수
- 대부분의 전시들이 적절한 미학적 수준과 차별화된 내용, 그리고 균형 잡힌 구성과 배치능력을 보여주고 있음

2) 프로그램 내용

○ 2015년 제시어 ‘위치의 탐색- 장소’를 바탕으로 ‘위치와 속도’의 지표를 예술적 시각으로 살펴봄으로써 나아갈 방향을 설정

- ‘장소’를 키워드로 전시를 기획하여 ‘과거의 장소이자 삶의 터전인 회령’을 ‘장소를 품다-회령展’으로, 영역의 문제를 다룬 ‘바리케이트展’, 시간의 공간과 기회된 물성을 주제로 한 ‘불사조는 잿더미로부터 나오는가 展’, 연약하고 예민한 틈에 대한 내용을 담은 ‘차이의 공간展’,

사적장소의 공적표상을 주제로 한 ‘관계의 감각展’을 기획

〈표4-7〉 스페이스몸미술관 전시 키워드

2015년 제시어 위치의 탐색 - ‘장소’ **2016년 제시어** 속도의 관측 - ‘시간’		
‘위치’로서의 ‘장소’		
과거의 장소이자 삶의 터전인 회령	⇨	장소를 품다-회령展
영역의 문제	⇨	바리케이드展
시간의 공간-기화된 물성	⇨	불사조는 잿더미로부터 나오는가展
연약하고 예민한 틈	⇨	차이의 공간展
사적장소의 공적표상	⇨	관계의 감각展

〈표4-8〉 차이의 공간

■ 차이의 공간 展

○ 전시개요

- 기간: 2015.5.7-5.28
- 장소: 스페이스몸미술관 제 2, 3전시장
- 구성: 신현경-회화 29점 / 윤상렬-혼합매체 16점
- 참여작가: 신현경, 윤상렬

○ 전시내용

- 신현경, 윤상렬 작가는 가는 선(線)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사이를 넓히고 깊이를 만들어 심리적 환영의 공간으로 만들어 감. 겹쳐지는 선은 특별할 것 없는 좁은 간격의 표면 이미지일 뿐이지만 결국 공간을 생산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이동. 〈차이의 공간〉展은 규칙적인 선과 반복적인 행위로 유사하게 읽힐 수 있는 신현경, 윤상렬 작가의 연약하고 예민한 틈을 살펴보는 전시
- 제 2전시장에서는 수행적 그리기를 통해 화면을 확장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작업하는 신현경 작가의 전시가 진행되었고, 제 3전시장에서는 미세한 선들의 변주와 여러 층의 레이어로 시각적 일루전을 만들어내는 윤상렬의 전시가 이루어짐





〈표4-9〉 장소를 품다

■ 장소를 품다-회령 展

○전시개요

- 기간: 2015.9.18-10.9
- 장소: 스페이스몸미술관 제 1, 2, 3전시장
- 구성: 회화, 드로잉, 설치, 회령항아리 66점
- 참여작가: 유근영, 차명희, 정승운, 채우승, 뮈ᄭᅮ다(전상용/김기이), 회령항아리

■ 전시내용

- 깊고 오묘한 빛깔을 내는 회령항아리의 미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참여 작가들의 새로운 창작을 발전시킨 〈장소를 품다-회령〉展은 함경북도 회령의 강인하고 호방함을 보여주는 회령항아리의 기질적 특성과 미감을 살펴 보고, 작가의 시선으로 환기시켜 바라봄으로써 전통과 현대적 해석을 새롭게 풀어보는 전시
- 먼저 2관에는 강렬한 색채와 거침없는 붓질로 자연을 담으며 표현적 정서의 화음을 만들어내는 유근영의 회화와 회령항아리가 배치됨. 한반도 북부지방 사람들의 일상용품으로 자리 잡았던 회령항아리는 화려한 색감을 지니고, 굽에는 유약을 묻히지 않은 것이 특징임. 3관에는 중앙에 회령항아리를 두고 운율적인 선으로 자연스러운 행위의 흔적을 남기고 무작위의 자연적 현상에 의지하여 화면을 구성하는 차명희의 회화, 지금은 갈 수 없는 회령 지역의 산세를 연상시키는 모눈종이 뭉치를 회령항아리 위에 결합시킨 정승운의 설치, 항아리의 형태적 구성을 대나무를 얇게 쪼개 평면적인 전개도로 펼쳐서 보여주는 채우승의 구조물이 배치됨. 1관에서 오방색의 천이 회령항아리의 안을 채우고 하늘로 이어지는 길을 여는 가운데 불타고 녹슬어 버려진 자전거가 숯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금박의 거울 너머로 승천하는 장면이 연출







〈표4-10〉 불사조는 재로부터 나올것인가?

■ 불사조는 재로부터 나올 것인가?-1년 후에 개봉된 상자 1,2,3,4 展

○기획의도 및 목적

- 재료와 물질, 오브제 등을 매개로 과거의 시간인 삶의 조각, 떠오르는 기억의 편린들을 수집하는 허구영 작가의 철학적 사유를 스페이스몸미술관의 공간구조를 활용한 마지막 프로젝트를 완성

○전시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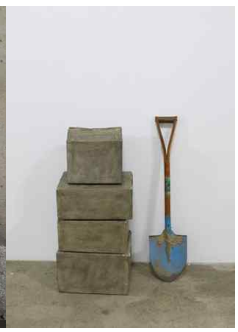
- 기간: 2015.11.6-11.20
- 장소: 스페이스몸미술관 제 3전시장
- 구성: 영상, 공간설치 7점
- 참여작가: 허구영

○전시내용

- 〈불사조는 재로부터 나올 것인가? - 1년 후에 개봉된 상자 1, 2, 3, 4〉는 지난 해 11월을 시작으로 세 차례 동안 스페이스몸미술관 1, 2, 3관을 허구영 작가가 순차적으로 점거하는 장소 특정적 프로젝트의 마지막 전시임. 작가는 오랫동안 자신이 보관해두었던 빛바랜 기록물과 오브제 등을 하나씩 꺼내어 공개. 이것들은 지난 전시에서 상자 안에 넣어져 1년 동안 비밀스럽게 잠자고 있던 것으로 작가의 사유와 아이디어가 담겨있는 기록물과 오브제임. 작가는 이들을 꺼내 다시 밀납기법(안료-재)으로 페인팅 하는 과정을 영상자료로 남기고, 전시장 바닥에 일렬로 늘어놓음. 관람객들에게 주어지는 시각적인 정보는 상자 안에서 꺼낸 오브제들로 제한적으로 보여줌. 전시가 끝난 이후 이것들은 다시 본래의 상자 안으로 들어가 밀봉되어 특정한 곳에 각각 묻어버림. 이것은 작가가 줄곧 시간에 기대어 어떤 본질을 탐구하고 지나간 시간을 불러와 전시장을 재생성해 나가는 방법 중 하나임.






4. 청년공간 우수사례 – 800/40

가. 800/40 개요

○ 800/40은 2012년 12월 28일, 동대문구 이문동에서의 작업발표를 시작으로 현재(2014년)는 을지로 세운상가 인근 대림상가에 터를 잡고 재개관한 공간임

- 이전에 증명했던 장소특정적 작업, 작가 개인의 관심의 영역을 중시한 시점특정적 작업에 이어 몸의 언어로 풀어갈 행동(행위)특정적 ,신대륙(유토피아)란 키워드를 통해 기존 미술담론과는 다른 새로운 예술의 형태를 고민하고 이를 발표하고 실험하는 장(場)으로 존재함

○ 800/40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청년들로 구성된 운영진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젊은 운영진들은 작가이자 창작공간의 운영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 청년 운영진들은 새로운 미술의 형태로서 무엇이 가능한지에 관한 고민으로부터 800/40을 결성하였으며 800/40 자체가 하나의 전시 공간이자 예술 플랫폼의 역할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음
- 800/40, 300/20, 200/20이라는 공간명은 모두 보증금과 월세를 뜻하는 것으로 젊은 창작가들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월세와 보증금 속에서 당시 이 정도 보증금과 월세만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는 의미에서 800/40으로 시작

○ 또한 800/40은 을지로 주변 환경,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유, 무형의 공간이자 발표하는 창작자들의 네트워크장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공간임

- 인근 지원기구와 함께 을지로 세운상가 일대 예술생태계를 생성하는 구심점의 역할을 하고 있음
- 또한 예술을 판매하는 상점 역할로서의 공간 ‘300/20’, 책 출판, 유통의 공간 ‘200/20’, 소규모 공연장 ‘금성나이트’, 디자인, 목공을 담당하는 ‘정명우목공소’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상생관계를 이어가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현대 미술의 지형을 넓혀 가고 있음

○ 800/40은 기존의 작품을 선보인 작가들 및 새로운 기획자, 창작자들을 선보이며 창작자들의 예술 활동을 지원함
- 2015년 800/40은 '24시간 레지던시', '24시간 전시', '240시간 전시' 프로그램을 통해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공간에서부터 창작 스튜디오로 기능을 확대하여 창작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또한, 각 프로그램은 기존의 갤러리가 여는 시간(12~6시)에 제한되지 않고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시간대를 선정

나. 800/40 프로젝트

1) 지역연계프로젝트 – 세운상가 좋아요, 대림상가 좋아요, 청계상가 좋아요

○ 800/40은 공간이 위치한 청계천, 을지로를 중심으로 장소가 가진 가치를 드러내고 알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
- 2015년 3월부터 4월까지 페스티벌 〈세운상가 좋아요, 대림상가 좋아요, 청계상가 좋아요〉를 개최
- 800/40이 위치한 을지로, 청계천 일대의 장소성을 널리 알리는 페스티벌로, '청계천 사생대회 점.선.면. 좋아요' 프로그램, '투어 좋아요' 프로그램, '선생님 좋아요' 프로그램, '전시 및 공연'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을지로, 청계천에 위치한 300/20, 200/20, 개방회로라는 신생공간이 함께 참여한 페스티벌로 서울 중구청에서 후원과 홍보를 도왔음

○ 〈세운상가 좋아요, 대림상가 좋아요, 청계상가 좋아요〉는 과거 황금기를 누렸던 종합 가전제품 상가 일대인 세운상가, 대림상가, 청계상가의 장소가 가진 아름다움을 찾고 문화적 · 예술적 가치를 드러내고자 기획
- 세운상가, 대림상가, 청계상가 그리고 청계천 일대 지역은 서울 한복판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그 주변과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으로, 살아있는 박물관처럼 각각의 시대 별로 격동기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어 이 일대 지역이 가진 아름다움을 찾아보고자 하였음

○ 페스티벌은 투어, 전시, 공연,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
- 대림상가 내부 낡은 오디오와 노래방 기기를 통해 기획작가의 아버지가 운영했던 금성나이트를 연상하여 재현한 '금성나이트'로 전시와 퍼

포먼스를 제공

- 청계천 광경을 바라보다 길을 잃지만 구불구불한 골목에서 빠져나오는 경험을 하게 되는'Somewhere in the World'는 영화를 재해석한 행위예술작품, 70~80년대 산업화시대를 이끌어왔던 상인들이 직접 나서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선생님 좋아요'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함

〈표4-11〉 세운상가 좋아요, 대림상가 좋아요, 청계상가 좋아요

■ '세운상가 좋아요, 대림상가 좋아요, 청계상가 좋아요' 페스티벌

○ 기획의도 및 목적

- '세운상가 좋아요, 대림상가 좋아요, 청계상가 좋아요' 는 세운상가, 대림상가, 청계상가, 을지로 청계천 지역이 가진 장소성과 지역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기획한 페스티벌임

○ 페스티벌 개요

- 기간: 2015. 3.28 -4.18
- 장소: 세운상가, 대림상가, 청계상가 일대
- 구성: '청계천 사생대회:점·선·면 좋아요' , '투어 좋아요' , '선생님 좋아요' , 공연 'Site-Specific 1'
- 참여작가: 고초옥, 김세윤, 김정화, 류한솔, 강정석, 호상근, 정명근, 이현지, 김규동, 박광수, 유정민, 홍재진

■ 전시내용

- 청계천의 오래된 풍경들을 그려보는 '사생대회, 점,선,면, 좋아요' 프로그램, 청계천과 세운상가 군을 돌아다니면서 진행한 '투어 좋아요' 프로그램, 청계천 상인들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선생님 좋아요' 프로그램과 함께, 장소와 관련된 작품을 발표하는 '전시 및 공연'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 '전시 및 공연' 프로그램은 세운상가, 대림상가, 청계상가에 있는 창작 공간들(300/20, 200/20, 개방회로)과 연계하여 진행







2) 기획전시 – ‘24시간 레지던시’, ‘24시간 전시’, ‘240시간 전시’

○ 24시간 레지던시’, ‘24시간 전시’, ‘240시간 전시’ 프로그램을 통해,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공간 뿐만 아니라 창작 스튜디오로도 기능을 확대하여 지원하는 시스템을, 청년작가들 스스로 구축

○ 예술 창작자들의 부담없이 진행할 수 있는 창작 활동 증진하면서 일반적인 갤러리 오픈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낮과 밤, 새벽까지 모두 활용한 전시 진행, 24시간 동안 선보이는 단발성의 전시 등을 통해 공간의 특성과 청년 작가들의 특성을 반영해내고자 함

○ 24시간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하루라는 시간동안 800/40의 물리적인 공간을 작가들에게 개인 스튜디오로 개방하며 창작 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임
  – 2015년 24시간 레지던시 프로그램에서는 김정화, 김양우, 김정헌, 고산홍, 김갑환, 김주현, 한승무 등 총 7명의 창작자가 참여

○ 하루라는 시간 동안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을 소개하는 ‘24시간 전시’는 24시간 동안 선보이는 단발성의 전시로 단기간 동안 예술 창작자들의 부담없이 진행할 수 있는 창작 활동 증진
  – 새로운 전시의 방법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갤러리 오픈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낮과 밤, 새벽까지 모두 활용하고 있음

〈표4-12〉 24시간 전시, 24시간 레지던시

■ 김정화 ‘24시간 전시’ ○ 내용 - 하루라는 시간동안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 기간: 2015. 6.11 오전 7시 - 6.12 오전 7시 ○ 전시내용 - 김정화 작가는 24시간 동안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800/40에 머물며 공간과 스크린 등을 고민하고 시도해본 흔적과 결과물을 전시 ■ 24시간 레지던시 ○ 내용 - 24시간 동안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에게 800/40의 물리적인 공간을 개인 스튜디오로 개방하는 프로그램 - 2015년에는 김정화, 김양우, 김정헌, 고산홍, 김갑환, 김주현, 한승무 등 총 7명의 작가들이 800/40을 개인 스튜디오로 활용


24


24


24


24


24